2019 우수보육프로그램

[아동권리존중]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GYEONGGIDONORTH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2019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집

[아동관찰일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목 차

1. 대상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남양주시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 5

2. 최우수 [태어난 순간부터] 가평군 명호어린이집 ····· 49

3. 최우수 [권리로 물들다] 고양시 권율어린이집 ····· 85

4. 최우수 [청(靑)전기] 고양시 시립소나무어린이집 ····· 119

5. 최우수 [우리에게는 어린권리가 있어요] 포천시 시립송우어린이집 ····· 157

6. 우수 [따뜻한 시선 그 첫걸음] 고양시 시립장미어린이집 후기 ····· 197

7. 우수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고양시 해피토리어린이집 후기 ····· 203

8. 우수 [권리야~ 놀자] 남양주시 시립별내어린이집 후기 ····· 209

9. 우수 [특별한 나, 소중한 우리] 양주시 신명어어린이집 후기 ····· 215

10. 우수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남양주시 유호꼬마별어린이집 후기 ····· 219

11. 우수 [마음 튼튼이] 파주시 시립해솔마을6단지어린이집 후기 ····· 225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남양주시
시립 가운사랑어린이집

Ⅰ. 서론

1. 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CRC)'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가 1991년 11월 20일자로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는 것은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백우경, 1994) 협약 제1조에서 보듯이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영·유아 또한 협약에 부여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다. 즉, 영·유아도 협약에서 보듯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

영·유아 시기가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보호 뿐만아니라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유아가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들 자신의 관심사와 이익, 그리고 관점을 가진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김진숙,2009)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주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영·유아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보육 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의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유아가 권리의 주체로서 자각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인권'의 개념과 내용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의 각각의 구체적인 생활 속 사례를 통해서 인권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발달과 능력의 이해를 기초로 영·유아, 가정, 보육교육기관이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영·유아의 시기에 갖는 기술, 지식, 가치, 태도 등은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스스로 권리를 배우고,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제공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킬 줄 알게 된다. 즉, 영·유아의 일차적인 사회 환경인 부모, 형제들에 의해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기술, 지식, 태도가 학습되어야 하며, 보육교육기관에서 교사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원에서는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부모교육, 교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의 권리가 보육과정에서 존중되고,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영·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권리존중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 실시 배경

영·유아기는 발달 단계 특성상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자의 보호와 양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즉, 영·유아는 권리존중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양육자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존중 받은 경험을 토대로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아동으로 성장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 시기에는 교사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습관과 활동 등을 습득하고 신체 및 정서적 성숙을 기초하여 여러 가지 놀이와 표현활동이 발달되며 언어적인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발달 시기이다(류수경, 2012) 또한 맞벌이 자녀가 늘어가고, 보육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 연령도 낮아짐에 따라 보육교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권리존중을 살펴보면, 등원 시 눈 맞춤과 함께 시작되며, 정리 전에 영·유아 스스로 끝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영·유아가 주도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낮잠, 배변, 식사시간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며, 자유선택활동에서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보육과정에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영·유아의 요구와 반응에 애정과 관심을 통으로써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에게도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홍효의, 2017)

권리존중을 경험한 영·유아는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으며, 타인을 이해하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더욱 창조적인 삶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영·유아의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영·유아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실천하는 활동으로 생존권, 보호권에 대한 일상생활과 발달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보육활동에서 영·유아의 권리존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2018년도에는 "자유 놀이 영역 활동 없는 날"을 지정하여 마음껏 놀이하고 싶은 권리를 존중해 보았다. 2018년도에는 보육과정에서 일부분 실천하였지만, 등원부터 하원 할 때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세부적으로 권리존중을 해 보고자 2019년에는 부모교육 및 정기적인 교사 협의를 통하여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이해의 숙련도에 따라 다양한 권리존중에 대한 안건을 실천 속에서 가정과 연계하여 활동범위를 확장하였다.

권리존중은 "가치문제"이기 때문에 권리존중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실천 할 수 있기 까지는 논문 및 다양한 사례 연구 자료 등이 부족하여 여러 번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전년도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프로그램의 토대위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경기도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교육 및 전문 강사 파견 컨설팅 교육 참여와 영·유아 권리존중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천으로 부모 참여 독려 및 가정연계 활동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영·유아가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발 한발 내딛는 첫 걸음을 걷듯 신중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권리를 만나는 경험을 실천하고자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Ⅱ. 본론

1.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특징 및 추진과정

부모

■영·유아 권리존중 학부모 사전인식도 조사
■ 영·유아 권리존중 원외 부모교육참여

교사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 사전인식조사
■영·유아권리존중 체크리스트 매월 1회 실시
■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교육 참여(온라인, 집합교육)

영·유아

■2018년 "맘껏 놀고 싶은 권리존중"프로그램연간계획
■2019년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연간계획

부모대상(가정연계)

■원외 부모교육
■원내 반별모임
■가정연계활동
(매월1회 월간배부)

지역사회연계

■영·유아 권리존중 피켓 거리 캠페인
■영·유아 권리존중 스티커 배부

평가

■ 부모 평가
■ 교직원 평가
■ 영·유아 평가

2) 프로그램 대상 및 기간

■ 2018년 3월~ 12월(만1세~만3세)	매일 2시간 30분 활동하는 자유놀이활동 시간에 영·유아 스스로 놀이할 수 있도록 마음껏 놀고 싶은 권리 존중 프로그램으로 "자유놀이 영역 활동 없는 날"을 매월 하루를 지정하여 자유롭게 놀이하고 싶은 권리를 존중 해 주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 2019년 1월 ~ 현재까지(만1세~만3세)	일상생활 속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이 되도록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를 매일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3) 프로그램 활동 대상: 본 원 재원중인 만1세~ 만3세까지 영·유아 30명, 학부모, 보육교직원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 2018년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 연간교육계획안

■ 마음껏 놀고 싶은 권리 존중 프로그램 [자유 놀이 영역 활동 없는 날]

월	활동내용	월		비고
3	-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 및 인식 조사 - 영유아 권리존중 피켓	8	- 미역 happy day	- 참여권,발달권
4	- 습자지 happy day	9	- 티슈 happy day	- 참여권,발달권
5	- 수수깡 happy day	10	- 풍선 happy day	- 참여권,발달권
6	- 비누방울 happy day	11	- 낙엽 happy day	- 참여권,발달권
7		12	- 우주여행 happy day	- 참여권,발달권

5) 2019년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 연간교육계획안

■내 권리는 소중해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월	주제	활동내용	비고
1.2	오늘은 이사하는 날	- 형님반이 되어 이사하는 날입니다.	- 발달권 - 참여권
3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 (부모교육 및교사교육)	-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 및 인식 조사 - 반별 모임(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 안내)	- 사전인식조사 - 후 반영
4	내 권리는 소중해요 1	- 가정통신문 배부 - 가방고리 및 홍보안내, 스티커 배부	- 참여권
5	내 권리는 소중해요2	- 내가 선택한 머리 모양으로 묶어주세요 - “자율 배식 하는 날”입니다. - 내가 만드는 자유놀이 시간입니다.	- 참여권 - 발달권
6	내 권리는 소중해요3	- 무지개 데이 - 내 마음대로 신발장에 신발을 놓고 싶어요 나는 차별없이 놀고 싶어요 - 내 장난감으로 자유놀이를 하고 싶어요2	- 참여권 - 발달권 - 보호권
7	내 권리는 소중해요4	- ‘나만의 인사법’으로 인사해요 - 오늘 내 감정을 인정 받고 싶어요 - “물장난 하는 거 아닌데요” - 내 장난감으로 자유놀이를 하고 싶어요	- 참여권 - 발달권 - 보호권
8	내 권리는 소중해요5	- 나 혼자 치약 짜고 싶어요 - 교실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고 싶어요 - 나도 선생님을 하고 싶어요 - 내 장난감으로 자유놀이를 하고 싶어요	- 참여권 - 발달권 - 보호권
9	내 권리는 소중해요6	- 낮은 곳에 게시판에 내가 붙이고 싶어요 - 자유롭게 스스로 정리하고 싶어요 - “내 권리는 소중해요” 캠페인 - 내 장난감으로 자유놀이를 하고 싶어요	- 참여권 - 발달권 - 보호권
10	내 권리는 소중해요7	- 내가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갈거예요 - 너무 졸리면 휴식매트에서 자요 - 기분표정 표정판을 만들어요 - 내 장난감으로 자유놀이를 하고 싶어요	- 참여권 - 발달권 - 보호권
11	내 권리는 소중해요8	- 더 놀고 싶어요1 - 요리사에게 편지쓰기 - 우리 가족 별명 만들기 - 내 장난감으로 자유놀이를 하고 싶어요	- 참여권 - 발달권 - 보호권
12	내 권리는 소중해요9	- 더 놀고 싶어요2 - 자율 배식하는 날이예요 - 산타할아버지께 선물을 주고 싶어요 - 내 장난감으로 자유놀이를 하고 싶어요	- 참여권 - 발달권 - 보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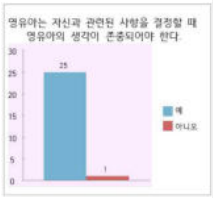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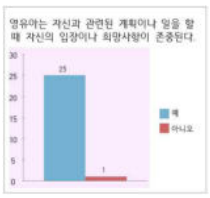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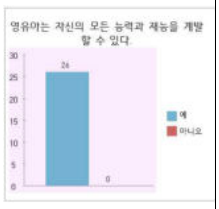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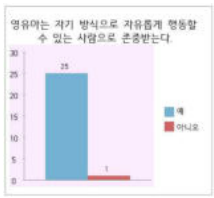
6) 진행과정 및 프로그램 활동방법 세부내용

■ 가정연계를 위한 가운사랑카페(cafe.naver.com/gaunlove) 매일 안내하여 부모 참여를 독려 하였다.

■ 권리존중 보육교직원 내부교육으로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 및 계획 평가를 하였다.

■ 권리존중 보육교직원 외부교육으로 이론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 및 실천을 하였다.

■ 권리존중 학부모 외부교육으로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천 하였다.

<table>
<tr><td>가정연계를 위한
가운사랑카페
가정통신문발송
cafe.naver.com
/gaunlove</td><td colspan="2"> </td><td>영·유아
권리존중
캠페인</td><td colspan="2"> </td></tr>
<tr><td rowspan="2">사전 학부모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조사</td><td colspan="2">  </td><td colspan="2">  </td><td colspan="2">  </td><td>  </td></tr>
<tr><td colspan="6">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학부모 사전인식조사를 통하여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26명 참여 부모 중 평균 25명이 예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영·유아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해야 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td></tr>
<tr><td>보육교직원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조사</td><td colspan="2"> </td><td colspan="4">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존중에서 자율성존중, 개별성존중, 융통성 존중 등으로 나누어 체크리스트 한 결과 자율성 존중 면에서 보육교직원 모두 보통이다에 체크하면서 낮은 평가를 스스로 하였다. 앞으로 자율성 존중, 융통성존중에서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td></tr>
<tr><td rowspan="4">권리존중
내부교사교육</td><td>실시날짜</td><td colspan="3">내용 및 장소</td><td colspan="2">참여교사</td></tr>
<tr><td>2019.3.30</td><td colspan="3">보육교직원 영유아 권리선서</td><td colspan="2">전체교사</td></tr>
<tr><td>2019.4.29.</td><td colspan="3">보육교직원 아동권리의 개념 및
아동권리의 중요성</td><td colspan="2">전체교사</td></tr>
<tr><td>2019.5.16.</td><td colspan="3">보육교직원 아동권리존중
(ebs 2019년 신년기획특집"놀이의 힘"
동영상 시청 후 토론)</td><td colspan="2">전체교사</td></tr>
</table>

	2019.6.3.	아동권리존중 실천이 먼저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컨설팅 자료 내부교육)		전체교사
	2019.7.26	권리존중교육- **도서교육** 나와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돼요 (나도 권리가 있어!- 인권교육센터'들'지음)		전체교사
	2019.8. 9	아동권리존중 교육사례에 대한 팁과 해설		전체교사
	2019.9.23	아동인권 선입교사를 위한 안내서2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출처		전체교사
권리존중 외부교사교육	2019.3.23.	아동권리존중 한국인성플러스연구소	원장	
	2019.4.25.	아동권리존중특강2 (권리와비차별교육)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 1인	
	2019.4.29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권리교육 전체보육교직원교육(온라인)	전체교사	
		원장	조리사	교사 4인 보조교사
	2019.5.2.	아동권리존중특강3 (아동권리와 긍정적훈육)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주임 교사 1인	
	2019.5.16.	아동권리존중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원장	
	2019.6.13	아동권리존중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컨설팅** 외부강사(김현지컨설턴트) 교육	전체 교사	
	2019.7.9.	아동권리존중 (실천이먼저)실천사례발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원장 1인	
권리존중 외부 부모교육	2019.3.22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남양주 육아종합지원센터	달님반 부모 1인	

2. 2018년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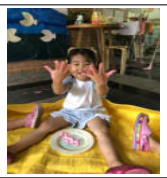
2018년 4월 [마음껏 놀고 싶은 권리 존중 교육프로그램]

활 동 명	자유 놀이 영역 활동 없는 날 (습자지로 놀아요)		
활동목표	■습자지를 탐색하며 습자지를 이용하여 마음껏 신체활동을 한다. 신체운동>감각과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운동건강>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습자지를 이용하여 봄꽃 나무도 표현해보고 나비 날개를 만들어본다. 예술경험>예술적표현하기>예술감상하기 예술경험>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다양한예술감상하기		
기 간	2018년 4월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활동자료	습자지(여러가지 색깔), 모루, 비닐, 눈알, 스티커		
활동 방법	■ 도 입	- 습자지를 찢고, 구기고, 날리며 탐색해본다.	
	■ 전 개	- 길게, 넓게 자르고 구겨진 습자지 위를 걸어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한다. - 천장에 설치된 비닐 막 위로 습자지를 올려 날려 본다. - 달팽이 모양에 붙여놓은 종이컵에 습자지를 구겨 넣어 달팽이를 만들어 본다. - 다양한 색깔의 습자지 조각 속에 들어가 숨어 보기도 하고 친구를 찾아 본다.	
	■ 마무리	찢고, 구기고, 날리던 습자지를 신나는 음악과 함께 비닐주머니에 담아 마무리하였다.	
확장 활동	놀이과정에서 탐색한 습자지를 비닐에 넣어 묶은 다음 비닐 가운데를 모아 백업을 연결하여 눈알과 스티커를 붙여 완성한다. 나비를 들고 습자지가 깔린 공간을 훨훨 날아본 후 가정으로 가져갔다.		
활동 평가	습자지를 이용하여 탐색하는데 흥미를 느끼며 색깔, 재질을 탐색할 수 있었고, 습자지를 날리는데 재미있게 활동해 보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에 사용된 습자지를 나비 만드는데 사용하여 정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귀가하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비를 날리며 즐겁게 하원하였다.		
활동 사진			

2018년 5월 [마음껏 놀고 싶은 권리 존중 교육프로그램]

활 동 명	자유 놀이 영역 활동 없는 날 (수수깡으로 놀아요)		
활동목표	■수수깡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수수깡을 이용하여 마음껏 신체활동을 한다. 신체운동>감각과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운동건강>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길고 짧게 잘라진 수수깡을 이용하여 미술활동을 경험 한다. 예술경험>예술적표현하기>예술감상하기 예술경험>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다양한예술감상하기		
기 간	2018년 5월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활동자료	수수깡, 비닐풍선, 소쿠리와 소꿉놀이도구, 종이접시, 양면테이프, 풍선		
활동 방법	■ 도 입	수수깡을 길고 짧게 부러뜨리며 탐색한다.	
	■ 전 개	- 길고 짧게 잘라본 수수깡으로 소꿉놀이 도구를 이용하여 놀이한다. - 커다란 소쿠리에 담아보기도 하고, 삽이나 작은 도구로 떠 본다 - 천장에 매달린 잘라진 수수깡을 담은 풍선을 수수깡 조각을 던져서 풍선을 맞춰본다 - 잘라진 수수깡 사이에 누워보기도 하고 몸위에 수수깡을 덮어 본다.	
	■ 마무리	활동 후 남은 수수깡을 비닐에 넣어본다.	
확장 활동	종이접시 테두리에 붙은 양면테이프를 떼어 부러뜨리고 탐색한 수수깡을 붙여본다. 사자의 코, 입을 표현하며 다양한 재료를 붙이며 탐색한다. 부러뜨린 수수깡을 풍선에 넣어 풍선을 위로 튕겨본다.		
활동 평가	영유아들이 손, 힘으로 수수깡을 부러뜨릴 수 있어서 재미있어 하였고 수수깡을 부러뜨릴 때 소리가 나서 흥미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부러뜨린 수수깡을 접시에 붙여서 미술활동으로 확장해 보았고, 수수깡을 활용하여 미술활동을 하여서 정리하는데도 용이하였다.		
활동 사진			

2018년 7월 [마음껏 놀고 싶은 권리 존중 교육프로그램]

활 동 명	자유 놀이 영역 활동 없는 날 (비눗방울 놀이해요)		
활동목표	■비누거품또는 비눗방울을 탐색하며, 마음껏 신체활동을 한다. 신체운동>감각과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운동건강>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비누거품을 종이위에 표현해보며, 미술활동을 경험 한다. 예술경험>예술적표현하기>예술감상하기 예술경험>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다양한예술감상하기		
기 간	2018년 7월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활동자료	퍼니매트, 비눗방울액, 쟁반, 비눗방울 거품 도구, 접시,		
활동 방법	■ 도 입	쟁반 넓게 비눗방울 용액을 부어준다. 비눗방을을 탐색한다.	
	■ 전 개	- 비눗방울 도구를 이용하여 비눗방울을 만들며 활동한다. - 거품을 불며 바람의 방향과 다르게 또는 같게 움직여본다. - 비눗방울을 작게 또는 크게 불어보며 따라다닌다. - 음악소리에 맞추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비눗방울 놀이를 한다.	
	■ 마무리	다양한 색의 버블을 손에 무쳐 색깔 거품에 대해 놀이한다. 손을 씻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확장 활동	퍼니매트 안에서 버블 놀이한 후 벽면에 제시된 종이 접시 물고기에 영·유아 손에 버블을 담아 다양한 물고기를 상상하여 미술활동으로 확장하여 놀이한다. 		
활동 평가	일상생활에서 접해 볼 수 있었던 비눗방울이었지만 스스로 불어보고, 잡아보는데 흥미를 보였고, 긴 시간동안 비눗방울 놀이였는데 몰입하여 놀이를 하였다. 버블의 촉감을 느끼고 물고기를 꾸며 주면서 흥미를 느끼는 영유아를 볼 수 있었다.		
활동 사진			

2018년 8월 [마음껏 놀고 싶은 권리 존중 교육프로그램]

활 동 명	자유 놀이 영역 활동 없는 날 (미역으로 놀아요)		
활동목표	■미역을 탐색해보며 미역을 이용하여 마음껏 신체 활동을 한다. 신체운동>감각과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운동건강>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미역을 이용하여 바다생물을 꾸며 미술활동을 경험 한다. 예술경험>예술적표현하기>예술감상하기 예술경험>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다양한예술감상하기		
기 간	2018년 8월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활동자료	미역, 소꿉놀도구, 커다란 소쿠리, 빨래대, 물고기 그림판		
활동 방법	■ 도 입	퍼니매트에 불린 미역을 만지며 탐색해본다.	
	■ 전 개	- 미역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본다. - 미역을 손을 길게 늘려보기도 하고, 잘라보기도 한다. - 미역에 미끄러져 앉아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하며 놀이한다. - 미역을 건조대에 널어 말려 본다 - 소꿉놀이를 이용하여 미역을 담아 놀이한다.	
	■ 마무리	미역을 커다란 소쿠리에 담아 모아본다.	
확장 활동	바다생물 그림을 바닥에 펼쳐준 후에 비역을 위에 얹어서 그림을 꾸며본다. 불린 미역을 이용해서 바닷속 꾸미기를 한다.		
활동 평가	음식을 통하여 먹어본 미역을 탐색해 보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놀이 방법을 통해 흥미를 느껴보는 모습을 관찰 수 할 수 있었다. 미역을 좀 더 많이 불려서 더 많은 양으로 제공하여야겠다.		
환류 계획			
활동 사진			

2018년 9월 [마음껏 놀고 싶은 권리 존중 교육프로그램]

<table>
<tr><td>활 동 명</td><td colspan="3">자유 놀이 영역 활동 없는 날(티슈로 놀아요)</td></tr>
<tr><td>활동목표</td><td colspan="3">■티슈를 탐색해보며 티슈를 이용하여 마음껏 신체 활동을 한다.
신체운동>감각과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운동건강>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티슈를 이용하여 양의 몸을 꾸미며 미술활동을 경험한다.
예술경험>예술적표현하기>예술감상하기
예술경험>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다양한예술감상하기</td></tr>
<tr><td>기 간</td><td>2018년 9월</td><td>참여인원</td><td>30명</td></tr>
<tr><td>장 소</td><td colspan="3">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td></tr>
<tr><td>활동자료</td><td colspan="3">두루마리휴지, 티슈, 천장에 매달끈, 양그림판, 양면테이프</td></tr>
<tr><td rowspan="3">활동
방법</td><td>■ 도 입</td><td colspan="2">천정이나 벽면에 미리 붙어놓은 두루마리 휴지를 탐색한다.</td></tr>
<tr><td>■ 전 개</td><td colspan="2">천정에 매달린 휴지를 풀어보고 뭉쳐서 날려보며 자유롭게 놀이한다.
퍼니매트 안에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하여 탑을 쌓아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하고, 올라가서 걸어도 보고, 던져보며 놀이한다.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하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풀어진 티슈나 휴지위에 누워보기도 하고 몸위로 덮어보기도 한다.
음악에 맞추어 휴지를 날려 몸을 흔들어본다.</td></tr>
<tr><td>■ 마무리</td><td colspan="2">활동한 휴지를 비닐에 넣어본다.</td></tr>
<tr><td>확장
활동</td><td colspan="3">양 그림 위에 양면테이프를 떼어내고 놀이후 바닥에 남은 휴지를 손으로 말아 붙여 미술활동으로 연계하여 양을 만든다.
 </td></tr>
<tr><td>활동
평가</td><td colspan="3">실생활에서 사용하던 휴지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기회를 통해 영·유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휴지의 특성상 부드럽고 잘 끊어지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었다.</td></tr>
<tr><td>활동
사진</td><td colspan="3"> </td></tr>
</table>

2018년 10월 [마음껏 놀고 싶은 권리 존중 교육프로그램]

활 동 명	자유 놀이 영역 활동 없는 날 (풍선&비닐로 놀이해요)		
활동목표	■풍선과 비닐을 이용하여 마음껏 신체활동을 한다. 신체운동>감각과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운동건강>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풍선에 비닐조각을 붙여서 미술활동을 경험한다. 예술경험>예술적표현하기>예술감상하기 예술경험>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다양한예술감상하기		
기 간	2018년 10월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활동자료	풍선,비닐, 색비닐봉지, 고무줄, 다양한재료(단추, 방울, 뽕뽕이), 비닐조각, 색종이, 테이프, 풍선, 백업라켓		
활동 방법	■ 도 입	비닐, 풍선을 탐색하며, 비닐과 풍선을 이용한 신체활동을 한다.	
	■ 전 개	색비닐 봉지, 풍선을 바람을 일으켜 따라다니면서 자유롭게 놀이한다. 백업라켓을 이용하여 풍선을 이용하여 놀이한다. 골대 안에 풍선넣기, 두더지게임등 다양하게 놀이한다. 천장에 매달린 풍선과 비닐풍선을 백업라켓으로 튕겨본다.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두발로 콩콩 뛰어 본다. 풍선을 튕겨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흔들어보기도 한다.	
	■ 마무리	풍선과 비닐조각, 비닐봉지를 커다란 비닐에 담아본다.	
확장 활동	풍선에 비닐조각을 붙여 무지개 물고기를 만들어 미술활동으로 연계한다.		
활동 평가	풍선과 비닐을 이용해 즐거운 탐색활동을 한 후에 비닐방석을 터트리기도 하고 신나는 바람을 이용하여 풍선을 따라다니며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었다. 마음껏 뛰어놀며 놀이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가끔 풍선이 터져서 민감하게 놀라지 않도록 활동 사전에 알려주어야겠다.		
활동 사진			

2018년 11월 [마음껏 놀고 싶은 권리 존중 교육프로그램]

<table>
<tr><td>활 동 명</td><td colspan="3">자유 놀이 영역 활동 없는 날 (낙엽으로 놀아요)</td></tr>
<tr><td>활동목표</td><td colspan="3">■낙엽을 이용하여 마음껏 신체활동을 한다.
신체운동>감각과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운동건강>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나뭇잎을 이용하여 미술활동을 경험한다.
예술경험>예술적표현하기>예술감상하기
예술경험>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다양한예술감상하기</td></tr>
<tr><td>기 간</td><td>2019년 11월</td><td>참여인원</td><td>30명</td></tr>
<tr><td>장 소</td><td colspan="3">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td></tr>
<tr><td>활동자료</td><td colspan="3">낙엽, 머리띠, 양면테이프, 투명시트지, 갈퀴, 꼬치</td></tr>
<tr><td rowspan="3">활동
방법</td><td>■ 도 입</td><td colspan="2">낙엽을 마음껏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으며 탐색한다.</td></tr>
<tr><td>■ 전 개</td><td colspan="2">나뭇잎을 날려 낙엽비를 맞아본다.
갈퀴를 이용하여 낙엽을 모아 그 안에 몸을 숨겨보기도 한다.
꼬치에 나뭇잎을 꽂아 친구와 누가 더 많이 꽂는지 게임을 한다.
단풍든 나뭇잎을 손으로 모아본다.
모아 놓은 나뭇잎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추어 날려보기도 한다.</td></tr>
<tr><td>■ 마무리</td><td colspan="2">단풍든 나뭇잎을 10장씩 모아본다.</td></tr>
<tr><td>확장
활동</td><td colspan="3">종이 머리띠에 양면테이프를 떼어내고 나뭇잎을 붙여서 완성해보았다.
투명시트지 면에 나뭇잎을 붙여서 물고기 몸을 완성하며 미술활동으로 연계하여 놀이하였다.
 </td></tr>
<tr><td>활동
평가</td><td colspan="3">비가 온 후로 나뭇잎이 젖은 상태로 계획한 날짜에 활동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준비된 활동을 바깥놀이 시간에 어린이집 앞 공터에서 하였는데, 어제 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더 많은 낙엽이 떨어져 있어서 활동하기에 좋았다.</td></tr>
<tr><td>활동
사진</td><td colspan="3"> </td></tr>
</table>

2018년 12월 [마음껏 놀고 싶은 권리 존중 교육프로그램]

<table>
<tr><td>활 동 명</td><td colspan="3">자유 놀이 영역 활동 없는 날 (우주여행 놀이를 해요)</td></tr>
<tr><td>활동목표</td><td colspan="3">■우주공간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마음껏 신체활동을 한다.
신체운동>감각과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운동건강>신체인식하기>신체조절과기본운동하기>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로케트를 만들며 미술활동을 경험한다.
예술경험>예술적표현하기>예술감상하기
예술경험>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다양한예술감상하기</td></tr>
<tr><td>기 간</td><td>2018년 12월</td><td>참여인원</td><td>30명</td></tr>
<tr><td>장 소</td><td colspan="3">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td></tr>
<tr><td>활동자료</td><td colspan="3">블랙라이트, 백업, 투명풍선, LED등, 색풍선, 색실, 우유병, 스티커, 금지(꼬깔), 행성(형광색지)</td></tr>
<tr><td rowspan="3">활동
방법</td><td>■ 도 입</td><td colspan="2">블랙라이트 설치후 백업을 잘라 바닥에 깔아준다.
블랙 라이트와 백업을 탐색한다.</td></tr>
<tr><td>■ 전 개</td><td colspan="2">블랙라이트에 비치는 백업을 찾아 벽면에 붙이거나 자유롭게 활동한다.
음악에 따라 자유롭게 몸을 맡기며 새로운 분위기에 춤과 노래를 하며 신나게 놀이한다.
투명 풍선 안에 LED 공을 넣어 천장에 매달아 놓은 풍선을 백업을 던지며 놀이한다.</td></tr>
<tr><td>■ 마무리</td><td colspan="2">음악에 따라 신나게 우주여행을 한 후에 백업을 비닐에 넣어준다.</td></tr>
<tr><td>확장
활동</td><td colspan="3">우유병에 스티커와 날개를 붙여서 로케트를 만들어 미술활동으로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td></tr>
<tr><td>활동
평가</td><td colspan="3">우주공간의 컨셉이 생소하지만 빛나는 것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책이나 생활속 에서 알고 있는 “우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놀이해봄으로써 흥미로운 경험이 되었다. 레드볼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활동해야겠다.</td></tr>
<tr><td>활동
사진</td><td colspan="2"> </td><td> </td></tr>
</table>

3. 2019년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 세부활동 내용

2019년 1,2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table>
<tr><td>활 동 명</td><td colspan="3">내 권리는 소중해요 -오늘은 형님반으로 이사하는 날</td></tr>
<tr><td>활동목표</td><td colspan="3">■나의 즐거웠던 경험에 대하여 마음껏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의사소통>말하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한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는다.
의사소통>듣기>이야기듣고이해하기>다른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형님반으로 내 물건을 옮겨 내 사물함 자리를 탐색한다.</td></tr>
<tr><td>기 간</td><td>2019년 1,2월</td><td>참여인원</td><td>19명</td></tr>
<tr><td>장 소</td><td colspan="3">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 반교실</td></tr>
<tr><td>활동자료</td><td colspan="3">일년동안의 활동사진과 동영상, 개인물건담은 바구니, 사물함</td></tr>
<tr><td rowspan="3">활동
방법</td><td>■ 도 입</td><td colspan="2">1.처음 00반에서 만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2.우리가 000반에서 만났을 때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기억이 나요?</td></tr>
<tr><td>■ 전 개</td><td colspan="2">1.일년동안 즐거웠던 현장학습, 매월 행사,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추억을 되새겨 본다
-다시 000반에서 1년동안 놀이하고 싶나요?
2.친구들에게 자신이 가장 즐거웠던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나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나의 가족사진, 내 얼굴사진이 붙은 곳을 확인한 후 떼어낸다.
4.나의 사물함에서 내 개인 바구니를 찾아 들어본다.</td></tr>
<tr><td>■ 마무리</td><td colspan="2">1.나의 바구니를 들고, 형님반 사물함에 내 바구니를 정리한다.
2.내얼굴 이름표와 가족사진을 제자리에 붙여본다.
3.형님반을 탐색한다.
 </td></tr>
<tr><td>활동
평가</td><td colspan="3">함께한 추억 중에서 인상 깊거나 재미있었던 추억에 관해 말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가족사진과 개인사물함 사진을 떼어서 직접 형님반 교실에 붙이면서 내 물건과 내사진의 자리를 스스로 정하여 형님반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td></tr>
<tr><td>활동
사진</td><td colspan="3"> </td></tr>
</table>

2019년 5월 가운 사랑 권리존중 프로그램
'권리야~ 사랑이들을 부탁해' 가정통신문(1)

안녕하세요. 저희 가운사랑어린이집에서는 사랑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랑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갖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들이 권리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양육자 또는 교사에게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함께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5월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안내하며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5월 첫째주~ 둘째주 – 내가 선택한 머리 모양으로 묶어주세요
낮잠 후에 머리 모양을 임의적으로 교사가 묶어주었던 보육과정이었다면 좀 더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며, 반영하여 권리를 존중하는 프로그램으로 내가 머리모양을 선택하여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줄 알며, 타의적인 보육이 아닌 자발적인 머리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권리가 존중되는 보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5월 1~2주 '00반 미용실'	1일(수)~10일(금)	

2. 5월 셋째주 – '자율 배식하는 날'
교실에서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자율 배식하는 날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먹을 권리존중 교육이며, 내가 직접 반찬 배식을 함으로써 편식을 위한 식습관 개선 뿐만아니라, 반찬 남기지 않기등의 교육적인 실천를 하고자 하며, 또한 영유아의 식습관에 관련한 권리존중 교육입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5월3주 '자율배식하는 날'	13일(월)~17(금)	-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자율배식 합니다. - 내가 배식한 음식은 남기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5월 매주 금요일 – 내가 만드는 자유놀이 시간
교실에서 제공되는 놀잇감, 교구가 아닌 사랑이들이 직접 만드는 자유놀이 시간을 계획해 보고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가정에서 사랑이들이 직접 놀잇감을 가져오며 교실에 비치하여 놀이하는 경험을 합니다.
***금요일에 가정에서 가져온 놀잇감은 자유놀이 시간 후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5월 매주 금요일 ‘내가 만드는 자유놀이 시간‘	3일(금요일)	-가정에서 가져온 장난감 및 교구를 이용하여 원에서 자유롭게 놀이하는 경험을 합니다.
	10일(금요일)	
	17일(금요일)	
	24일(금요일)	
	31일(금요일)	

2019년 5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1

활 동 명	내 권리는 소중해요- 내가 선택한 머리모양으로 묶어주세요		
활동목표	■머리모양을 내가 선택할 있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의사소통영역>말하기>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 의사소통영역>말하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낱말이나 짧은 문장으로 말해본다. ■영·유아의 개별적인 의사나 욕구를 반영하여 보육과정에 반영한다.		
기 간	2019년 5월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		
활동자료	머리모양 선택판, 빗, 고무줄		
활동 방법	■ 도 입	1. 등원한 후나 낮잠 후에 보육과정에서 머리를 다시 묶어야 할 경우 머리모양을 선택한다. - 어떤 머리모양을 할까요?	
	■ 전 개	1. 내가 하고 싶은 머리모양을 선택하고 선생님에게 말 한다. - 저는 000 머리를 하고 싶어요~ 2.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머리모양의 의사결정에 귀기울여주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 스스로 머리 모양을 선택해 볼까요? - 선택한 머리 모양을 할때까지 기다려주겠니? - 머리 모양이 비슷한지 거울을 볼래요? 3. 스스로 선택한 머리 모양을 한 후에 거울을 보여준다	
	■ 마무리	1. 스스로 선택한 머리모양에 대해 이야기 한다. -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나요? - 다음엔 어떤 머리 모양을 해 볼까요?	
활동 평가	영·유아의 의견이 반영된 보육과정에서 영·유아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참여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영·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놀이 및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늘 영·유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영·유아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권리가 보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활동 사진			

2019년5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2

활 동 명	내 권리는 소중해요- “오늘은 자율 배식 하는 날 입니다”		
활동목표	■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양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기본생활영역·신체운동영역>건강하게 생활하기> 즐겁게 먹기>>바른식생활하기>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스스로 배식한 후, 식사 후에도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생활하기>바르게 먹기> 바른식생활하기>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예절을 지킨다.		
기 간	2019년 5월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		
활동자료	배식판, 배식구		
활동 방법	■ 도 입	1. 오늘의 식단표를 확인하여 식단에 관심을 갖는다.	
	■ 전 개	1.오늘 식단표에 점심식사의 메뉴를 확인한다. - 오늘 점심식사 반찬은 무엇일까요? -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있나요? - 내가 싫어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반찬도 먹어 볼 수 있나요? 2.내가 스스로 배식할 때 어떤 음식을 먹을까를 생각해본다. 3.내가 먹고 싶은 반찬과 양을 정하여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배식한다. 4.내가 원하는 자리에 식판을 놓고 앉는다.	
	■ 마무리	1.점심식사 후에 내가 스스로 다 먹은 식판을 놓는 쟁반에 식판을 정리한다. - 내가 스스로 배식하고 남은 반찬이 있었나요? - 내가 배식하고, 스스로 식판도 정리해볼까요? 2.내 숟가락을 가방에 넣어 스스로 정리한다.	
활동 평가	매일 등원하면서 식단표에 관심을 갖고, 반찬 등에 기대나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었다. 영·유아 원하는 식사량만큼 배식한 후. 먹고 싶지 않는 음식은 강요하지 않으며, 점심을 빨리 다 먹으라고 재촉하지 않았는데도 전 보다 먹는 양도 많아졌고, 속도도 빨라졌다. 잔반이 전보다 많이 줄었다.		
활동 사진			

2019년 6월 사랑 권리존중 프로그램
'권리야~ 사랑이들을 부탁해' 가정통신문(2)

안녕하세요. 저희 가운사랑어린이집에서는 사랑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랑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갖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들이 권리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양육자 또는 교사에게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함께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6월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안내하며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6월 첫째주 – 무지개 데이 (Rainbow Day)

분홍색은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색깔, 파랑색은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색깔 등 색깔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색깔에 대해 특정대상이 정해지는 선입견이 아닌 성별과 상관없이 다양한 색깔을 좋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인식뿐만 아닌 아이들에게도 특정색깔은 모두가 좋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알려주고 싶은 의미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색깔에 맞는 옷이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고 등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6월 1주 '무지개 데이'	3일(월)	'빨강' Day – 빨간색 옷을 입고 등원해 주세요.
	4일(화)	'노랑' Day – 노란색 옷을 입고 등원해 주세요.
	5일(수)	'초록' Day – 초록색 옷을 입고 등원해 주세요.
	7일(금)	'파랑' Day – 파란색 옷을 입고 등원해 주세요.

2. 6월 둘째주 – 내가 만드는 신발장

어린이집 신발장에는 교사가 정해 놓은 위치에 사랑이들의 이름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사랑이들의 권리존중을 위하여 사랑이들이 자유롭게 만든 이름표와 사랑이들이 직접 선택한 위치에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6월 2주 '내가 만드는 신발장'	10일(월) ~14일(금)	사랑이가 직접 만든 이름표를 신발장에 자유롭게 부착하여 신발장을 만들어 봅니다.

3. 6월 매주 금요일 – 내가 만드는 자유놀이 시간

교실에서 제공되는 놀잇감, 교구가 아닌 사랑이들이 직접 만드는 자유놀이 시간을 계획해 보고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가정에서 사랑이들이 직접 놀잇감을 가져오며 교실에 비치하여 놀이하는 경험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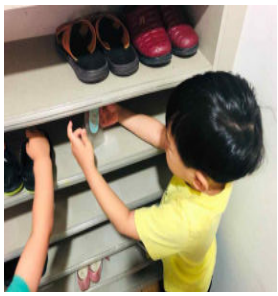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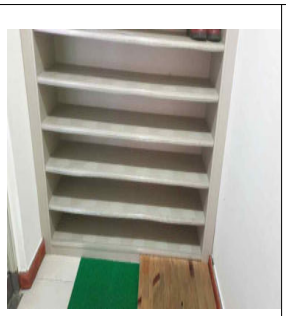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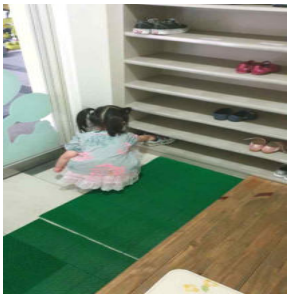
*금요일에 가정에서 가져온 놀잇감은 자유놀이 시간 후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6월 매주 금요일 ‘내가 만드는 자유놀이 시간‘	7일(금)	가정에서 가져온 장난감 및 교구를 이용하여 원에서 자유롭게 놀이하는 경험을 합니다.
	14일(금)	
	21일(금)	
	28일(금)	

2019년 6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1

활 동 명	내 권리는 소중해요 - 무지개 데이 (Rainbow Day)		
활동목표	■ 색깔 옷을 입어보고, 색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다 예술경험영역>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요소 탐색하기> 주변환경에서 색, 모양을 탐색한다.>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등에 관심을 갖는다. ■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색깔을 좋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기 간	2019년 6월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		
활동자료	다양한 색깔옷, 신발, 머리띠 등		
활동 방법	■ 도 입	1.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색깔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다. -오늘은 무슨 색깔의 날일까요? -친구하고 같은 색의 옷, 신발, 머리핀등을 찾아볼까요?	
	■ 전 개	1. 빨강, 노랑, 초록, 파랑색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6월3일(월)-빨강데이 /6월4일(화)-노랑데이 /6월5일(수)-초록데이 /6월7일(금)-파랑데이 2. 성별에 관계없이 레인보우 데이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오늘은 빨강(파랑, 초록, 파랑) 데이인데, 우리 주위에 같은 색깔을 찾아볼까요? 3. 색깔판을 눈에 대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본다. -색깔판을 찾아서 보니깐 000이가 어떤색으로 보이나요? 4. 색깔판을 눈에 대고 여러 사물이나 친구를 살펴본다 - 색깔판을 눈에 대고 어디를 볼까? - 우리교실 문도 보고, 장난감도 보고, 기저귀도 볼까요? 또 뭘 볼까요? - 다른 친구들도 같이 살펴볼까요? 5.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친구들 찾아본다 - 같은 색깔의 친구를 찾아 볼까요? - 오늘은 빨강(파랑, 노랑, 초록) 데이라서 빨강(파랑, 노랑, 초록)을 입은 친구들이 있는데 누구 누구가 빨강(파랑, 노랑, 초록) 옷을 입었을까요?	
	■ 마무리	1.성별과 관계없이 다양한 색깔의 옷과, 신발등을 입을 수 있다.	
활동 평가	분홍색은 여자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 파랑색은 남자 친구가 좋아하는 색깔 등 색깔에 대한 선입견을 갖기도 한다. 색깔에 대해 특정대상이 정해지는 선입견이 아닌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색깔을 좋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며, 다양한 색깔을 접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활동 사진	빨강데이(day) 	노랑데이(day) 	초록데이(day)

2019년 6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2

활 동 명	내 권리는 소중해요-내 마음대로 신발장에 신발을 놓고 싶어요		
활동목표	■ 내 마음대로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 할 수 있어요 기본생활영역·신체운동영역>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소근육 조절하기> 눈과 손의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본다 ■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신발을 놓을 권리가 있어요		
기 간	2019년 6월 2주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		
활동자료	신발장, 신발		
활동 방법	■ 도 입	1. 등·하원 하면서 신발장에 신발을 놓고 싶은 자리를 탐색해요 - 스스로 신발을 벗어 볼까요? - 신발장에 여러 칸이 있네요?	
	■ 전 개	1. 신발을 신발장에 놓고 싶은 곳에 정리한다. - 신발장에 다섯 칸이 있네요? - 아래 위 여러개 있는데 어디에다 신발을 놓아볼까요? - 내가 놓은 자리를 알 수 있나요? - 아래에서부터 몇째 줄에 놓았을까요? - 맨 위에 놓고 싶구나~ 도와줄까요?	
	■ 마무리	1. 신발장에서 신발을 놓은 자리를 다시 확인한다. - 집에 갈 때 신발을 찾아서 갈수 있을까요? - 다시 한번 신발이 어디있는지 볼까요?	
활동 평가	이름표가 있던 신발장에 이름표없이 자유롭게 정리해 봄으로써 영·유아가 스스로 신발을 넣고 싶은 곳에 넣을 수 있도록 했더니 아래 칸에 있던 만1세반 영아들이 까치 발을 해서라도 높은 곳에 놓으려고 했고, 등원도 빨라지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스스로 신발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고, 더 애착을 가지고 신발장에 관심을 가져주었다.		
활동 사진	 신발장에 이름표 떼어내기	 이름표를 떼어낸 신발장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신발을 정리해요

2019년 6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3

활 동 명	내 권리는 소중해요- 자유선택을 내가 만들어요		
활동목표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자유놀이를 주도적으로 한다. 사회관계영역> 또래와 관계하기> 또래가 있는 곳에서 놀이를 한다>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친구와 함께 놀이한다. ■내가 가져온 장난감으로 자유놀이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		
기 간	2019년 6월 매주 금요일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		
활동자료	가정에서 보낸 자유선택영역에 놓을 장난감 각 1점, 장난감 담을 바구니		
활동 방법	■ 도 입	1. 내가 자유 놀이 활동에서 하고 싶은 장난감을 가져 온다 -000는 자유놀이를 하려고 장난감을 가져왔구나 - 000, 000도 000가 가져온거예요? -이름 스티커를 붙여서 바뀌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요.	
	■ 전 개	1.내가 자유놀이 활동 영역을 선택한다. 2.놀이하고 싶은 영역에서 장난감 놀이를 한다. 3.자유선택시간에 영유아가 자유롭게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4.놀이가 활동을 중단하기 전에 예고시간을 여러 번 꼭 알려준다. 5.놀이상대로 참여하고, 놀이를 활성화 요구와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 마무리	1.장난감 놀이를 한 후에는 내 이름이 붙은 바구니에 정리해 둔다.	
활동 평가	자유선택활동시간은 영·유아의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육교사는 진정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의 놀이가 더 풍부해지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놀잇감, 공간, 구성, 면적등의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적절한 상호작용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가져오는 장난감으로 원하는 영역을 구성하고, 그 영역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지속적이고 흥미로운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활동 사진			

2019년 7월 사랑 권리존중 프로그램
'권리야~ 사랑이들을 부탁해' 가정통신문(3)

안녕하세요. 저희 가운사랑어린이집에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사랑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같은 색깔 옷을 입고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생활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교사가 정하는 놀잇감, 내자리가 아닌 사랑이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사랑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갖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7월에는 어린이집 일과 중 사랑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안내하며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7월 첫째주 – '나만의 인사법'으로 인사해요

우리나라의 인사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손을 모은 공수자세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는 방법도 우리의 예절문화에 있어 중요하지만 한 주 동안은 사랑이들이 자신만의 인사법으로 인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7월 1주 '나만의 인사법' 으로 인사해요	1일(월)~5일(금)	현관앞에 제시된 다양한 인사법 안내판을 참고하여 사랑이들 스스로 선택하여 인사해 봅니다.

2. 7월 둘째주 – 내 감정은 소중해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이의 오늘 하루 기분이 어떤지 스스로 인지하고 선생님 또한 인지하여 사랑이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7월 2주 '내 감정은 소중해요'	8일(월)~12일(금)	☺ 기뻐요	☹ 화나요	☹ 속상해요
		오늘 사랑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 등원 시 감정에 따른 표정을 선택하여 교실로 이동합니다.		

3. 7월 셋째주 – 물장난 하는 거 아닌데요

사랑이들의 보육 일과 중에 손씻는 일상생활 속에서 양육자 혹 교사의 허락 없이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한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7월 3주 ‘물장난 하는 거 아닌데요’	15일(월)~19일(금)	- 양육자나 교사의 허락 없이 손씻고 싶을 때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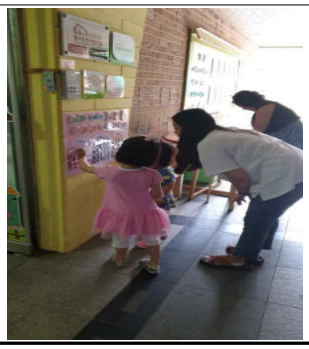
4.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내가 만드는 자유놀이 시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가정에서 사랑이들이 직접 놀잇감을 가져오며 교실에 비치하여 놀이하는 경험을 합니다.

2019년 7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1

활 동 명	내 권리는 소중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인사는 소중해요		
활동목표	■ 등·하원 시간에 내가 선택한 인사방법으로 인사 할 수 있어요. 사회관계영역>사회적가치를 알기> 만나고 헤어지는 인사를 해본다>바른태도로 인사한다. ■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 할 수 있어요.		
기 간	2019년 7월 1주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		
활동자료	다양한 인사방법이 있는 게시판		
활동 방법	■ 도 입	1. 등·하원 하면서 다양한 인사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어떤 인사방법으로 인사할까요? 	
	■ 전 개	1.등·하원 하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인사방법으로 인사한다. - 공수 - 안아주세요 - 나만의 인사 (뽀뽀를 해요, 인사를 안하고 싶어요, 윙크해요, 손하트해요 등) - 주먹인사 - 악수 - 하이파이브 2.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인사방법으로 선생님과 인사한다. 3.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인사방법으로 부모님과 인사한 후 헤어진다.	
	■ 마무리	오후 하원하면서 다시 내가 선택한 인사방법으로 인사한 후 헤어진다.	
활동 평가	영·유아의 세세한 감정을 살피고 즐겁게 대화하며 스스로 선택한 방법으로 인사하는 환경은 영·유아들에게 자신감있게, 씩씩하게 인사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다. 개별 영·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선택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는 환경속에서 자발적인 인사를 하기 때문에 즐거운 표정으로 등·하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등·하원을 할 수 있었다.		
활동 사진			

2019년 7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2

활 동 명	내 권리는 소중해요-오늘 내 감정을 인정 받고 싶어요		
활동목표	■등·하원하면서 내 감정을 알고, 감정 모양을 선택하여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사회관계영역>나와 다른사람의 감정알기>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 여러 가지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다. ■ 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기 간	2019년 7월 2주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		
활동자료	내 감정판, 내 감정 붙일 내사진 판		
활동 방법	■ 도 입	1.등·하원하면서 내 감정이 어떤지 생각해 보며, 내 감정에 관심을 갖는다. - 내 감정은 어떤가요? - 왜 기쁜가요? 왜 화나요? 왜 속상한가요? ☺ 기뻐요 / ☹ 화나요 / ☹ 속상해요	
	■ 전 개	1.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한 스티커를 현관입구에서 찾아 떼어서 들어온다 - 왜 기쁜가요? - 왜 화났나요? - 왜 속상한가요? 2. 부모님과 선생님과 이야기하며 등하원시의 기분을 한번 더 읽어준다 - 그랬구나~ 많이 기쁘구나(화났구나, 속상하구나) 3. 내 감정의 스티커를 교실입구에 있는 내 사진옆에 붙여 놓는다 4. 친구들이 스티커를 보면서 친구의 감정을 다시 읽어주며 이야기 한다 - 000야 너는 왜 기뻐?(왜 화났어?, 왜 속상해?) 5. 하루 종일 내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말하면, 친구들과 교사는 그 감정을 읽어주며 존중해준다. - 그래 기쁘구나(슬프구나, 화났구나, 속상하구나)	
	■ 마무리	1. 내가 선택하여 이름표 옆에 붙였던 나의 감정 모양 스티커를 떼어 내서 다시 현관문에 붙여 놓고 하원한다. - 잘있어 나의 기쁨아~ 내일 또 만나자 - 안녕 나의 슬픔아~	
활동 평가	영유아의 등하원시의 개인의 상황과 감정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 속에서 영·유아 감정을 읽어주며, 지금의 감정을 존중 받는 환경을 통해서 즐거운 보육과정을 더 만들 수 있었다. 부모님께서 등하원시 감정판에 대해 기쁨의 스티커를 떼어 등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며 관심 가져 주셨다.		
활동 사진			

2019년 7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3

활 동 명	내 권리는 소중해요- 물장난 치는 거 아닌데요		
활동목표	■내가 마음대로 손씻고 싶을 때 손을 씻을 수 있다. 기본생활영역·신체운동영역> 몸을 깨끗이 하기> 스스로 손과 몸을 씻기를 시도한다.>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손 씻고 싶은 권리를 존중 할 수 있다.		
기 간	2019년 7월 3주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		
활동자료	세면대		
활동 방법	■ 도 입	1. 손씻고 싶을 때 스스로 손을 씻으러 자유롭게 다녀온다. - 손을 씻으러 가고 싶은 친구들은 다녀오세요? - 허락없이 다녀와도 되지만 손 씻으면 교실로 들어오세요	
	■ 전 개	2. 활동 후나, 손을 씻고 싶을 때 스스로 화장실에 손씻으러 간다. 3. 비누로 손 씻는 순서대로 손을 씻는다. 4. 물을 틀어 손을 헹군다. 5. 물을 잠근다. 6. 내 수건을 찾아서 손을 닦는다.	
	■ 마무리	1. 내가 스스로 손씻은 후에 교실로 들어온다.	
활동 평가	교사에게 영·ㄱ유아 권리교육 하기 전에는 “화장실에서 뭐하니?” “또 물장난 치는구나”라고 기다려주기 보다는 먼저 행동을 제한하려고 했었는데, 영·유아들이 단순히 물장난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며 손을 다 씻을 때 까지 기다려주는 연습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게 되었다.		
활동 사진			

2019년 8월 사랑 권리존중 프로그램
'권리야~ 사랑이들을 부탁해' 가정통신문(4)

안녕하세요. 저희 가운사랑어린이집에서는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랑이들이 소중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8월에는 교실 안에서, 교실 밖에서 사랑이 스스로 행동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8월 첫째주 – 양치시간 내가 선택하는 '치약'

양치시간 다양한 종류의 치약을 제공하여 사랑이가 하고 싶은 치약을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양치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8월 1주 양치시간 내가 선택하는'치약'	5일(월)~ 9일(금)	 점심 식사 후 양치시간 사랑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치약을 제공하며 하고 싶은 치약을 스스로 선택하여 양치합니다.

2. 8월 둘째주 – 교실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하루 일과 중 교실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장 많지만 때로는 교실 문 밖에 복도나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사랑이 스스로 선택해 보고자 합니다.

*** 사랑이 스스로 선택하여 교실 밖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며 교사의 관찰로 안전하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8월 2주 교실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12일(월)~ 16일(금)	 화장실 다녀오기, 책 읽고 오기, 다른 반 둘러보기 등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실행합니다.

3. 8월 셋째주 – 오늘은 내가 '꼬마 선생님'

'꼬마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교실에서의 선생님 역할이 되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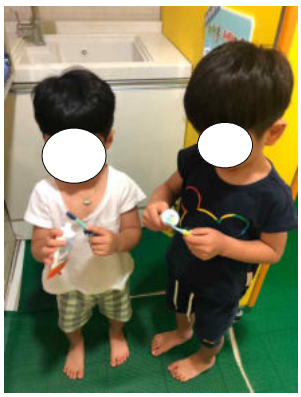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8월 3주 오늘은 내가 '꼬마 선생님'	19일(월)~ 23일(금)	 '꼬마 선생님'이 되어 점심식사 전 책상 닦기, 물 먹기 전 컵 꺼내주기, 식사 시간 배식 도와주기, 세수 후 로션 나누어주기 등 역할을 합니다.

4.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내가 만드는 자유놀이 시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가정에서 사랑이들이 직접 놀잇감을 가져오며 교실에 비치하여 놀이하는 경험을 합니다.

***금요일에 가정에서 가져온 놀잇감은 자유놀이 시간 놀이 후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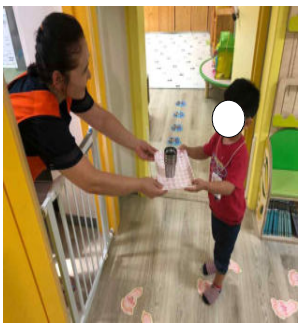
2019년 8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1

활 동 명	내 권리는 소중해요- 스스로 치약을 짜고 싶어요		
활동목표	■ 내가 선택한 치약으로 양치질을 할 수 있어요 기본생활영역·신체운동영역>건강하게 생활하기>몸을 깨끗이 하기> 스스로 이 닦기를 시도한다. ■ 내가 스스로 치약을 짤 수 있어요		
기 간	2019년 8월 1주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		
활동자료	-		
활동방법	■ 도 입	1. 내가 양치질하고 싶은 치약을 선택한다. -어떤 치약으로 양치질을 할까요? - 사과맛, 포도맛으로 할까요?	
	■ 전 개	1. 스스로 선택한 치약을 준비한다. 2. 칫솔 소독기에서 내 칫솔을 찾는다. 3. 내 칫솔에 스스로 선택한 치약을 내가 쓰고 싶은 만큼만 짠다. 4. 치약을 제자리에 정리한 후 양치질을 한다. 5. 양치질을 한 후에 컵을 꺼내서 헹구어낸다	
	■ 마무리	1. 내가 선택한 치약을 정리한다.	
활동 평가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의 실천으로 모든 활동의 시간과 방법이 교사 편의 위주로 교사가 정하여 영·유아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무시해버린 것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고, 영·유아의 의사를 반영하여 치약을 영·유아의 키 높이에 두고, 치약을 스스로 양을 조절하여 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들의 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최선의 이익”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더니 의외로 영·유아들이 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즐겁게 양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활동 사진			

2019년 8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2

<table>
<tr><td>활 동 명</td><td colspan="3">내 권리는 소중해요- 교실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td></tr>
<tr><td>활동목표</td><td colspan="3">■ 교실 밖에 나가고 싶은 권리를 존중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영역> 말하기>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자신이 원하는 것을 낱말이나 짧은 문장으로 말해본다</td></tr>
<tr><td>기 간</td><td>2019년 8월 2주</td><td>참여인원</td><td>30명</td></tr>
<tr><td>장 소</td><td colspan="3">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td></tr>
<tr><td>활동자료</td><td colspan="3">장난감</td></tr>
<tr><td rowspan="3">활동
방법</td><td>■ 도 입</td><td colspan="2">1.교실 밖으로 나가야 하는 때를 안다
- 화장실을 가거나
- 손을 씻거나
- 다른 교실을 갔다와야 하거나</td></tr>
<tr><td>■ 전 개</td><td colspan="2">1. 교실 밖으로 나가야 하는 때를 알고 목걸이를 목에 건다
2.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화장실이나, 손을 씻는 등 볼일을 본다
3. 볼일 후 다시 목걸이가 있었던 곳에 제자리에 정리한다.</td></tr>
<tr><td>■ 마무리</td><td colspan="2">1. 다음에 목걸이를 사용할 친구들을 위해 제자리에 정리한다.</td></tr>
<tr><td>활동
평가</td><td colspan="3">교실 밖으로 나가면 마치 잘못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로 교사가 꼭 같이 가려고 했었던 보육과정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목걸이를 하고 영유아가 혼자 볼일을 보고 오는 생활 속에서 영유아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탈 행동 없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 시간에 교실에서 다른 영유아를 돌볼 수 있고, 볼일 보고 들어온 영·유아에겐 혼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속을 더 잘 지키고 있었다. 영유아가 자신의 의사나 감정이 반영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잘 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았다.</td></tr>
<tr><td>활동
사진</td><td>
</td><td> </td><td>
</td></tr>
</table>

2019년 8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3

활 동 명	내 권리는 소중해요- 나도 선생님을 하고 싶어요		
활동목표	■나도 선생님처럼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사회관계영역> 더불어생활하기> 자신이 속한 집단알기> 자신이 속한 반의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친구나 선생님을 돕고 싶은 권리를 존중 할 수 있어요		
기 간	2019년 8월 3주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		
활동자료	선생님 목걸이		
활동 방법	■ 도 입	1. 내가 선생님을 하고 싶은 날 선택한다. - 나도 선생님을 하고 싶어요	
	■ 전 개	1. 내가 “꼬마 선생님”을 하고 싶은 날입니다. - 오늘은 내가 꼬마 선생님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2. 꼬마 선생님이 되어 할 일입니다. - 점심식사 하기 전 책상닦기 - 물 먹기전 컵 꺼내주기 - 식사 시간 배식 도와주기 - 세수나 손닦은 후 로션 나눠주기 3. 내가 스스로 “꼬마선생님”이 되어 하고 싶은 권리가 있어요 - 내가 꼬마선생님이 되어 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 내가 다 먹은 물컵 조리사 선생님께 갖다 드려요 - 코가 나온 친구 코를 닦아줘요 - 신발 혼자 못신는 친구들 신발 신는 것 도와줘요	
	■ 마무리	1. “꼬마 선생님” 활동을 한 후에는 이름표를 제자리에 걸어둔다.	
활동 평가	꼬마선생님이 되어 점심 식사하기 전 책상 닦기, 물 먹기 전 컵 꺼내주기, 식사 시간 배식 도와주기, 세수 후 로션 나누어지기 등의 역할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무엇인가 책임감 있게 도와주고 싶은 권리를 존중 하였더니 장난이 심하던 영·유아가 좀 더 의젓해지고, 선생님에게 늘 도움을 주려고 관심 갖고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 사진			

2019년 9월 권리존중 프로그램
'권리야~ 사랑이들을 부탁해' 가정통신문(5)

안녕하세요. 저희 가운사랑어린이집에서는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랑이들이 소중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9월에는 놀이영역에서 사랑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9월 첫째주 – 낮은 게시판에 내가 붙이고 싶어요
사랑이들의 눈높이에 작품 게시판 공간을 마련해 주며 사랑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게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9월 1주 낮은 게시판에 내가 붙이고 싶어요	2일(월)~6일(금)	사랑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게시할 수 있도록 사랑이들의 눈높이에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2. 9월 둘째주 – 자유롭게 스스로 정리하고 싶어요
어린이집 일과 중에는 전이활동을 위한 '정리시간'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특성상 놀이를 연속적으로 하고 싶은 특성을 고려하여 일과 중 사랑이들이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9월 2주 자유롭게 스스로 정리하고 싶어요	9일(월)~11일(수)	놀잇감 정리시간 사랑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9월 셋째주 – '내 권리는 소중해요' 캠페인
'내 권리는 소중해요' 피켓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주변을 산책하며 캠페인 활동을 경험합니다.

주 제	날 짜	활동 내용
9월 3주 '내 권리는 소중해요' 캠페인	16일(월)~20일(금)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내 권리는 소중해요' 피켓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4.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내가 만드는 자유놀이 시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가정에서 사랑이들이 직접 놀잇감을 가져오며 교실에 비치하여 놀이하는 경험을 합니다.
***금요일에 가정에서 가져온 놀잇감은 자유놀이 시간 놀이 후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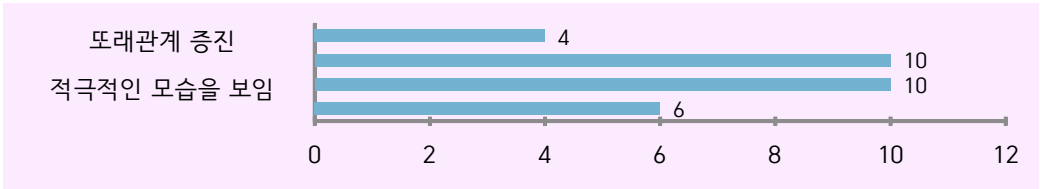
2019년 9월 [행복한 권리야~ 만나서 반갑다] 프로그램 1

활 동 명	내 권리는 소중해요- 낮은 게시판에 내가 스스로 붙이고 싶어요		
활동목표	■ 내가 만든 작품을 낮은 게시판에 스스로 붙일 수 있어요. 예술경험영역>예술감상하기>아름다움 즐기기> 자신과 또래가 표현한 노래, 춤, 미술품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 ■ 스스로 만든 작품을 자발적으로 붙이고 싶은 곳에 붙일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		
기 간	2019년 9월 1주	참여인원	30명
장 소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각반교실		
활동자료	게시판, 자료		
활동 방법	■ 도 입	1. 자유놀이 활동이나 보육과정 속에서 내가 만든 작품을 붙일 곳을 안다. - 다 만든 것은 어디에다 붙일까요?	
	■ 전 개	1. 자유놀이 영역이나. 보육과정에서 만들기등을 한다. 2. 그림을 끼적이거나, 만든 것을 “내 솜씨 어때요” 판의 위치를 확인한다. 3. 키높이에 있는 “내 솜씨 어때요” 게시판에 내가 스스로 붙인다. 4. 내가 만든 작품을 수시로 붙인다.	
	■ 마무리	1. 내가 만든 작품을 게시판에 여러 개 붙여 볼 수 있다.	
활동 평가	모든 교실환경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교사가 준비하고 마무리시간도 정해주어야 하는 교실의 환경을 교사보다는 영·유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림을 끼적이거나, 만든 것을 키 높이에 붙일 수 있게 하였더니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수준별 학습을 교사는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준이 높은 영·유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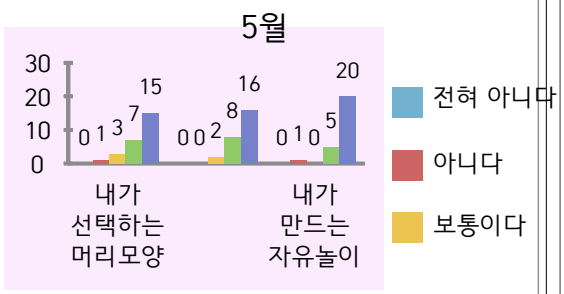
Ⅲ. 프로그램 평가 및 적용

1. 가정으로 배부한 학부모 평가(설문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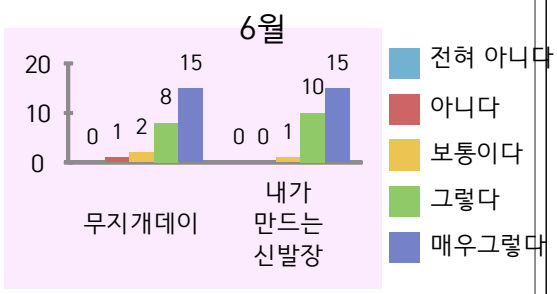
2018년 학부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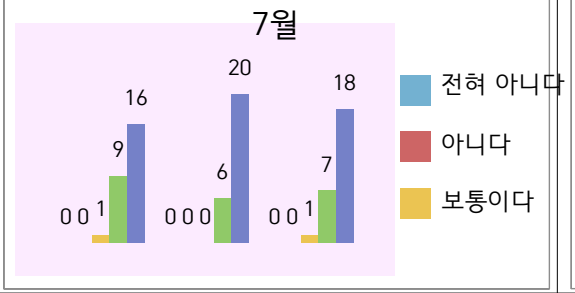
2019년 학부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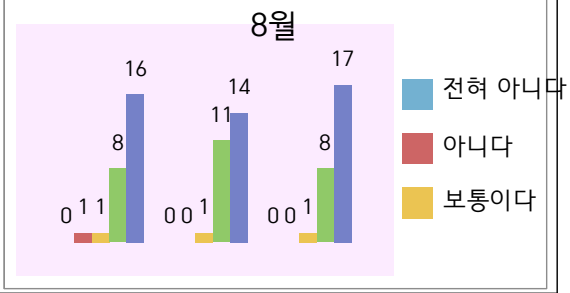
가정에서도 머리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되었고, 내 장난감으로 자유놀이 하는 주간은 놀이계획을 전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등원하여 적극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다.
(해님반 000 어머님)



빨강색은 남자 아이라 안 입으려고 했는데, 친구들 모두 빨강색을 입고 오는 날이라며 빨강 티셔츠를 입고 당당하게 등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발장 맨 아래 놓았는데, 형님처럼 까치발로 높은 곳에 놓으면서 함박웃음으로 등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별님반 000 어머님)



나만의 인사법으로 어린이집 현관에서 한참 동안 결정을 못해서 인사가 늦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내판에 있는 인사 외에도 생각해내서 인사하는 모습이 대견했고, 등원하면서 감정 스티커를 선택하는 주는 기쁨의 스티커를 뗄 수 있도록 최대한 기분 좋은 등원 할 수 있도록 해야해서 힘들었지만 기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새로웠다.(달님반 000 어머님)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치약을 짜는 활동 후에 가정에서도 치약을 스스로 짜서 양치질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닦는 시간을 기다렸고, 전보다 더 즐겁게 양치질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그리고 꼬마 선생님을 하는 주간에는 등원하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해님반 000 어머님)

Ⅳ. 프로그램의 장. 단점 등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타 기관 적용 시 유의점 등

프로그램의 장점 프로그램의 단점	■장점: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모참여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고, 활동에 부분적이지만 부모님께서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집을 더 신뢰하고 믿어주셨다. ■단점: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가정에서도 실천하는데 부담스럽게 느끼셨다. 다양한 실례를 중심으로 충분한 부모교육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전반적인 평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보육교직원 모두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중요하며, 영·유아의 권리에 더욱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여 영·유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통하여 부모님은 영·유아의 권리를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영·유아는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표현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적극적으로 권리존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향후 발전방향	■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기에 결정적인 시기에 존중의 경험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힘을 기르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영·유아의 권리가 더 많이 존중될 수 있다. ■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은 부모님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집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가정에서도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영·유아의 권리가 무엇인지,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생각하는 기회를 통해 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타 기관적용시 유의점	■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프로그램의 전개가 아닌, 등원부터 하원까지 영·유아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실천 활동으로 생존권과 보호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서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보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보육철학이 영·유아의 권리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함은 물론, 영·유아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려면 교사와 학부모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결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부모교육 및 보육교직원의 권리 인식 교육 뿐만아니라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사전인식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가정, 사회, 어린이집이 영·유아 권리존중을 하기위해 유기적인 협력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2020년 영·유아 권리존중 프로그램 연간교육계획안

월	주제		가정연계활동
3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교육 ■영유아 권리존중 학부모 사전인식조사	보호권	봄꽃 구경하기
4	■영·유아 권리존중 학부모 교육 (반별 학부모 모임) ■감정표현놀이(내 감정은 소중해요)	발달권	
5	■감정표현놀이(그림책으로 말해요)	발달권	가족 건강 달리기
6	■나도 이름이 있어요(자석으로 이름 만들기)	보호권 발달권	건강 집밥 차리기
7	■감정표현놀이(요리활동으로 표현해요)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8	■감정표현놀이(창의 퍼포먼스 활동으로 표현해요)	발달권 참여권	요리활동 하기
9	■감정표현놀이(고마운 분께 그림 편지 쓰기)	참여권	
10	■감정표현놀이 (언어로 감정표현하기-기뻐요, 슬퍼요등)	발달권 참여권	가족 건강 운동회 참여하기
11	■감정표현놀이 (맛을 보고 감정표현 해보기)	참여권	탈 만들기
12	■감정표현놀이 (다양한 스킨십으로 감정 표현하기- 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등)	발달권 참여권	행복 쿠폰 만들기

※2019년 연간교육계획안에서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육과정 내에서 "감정표현놀이"를 보완하여 실천하면 영·유아의 권리가 자연스럽게 존중될 것으로 보인다.

V참고문헌:

김은옥(2018).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아동권리인식이 아동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논문
김은화(2013). 보육교사의 영아권리존중에 대한 실행수준.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김진숙(2009).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류수정(2012).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실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미(2016). 보육교사의 인권의식 및 민감성이 영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논문
백우정 (1994). 아동권리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이진화(2014). 보육교사의 교육신념과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논문
윤혜자(2010).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논문
홍효의(2017).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수준, 교사 민감성 및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숙인외(2017) 아동의 놀 권리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9).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2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선생님-아이-엄마아빠 함께 배워요1권,2권 디자인나무
윤정주그림(2011). 나도 권리가 있어! 인권교육센터 '들'지음

Ⅵ. 참여 후기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교사 후기 1

처음 권리존중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아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다. 어린이집의 교실 안과 밖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고민한 결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갖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교사에게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즐겁게 놀이 할 권리,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 안전하게 보호 받을 권리 등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았다. 권리존중에 대한 활동을 실천하며 교사에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상호작용에서 “안돼. 위험해!”, “지금은 할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표현할 때 긍정적으로 수용해주고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상호작용의 연습을 시작으로 권리존중 활동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더니 일과 중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점심시간 자신이 먹고 싶은 반찬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 밥 먹는 시간 먹기 싫은 반찬을 억지로 먹기 위해 인상을 찌푸리기보다 먹고 싶은 음식을 양만큼 먹는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되었고 낮잠 후 머리를 묶는 여자아이들인 경우 다양한 머리스타일의 보기 판을 제공해주자 아이가 묶고 싶은 머리모양을 선택하는 즐거운 과정이 되었다. 또한 교사가 준비한 놀잇감이 아닌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져온 장난감으로 자유 놀이 시간을 계획하자 그날을 기다리며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등원하는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함을 볼 수 있었다. 아침 등원시간 자신의 기분에 맞는 감정 스티커를 선택하여 그날의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며 아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무지개 데이를 계획하여 같은 날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등원하며 ‘우리는 모두 같은 친구’라는 인식과 ‘여자는 분홍’, ‘남자는 파랑’과 같은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경험이 될 수 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권리존중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니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표출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권리존중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행복을 찾기 위한 권리라고 생각하니 어려운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교사의 역할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작은 것부터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교사 후기 2

바깥 놀이 하며 아이들과 산책하는 길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교사가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는 길 오늘 활동을 위해서 해야 하는 바깥 놀이 주제에 맞는 활동을 찾다 보니 아이들에게 나뭇잎은 초록색, 나무는 갈색, 하늘은 파란색을 수시로 이야기하게 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았다. 영·유아의 권리존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생활 하면서 지켜지지 못했다.

이 번 프로그램을 교사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며 나의 교사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일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권리는 무엇인가?” 의문점만 가득하였고, “정말 실천하는 권리존중이 안전하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았다. 그동안 생각으로만 하는 권리 존중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과 실천 할 수 있는 권리존중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교사들 모두가 함께 매주 권리존중을 위하여 고민하고 함께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리며 이끌어 나가며 권리존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동안 내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교실이 권리존중을 함께하며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들이 표현하는 자유로운 권리를 통해서 교사가 정해주었던 신발을 놓는 자리가 아닌 아이들의 원하는 자리, 양치할 때 치약을 선택하는 방법, 아이가 원하는 인사 방법, 머리를 묶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머리 모양 등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자 더욱 더 많은 방법과 프로그램들을 생각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처음 교사의 계획 속에서 움직였던 아이들이 점차 자신이 원하는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였고, 친구가 하므로 따라 하는 아이가 아닌 내가 원하는 놀이를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다. 아이들이 파란 하늘, 초록색의 나뭇잎이 아닌 주황색으로 보였던 하늘과 노란색, 분홍색의 나뭇잎을 알게 되며 더욱더 많은 표현들이 나올 수 있었다.

이 번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영·유아의 권리존중이 글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이들과 실천하면서 진정한 권리존중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권리존중 막막하기만 한 권리존중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렵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존중은 더욱 무궁무진하고 많다고 생각한다. 이 번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맞는 눈높이를 가지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시립가온사랑어린이집 부모 후기 1

권리존중이라는 어려움의 시작을 색깔로 풀어 주셔서 처음에 접근방법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 아이라 남자 색깔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옷을 살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무지개데이라는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색의 구분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다 같이 함께라는 군중심리 때문인지 “친구들도 빨간색 입었어, 나도 입을래”라고 말하며 다양한 색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빨강데이에는 빨강색 옷을 또는 소품을 활용하고 노랑데이에는 노랑을 초록에는 초록을 파랑에는 파랑을 입고 걸치니 처음에는 입기 싫었다가도 친구들과 함께 똑같은 색을 입어서 인지 하원 할 때 친한 친구 이름을 말하며 같이 입었다고 즐겁게 이야기 해주며 여자친구, 남자친구 구별없이 입었다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는지 좋았다고 이야기 하는 모습에서 권리 존중을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적용 하였다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고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었던 권리존중활동으로 가장 좋아했던 건 장난감 가져가기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챙겨가더니 이제 슬슬 장난감 가져가는 날 아니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내가 만드는 자유놀이 시간이라고 하여 장난감을 가져가는 프로그램은 신선하고 영·유아의 눈높이를 맞춰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애착이불, 애착 인형 등 애착 용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 장난감을 어린이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아이를 설레게 함은 분명하고 어린이집과 집 사이의 연결 고리인 듯 행복해 하였습니다. 6월이면 적응이 된 듯 하지만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이에게는 안정감이 그리고 부모에게는 아침에 일찍 헤어지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은 완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선생님들의 생각이 아니라 아이에게 물어보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느껴졌고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것들을 접목시켜 주고, 아이들과의 소통으로 이뤄낸 것들이라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더욱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권리를 찾는 동시에 자존감도 많이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거나 의사표현이 정확해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립가운사랑어린이집 부모 후기 2

어느날 와서는 “나 꼬마 선생님이라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도와줬어” 라고 말하는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 스스로 친구를 돕고 선생님들 돕는 다는 것에 대한 것이 자존감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도와 줬니?” 라고 물어 보자 “힘든 친구를 도와주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 힘든 친구를 도왔냐고 다시 묻자 친구가 장난감을 너무 많이 꺼내서 정리하기를 어려워하여 정리를 도와줬다고 말하였습니다. 친구를 도와주는 마음도 생기고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도와줬다고 이야기 하면서 화장실에 핸드타월이 떨어져 있는데 주워서 휴지통에 넣어 줬다고 이야기 하는 모습에서 반짝이는 눈빛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치를 싫어하는 아이가 양치를 하자고 이야기 할 때 의아해 하였는데 권리 존중 프로그램인 치약 선택하기를 해보고 다양한 치약을 사용해 봄으로써 양치 시간이 싫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사과 맛 치약을 사용하였는데 어린이집에서 딸기, 포도, 투명한 치약, 하얀색 치약 등 을 사용해 보며 이를 닦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 무료함을 느낄 수 있는데 “교실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라는 권리 존중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내 아이의 답답함을 해소 시켜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화장실만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외출이 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는 것을 엄마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안내문을 받고 나서 아이와 이야기 해 보니 복도에 나가 책을 한번 보는 것, 그리고 형님 반, 동생 반에 한번 다녀오는 것이 아이의 기분에 해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소 아이가 혼자 분리 되는 것에 대해 교사가 따라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런 좋은 아이입장에서의 활동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아침 아이와 인사를 나누며 일터로 향하지만 마음은 늘 미안함 투성이고 아이의 기분을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은 소중해요 라는 활동을 통해 매일 아침 아이의 기분을 체크 할 수 있었고 좋은 날, 나쁜 날은 선생님들께서 수첩에 이유를 적어 주셔서 하루의 위로와 위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기분뿐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들도 아이들의 위해 신경써주고 연구 개발 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들의 권리 뿐 아니라 싫어했던 기본 생활 습관 중 하나인 양치하기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모든 일과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뜻대로 이루어지면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어리다고 무시하기보다는 존중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가평군

맹호어린이집

Ⅰ.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권리를 갖는다. 사전적 의미의 권리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며 성인은 물론 아동도 동등하게 가지는 것이다. 아동은 성장하는 동안 유아기에 이루어야하는 발달과업과 특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 아동에게는 존중받는 경험과 권리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노력과 인식의 변화, 그리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교직원 및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모든 활동은 아동권리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밑바탕이 되어 실천되고 있음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둘째, 아동권리는 아동의 노력과 실천이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로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노력과 인식의 변화를 기르게 하는데 있다. 셋째, 아동스스로가 아동권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데 있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이론적배경)

아동권리는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법적 효력이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협약은 1924년 9월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1991년 12월 20일 협약당사국이 되었다.

어린이집은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실천 현장으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맹호어린이집에서는 2019년 '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기위해 어린이집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모든 활동에 아동권리존중을 밑바탕으로, 부모와 함께 아동과 함께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하고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셨으며, 내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특별한 활동과 행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기간: 2019년 3월~2020년 2월

2) 활동대상: 맹호어린이집 유아, 학부모 및 교사

3) 프로그램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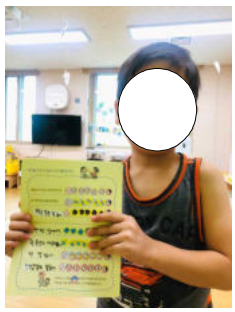
	프로그램	활동 및 활동자료
3월	1. 아동권리존중 교육(보호권)	아동,부모,교사에 대한 인식도 조사
	2. 입학식(참여권)	입학식
	3.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
	4.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참여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5.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참여권)	뮤지컬 관람
4월	1.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
	2. 학부모 개별상담(참여권)	학부모 개별상담
	3.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발달권,참여권)	숲 체험,인형극관람,텃밭체험
	4. 부모참여수업-가족명랑운동회(참여권)	가족명랑운동회
	5. 어린이영양&위생방문교육(생존권)	가평군급식관리지원센터
	6. 부모급식 모니터링(생존권)	식재료 검역 및 위생관리, 배식지도
	7. 가정연계 공감놀이	나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5월	1.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어린이날 행사
	2.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발달권,참여권)	평강랜드 봄소풍,숲 체험
	3. 부모교육(참여권)	첫걸음 '애착'
	4., 아동권리존중 교육(보호권)-교사	아동권리존중 외부교육
	5. 어린이영양&위생방문교육(생존권)	가평군급식관리지원센터
	6. 가정연계 공감놀이	프리허그
	7. 부모급식 모니터링(생존권)	식재료 검역 및 위생관리, 배식지도
	8. 부모품나누미(참여권)	어린이날 음식나누미
6월	1.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
	2.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발달권,참여권,생존권)	보건의날 인형극관람,상상나라,키즈앤키즈,동화인성교육,건강체험교실,아토피중증도검사,건강체험교실,식중독예방교육,숲체험,텃밭활동
	3. 부모급식 모니터링(생존권)	식재료 검역 및 위생관리, 배식지도
	4. 아동권리존중교육(보호권,생존권)-유아	아동권리가 있어요
	5. 가정연계 공감놀이	'아동권리존중'6행시 짓기
	6. 아동권리존중 컨설팅-교사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7월	1.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
	2.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발달권,참여권)	여름캠프,숲 체험
	3. 부모급식 모니터링(생존권)	식재료 검역 및 위생관리, 배식지도
	4. 부모교육(참여권,보호권)	아동권리교육(외부교육)
	5. 가정연계 공감놀이	유니세프 나눔통장
	6.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참여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7. 아동권리존중 교사교육	하루일과에 따른 보육교사의 아동권리존중
8월	1.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
	2.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발달권,참여권)	교통안전체험,물놀이,숲 체험,건강체험교실
	3. 아동권리존중 유아교육	친구의 권리도 중요해요
	4. 가정연계 공감놀이	역할극 Role Play
	5. 아동권리존중 부모교육	자녀권리존중교육
	6. 아동권리교사교육	야누스고착이론
	7. 부모급식 모니터링(생존권)	식재료 검역 및 위생관리, 배식지도
9월	1.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
	2.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발달권,참여권)	양지농원(쌀데이),추석행사,숲 체험
	3. 부모교육(참여권)	부모집단상담,자람이부모교육
	4. 가정연계 공감놀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의 약속'
	5. 부모급식 모니터링(생존권)	식재료 검역 및 위생관리, 배식지도
	6. 부모품나누미	녹색어머니(어린이집 등하원시 교통정리)
10월	1.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
	2.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발달권,참여권)	숲 체험,가나아트파크,한마음체육대회
	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참여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4. 부모참여수업(참여권)	프로젝트 부모참여수업
	5. 가정연계 공감놀이	'엄마와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눠요'
	6. 부모급식 모니터링(생존권)	식재료 검역 및 위생관리, 배식지도
	7. 아동권리교사교육	외부교육
11월	1.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
	2.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발달권,참여권)	숲체험,쁘띠프랑스
	3. 가정연계 공감놀이	나도 집안일을 도울 수 있어요
	4. 학부모 개별상담(참여권)	학부모 상담
	5. 부모급식 모니터링(생존권)	식재료 검역 및 위생관리, 배식지도
	6. 아동권리교사교육	내부교육
12월	1.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
	2.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발달권,참여권)	크리스마스행사,눈썰매장
	3. 부모재능기부(참여권)	산타행사
	4. 부모품나누미(참여권)	김장하기,청귤청담기.크리스마스 음식나누미
	5. 가정연계 공감놀이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도와주세요
	6. 부모급식 모니터링(생존권)	식재료 검역 및 위생관리, 배식지도
1월	1.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
	2.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발달권,참여권)	설 맞이 행사
	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참여권)	운영위원회
	4. 부모교육(참여권)	자녀권리존중
	5. 가정연계 공감놀이	스스로 옷을 선택해서 입고 싶어요
	6. 부모급식 모니터링(생존권)	식재료 검역 및 위생관리, 배식지도
	7. 부모교육	음악치료 소통교육
2월	1.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참여권,보호권)	생일잔치
	2. 나의 감정은 즐거워요(발달권,참여권)	영화관람
	3. 가정연계 공감놀이	나도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싶어요

* 정보 및 지역 사회 연계

지역사회명칭	소개	협조사항
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입니다.	◎아동권리존중 및 컨설팅 ◎교사 동아리 ◎아동권리존중 교사교육
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영양•위생• 안전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급식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양교육 ◎ 식단표 ◎ 텃밭제공
유니세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18년 전체 후원금 중 85%를 유니세프 본부에 보내, 전 세계 모든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칩니다.	◎ 아동권리존중 교육 ◎ 유니세프 나눔통장 후원금
가평군 잣향기 푸른숲	경기도잣향기푸른숲은 수령(樹齡) 80년 이상의 잣나무림이 국내 최대로 분포하고 있으며, 피톤치드 가득한 쾌적한 잣나무숲에서 숲체험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산림휴양 공간입니다.	◎ 매달 숲체험 활동
가평군 보건소	유아들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처방을 하고 올바른 영양관리방법을 보급하여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이고 이에 따른 만성질환의 위험요소와 의료비 감소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도담도담 건강체험교실 ◎ 흡연예방교육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환경성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과 의료지원 및 교육 · 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며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중입니다.	◎아토피예방 체험교실

4) 활동방법

	어린이집	가정	지역사회연계	확장활동
생존권				
	영양교육 후 요리수업	내가 우리 집 요리사	가평군보건소 건강교실	쌀데이
보호권				
	안전교육& 생일잔치	아동권리존중 6행시 콘테스트	급식지원센터 영양교육	교사교육 아동권리존중 컨설팅
발달권				
	특별활동	주말지낸이야기-키즈노트	잣 향기 푸른 숲 환경성질환예방센터	Role Play 역할극 놀이
참여권				
	현장학습	부모참여수업 & 부모교육	유니세프 나눔통장	아동권리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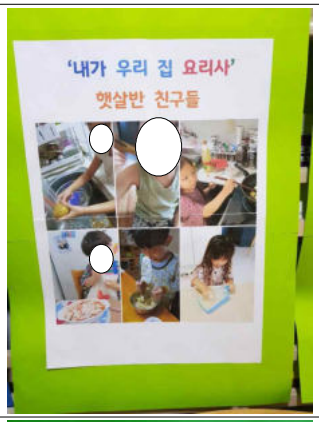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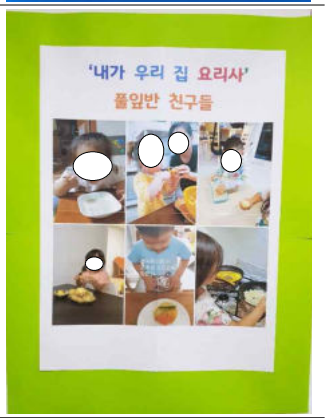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 주요 프로그램 소개- 『'생존권』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활동명	내가 우리 집 요리사	활동일시	2019년 6월
활동 목표	• 지역사회 연계 텃밭 활동에서 수확한 감자를 이용하여 요리하는 즐거움과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요리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이도 함께 참여하여 소속감과 성취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을 경험한다.		
표준(누리) 보육과정 관련요소	•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의 일 스스로 하기 • 신체운동·건강> 건강하게 생활하기> 바른 식생활 하기		
활동 형태	지역사회 연계/ 가정과의 연계		
활동 대상	만3~5세, 부모		
활동방법			
도입	1.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4월에 심은 <감자를 수확>한다. 2.직접 수확한 감자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나눈다. '감자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무엇이 있을까?' '집에서 부모님과 감자로 요리를 만든다면 어떤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3.오늘 수확한 감자로 집에서 엄마,아빠와 함께 요리를 만들어보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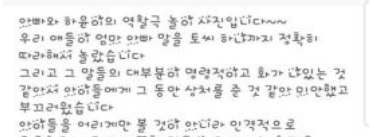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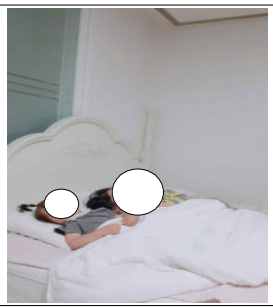
6/27	텃밭 활동 (감자 수확)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4월에 심은 감자를 수확하여 가정으로 배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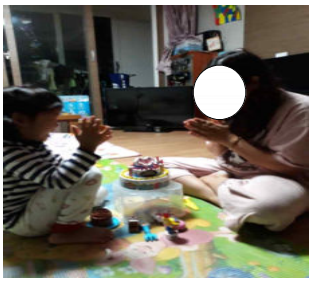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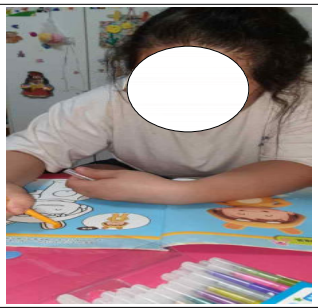
<table>
<tr><td>전개</td><td>1.감자를 유아의 가정으로 배부하여 유아와 함께 감자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이야기나눌 수 있도록 한다.
2.유아와 함께 감자를 가지고 요리를 한 후 사진을 찍어서 알림장에 사진으로 보내준다.
3.완성된 요리를 맛있게 먹어보면서 느낌을 나눈다.
<table>
<tr><td>6/27~
7/5</td><td>내가 우리 집 요리사</td><td> </td><td>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감자를 이용한 요리를 함께 만들고 사진을 알림장으로 남김</td></tr>
</table></td></tr>
<tr><td>마무리</td><td>1. 유아들의 요리 사진을 출력하여 전시한다.
2. 유아들과 함께 요리했던 사진들을 감상하며 느낌을 나눈다.
<table>
<tr><td>7/8~
7/12</td><td>내가 우리 집 요리사 전시회</td><td>
 </td><td>활동사진을 출력하여 전시하여 유아들의 활동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td></tr>
</table></td></tr>
<tr><td>평가</td><td>유아들이 심고, 수확한 감자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감자로 만들 수 있는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봄으로써 평소에 감자를 싫어하던 유아들도 흥미와 즐거움을 통해서 감자를 먹어보게 되는 유익한 활동이고, 스스로 만든 요리를 직접 먹어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평소에 요리는 어른들의 활동이라고만 생각했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아이와 소통하고 기다려주며 아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td></tr>
</table>

활동사진			 안녕하세요? 감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창발체험활동으로 4월에는 감자를 심고 6월 말에는 열심히 심었던 감자를 수확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자줄기를 힘껏 잡아당기자 감자무리에 알알이 맺힌 감자들이 솔솔하고 아이들과 함께 "수확~~" 를 외치며 즐거워했답니다. 수확한 감자로 주말동안 우리 아이들과 맛있는 요리를 하셔서 인증사진을 키즈노트 알림장으로 보내주세요. 사진은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모습,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모습 등 다양하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자요리와 관련하여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진은 7월 1일 필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맛초 가득 듬뿍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심기	감자수확	가정연계안내문
			
			
	각 반별 활동사진		

● 주요 프로그램 소개- 『보호권』

<table>
<tr><th colspan="4">『보호권』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th></tr>
<tr><td>활동명</td><td>역할극 Role play</td><td>활동
일시</td><td>2019년 8월</td></tr>
<tr><td>활동
목표</td><td colspan="3">• 역할극을 통해 유아의 감정과 생각을 느껴볼 수 있다.
• 유아와 부모 모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td></tr>
<tr><td>표준(누리)
보육과정
관련요소</td><td colspan="3">• 의사소통 > 듣기 > 이야기듣고 이해하기
•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td></tr>
<tr><td>활동
형태</td><td colspan="3">가정과의 연계</td></tr>
<tr><td>활동
대상</td><td colspan="3">부모</td></tr>
<tr><td colspan="4">활동 방법</td></tr>
<tr><td>도입</td><td colspan="3">1. 역할극에 대한 설명과 안내문을 가정에 공지하여 아이와 함께 역할극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table>
<tr><td>8/16</td><td>역할극놀이
안내문공지</td><td>
</td><td>부모님의
아동권리존중
활동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역할극
놀이 안내문
공지</td></tr>
</table></td></tr>
<tr><td>전개</td><td colspan="3">1. 아이와 함께 역할을 바꿔서 활동해 보고 사진으로 남겨서 알림장에 사진으로 남겨준다.
2. 역할극을 하고 난 후 부모님께서 느낀점을 알림장에 사진과 함께 남겨준다.
<table>
<tr><td>8/16~
9/2</td><td>나도
엄마,아빠가
되었어요</td><td> </td><td>역할극 놀이
사진을
알림장으로
남김</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마무리</td><td>1. 역할극을 하고 난 후 부모님의 느낌을 알림장에 남겨준다.
2. 역할극에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린다.
<table>
<tr><td>9/6</td><td>역할극놀이 참여에 따른 선물지급과 후기 공유</td><td>
 
안녕하세요 하윤이의 역할극 놀이 사진입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토씨 하나까지 정확히
따라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대부분이 명령적이고 화가 나있는 것
같았서 아이들에게 그 동안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고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을 어리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되고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가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td><td>역할극 후에 부모님들의 느낌을 함께 알림장으로 남김</td></tr>
</table></td></tr>
<tr><td>평가</td><td>역할놀이는 아이들의 놀이로만 여기고 함께 놀이하는 것을 대수롭지않게 여겼는데 아이와 함께 역할을 바꿔서 활동해보면서 아이의 시각에서 표현도는 언어사용에 대해 많이 놀라서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으며, 아이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하며 부모 스스로가 따뜻한 말들이 오가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td></tr>
<tr><td>활동사진</td><td><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아빠는 엄마, 나는 아빠가되어보았어요</td><td>엄마가 되어서 설거지를 해보았어요</td><td>엄마가 되어 차를 마시며 이야기나누었어요</td></tr>
<tr><td> </td><td>  </td><td> </td></tr>
<tr><td>작은 레고를 가지고서 역할극을 해보았어요</td><td>아가를 재워주는 엄마가되어보았어요</td><td>아빠가 되어서 학습지를 도와주었어요</td></tr>
</table></td></tr>
</table>

활동사진			
	아빠가 되어보았어요	엄마가 되어서 나의 놀이활동을 해봤어요	나는 아빠, 동생은 엄마가 되어보았어요
			
	엄마가 되어 아기를 재워 주었어요	나의 학습지를 엄마가 해보았어요	아빠가 되어보았어요

● 주요 프로그램 소개- 『발달권』

『발달권』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활동명	유니세프 나눔통장	활동 일시	2019년 7월
활동 목표	• 나눔통장으로 모아진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기쁨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 나눔통장에 스티커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약속을 정하고 실천한다.		
표준(누리) 보육과정 관련요소	• 사회관계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활동 형태	가정과의 연계/지역사회 연계		
활동 대상	유아,부모		

활동 방법

도입

1. 유니세프 나눔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유아들과 나눈다.

2. 4대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므로 나눔통장에 스티커를 채워서 후원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나눈다.

'나눔통장을 가져가서 엄마,아빠와 약속을 정하고 스티커를 모아볼까요?'

'후원금을 가져오면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3. 유니세프 나눔통장에 대한 설명을 부모님께 공지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24	유니세프 나눔통장 공지		부모와 유아의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올바른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니세프나눔통장' 에대한 참여방법을 공지

전개

1. 유니세프 나눔통장에 부모님과의 약속을 적는다.
2. 약속을 지킬 때마다 스티커를 붙인다,
3. 스티커의 개수만큼 후원금을 어린이집으로 가져 온다.

7/25~ 8/16	유니세프 나눔통장과 후원금을 어린이집으로 보내주기	 유니세프 나눔통장 회수 및 활동사진 안내문 	약속을 지키고나면 약속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사진을 보내주시고, 나눔통장과 후원금을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시도록 공지
7/25~ 8/16	유니세프 나눔통장과 후원금을 어린이집으로 보내주기	 	약속을 지키고나면 약속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사진을 보내주시고, 나눔통장과 후원금을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시도록 공지

마무리

1. 보내주신 나눔통장과 후원금을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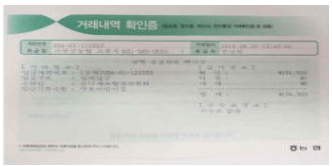
'약속을 잘 지키고 후원금을 가져왔으니 이제 권리를 지키지못하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게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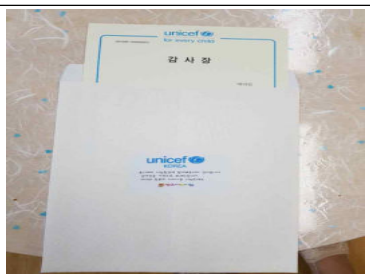
'후원금을 모두 모아서 은행에서 유니세프라는 기관에 보내줄꺼예요'

2. 반별로 후원금을 합산하여 유니세프에 후원금과 단체 사진을 보내면서 맹호어린이집 아이들의 마음을 전달한다.

3. 유니세프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후원금액과 이름이 적혀있는 감사장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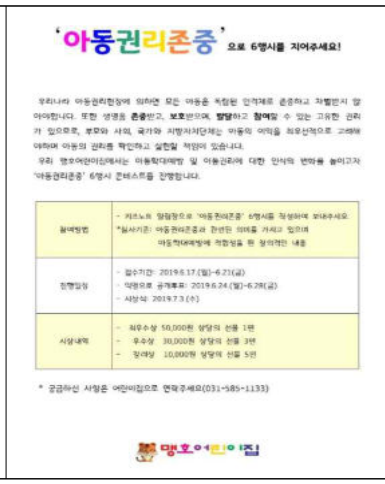
4. 유니세프에 동참해주신 부모님들께서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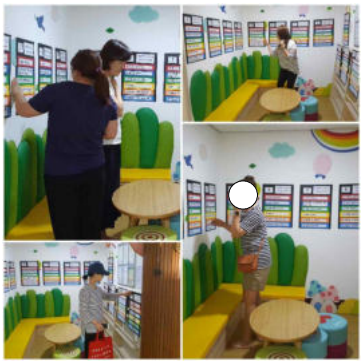
8/20	후원금 은행 입금 감사장 전달 단체사진 촬영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 전달	유니세프 나눔통장 기부금현황 맹호어린이집 	반별로 모아진 후원금을 은행에서 유니세프로 입금
8/20	단체사진 촬영	유니세프 나눔통장 감사인사 및 단체사진 촬영안내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의 권리존중행사에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니세프 나눔통장으로 모아진 후원액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는 일에 쓰여질것입니다. 맹호의 친구들에 작은 정성으로 다른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에 자부심과 뿌듯함을 가질 수 있을것입니다. 내일은 유니세프에 보내질 유니세프 나눔통장기념 단체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예쁜 원복을 입고 10시까지 등원 바로 부탁드립니다. *유니세프 나눔통장에 참여해주신 가정은 소정의 선물을 다음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호어린이집 	단체사진 촬영 및 유니세프에 사진과 후원금 입금
8/26	가정으로 선물 배부		약 파우치를 선물로 제공함

마무리	9/16	유니세프에서 발행한 감사장 전달	 	감사장을 봉투에 담아서 전달
평가	**부모님과의 약속을 정하고 실천하면 스티커를 모으고 모아진 스티커의 갯수만큼 후원하여 내가 아닌 다른 아동에게 도우을 줄 수 있는 활동은 내가 아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으며, 나를 위한 실천이 아닌 아동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활동으로 유아들에게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으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활동사진				

활동사진	

● 주요 프로그램 소개- 『참여권』

<table>
<tr><th colspan="4">『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th></tr>
<tr><td>활동명</td><td>‘아동권리존중’ 6행시 콘테스트</td><td>활동일시</td><td>2019년 6월</td></tr>
<tr><td>활동 목표</td><td colspan="3">• 아동권리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다.
• 아동권리존중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td></tr>
<tr><td>활동 형태</td><td colspan="3">가정과의 연계</td></tr>
<tr><td>활동 대상</td><td colspan="3">부모</td></tr>
<tr><td colspan="4">활동방법</td></tr>
<tr><td>도입</td><td colspan="3">1. 아동권리존중 6행시 콘테스트가 있음을 키즈노트 알림장으로 공지함.
<table>
<tr><td>6/14</td><td>아동권리존중 6행시 콘테스트 공지</td><td> 
‘아동권리존중’ 으로 6행시를 지어주세요!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적합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으므로,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명호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높이고자 ‘아동권리존중’ 6행시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방법 - 키즈노트 알림장으로 ‘아동권리존중’ 6행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심사기준: 아동권리존중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에 적합성을 띈 창의적인 내용
진행일정 - 접수기간: 2019.6.17.(월)~6.21(금) - 작품으로 공개투표: 2019.6.24.(월)~6.28(금) - 시상식: 2019.7.3.(수)
시상내역 - 최우수상 50,000원 상당의 선물 1명 - 우수상 30,000원 상당의 선물 3명 - 장려상 10,000원 상당의 선물 5명
* 궁금하신 사항은 어린이집으로 연락주세요(031-585-1133)
명호어린이집</td><td>아동권리존중 6행시 콘테스트가 있음을 공지</td></tr>
</table></td></tr>
<tr><td>전개</td><td colspan="3">1. 반별로 아동권리존중 6행시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부모님과 교직원들의 6행시를 종이에 옮긴다.
2. 1층 부모대기실에 콘테스트 참가자들의 6행시를 게시한다.
3.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한다.
4. 1등~5등,참가상을 가려낸다.</td></tr>
</table>

전개	6/24~ 6/28	6행시 콘테스트 게시 및 블라인드 투표	 	이름과 반명을 게시하지 않고 블라인드 투표를 실시
마무리	9/3	6행시 콘테스트 시상식 및 선물전달식	 	1등~3등, 참가상을 발표하고 이름을 게시

마무리	9/3	6행시 콘테스트 시상식 및 선물전달식		1등~3등, 참가상을 발표하고 이름을 게시

평가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부모님과 교직원들의 인식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흥미로운 방법으로 '아동권리존중 6행시 콘테스트'를 실시하였고, 1등~3등을 블라인드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각반에서 몇몇의 부모님들께서 참여하셨고, 블라인드 투표를 통해서 공정하게 순위를 정하고, 원장님과 선생님 그리고 유아가 함께 동반하면서 상품을 수여하는 순간은 아이에게도 부모님께도 자존감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었다.** **한 번의 행사로 '아동권리존중'을 부모와 교직원에게 알리고 인식하도록 돕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수의 부모님들과 교직원들에게 4대 기본권리 중 참여권과 발달권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활동이었다. 부모님과 교직원 모두 콘테스트를 실시하기 전보다는 한발 넘어선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상승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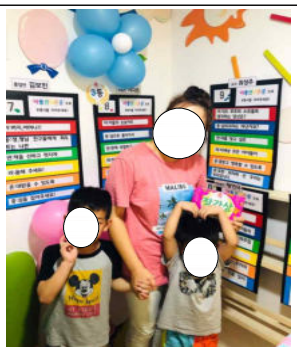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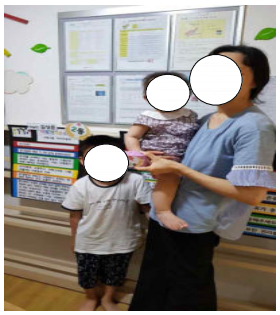
6행시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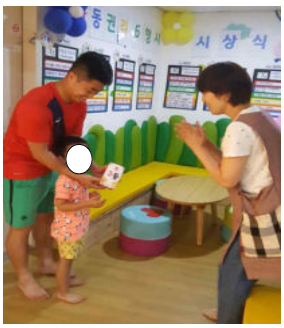
블라인드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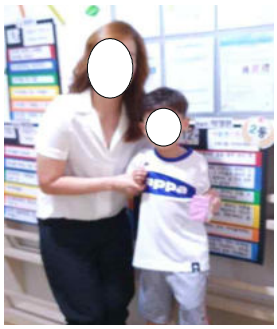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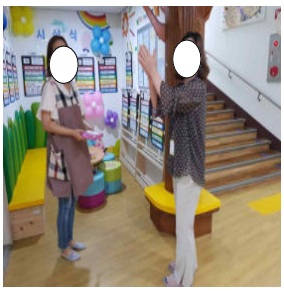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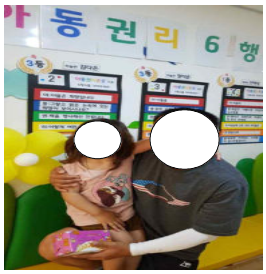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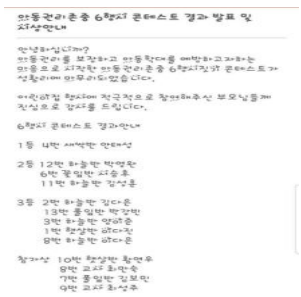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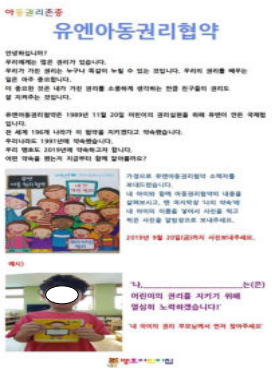






시상식 및 상품전달식

● 주요 프로그램 소개- 『참여권』

<table>
<tr><th colspan="4">『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th></tr>
<tr><td>활동명</td><td>유엔아동권리협약 ‘나의 약속’</td><td>활동일시</td><td>2019년 9월</td></tr>
<tr><td>활동 목표</td><td colspan="3">•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나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고 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안다.</td></tr>
<tr><td>표준(누리) 보육과정 관련요소</td><td colspan="3">• 의사소통 > 듣기 > 이야기듣고 이해하기
•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td></tr>
<tr><td>활동 형태</td><td colspan="3">가정과의 연계</td></tr>
<tr><td>활동 대상</td><td colspan="3">유아,부모</td></tr>
<tr><td colspan="4">활동방법</td></tr>
<tr><td>도입</td><td colspan="3">1. 소책자를 소개한다.
2. 소책자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담겨있음을 이야기나눈다.
‘소책자 표지를 보니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책 속에는 유엔에서 만들어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들어있어요. 집으로 가져가서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면서 부모님께도 우리들의 권리를 알려주세요’
3. 소책자를 가정으로 배부하여 함께 읽어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공지한다.
<table><tr><td>9/17</td><td>유엔아동권리협약 공지</td><td>  </td><td>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읽고 난 활동방법을 공지함.</td></tr></table></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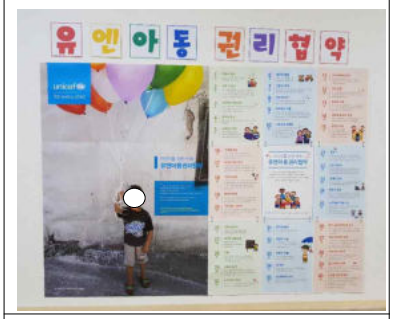
<table>
<tr><td>전개</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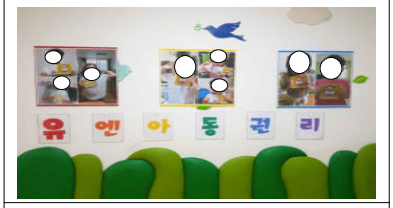
1.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읽어본 후 '아동권리협약' 약속을 사진 찍어서 알림장으로 보내주신 것을 취합 한다.
2. 대·소그룹시간에 약속 사진을 보면서 느낌을 이야기 나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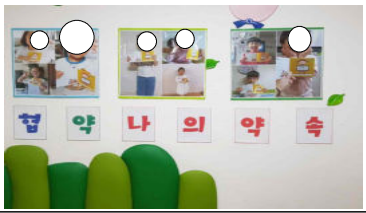
<table>
<tr><td>9/17~
9/20</td><td>'아동권리협약'약속 인증샷</td><td> </td><td>'아동권리협약'약속 인증샷을 찍어서 알림장으로 보내주신 것을 취합하기</td></tr>
</table>

</td></tr>
<tr><td>마무리</td><td>

1. 아동권리협약의 약속을 지키기로 약속한 아이들의 사진을 인쇄하여 어린이집에 게시한다.

<table>
<tr><td>9/23~</td><td>아동권리협약 인증사진 게시</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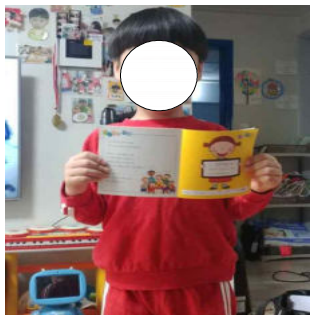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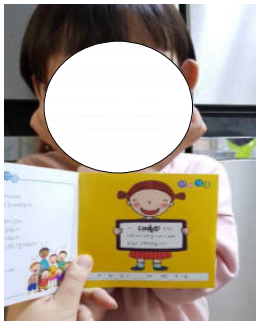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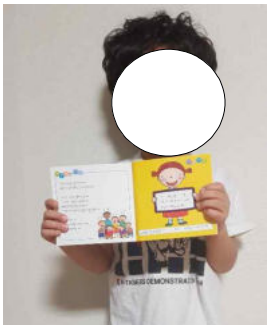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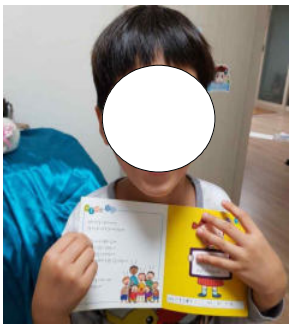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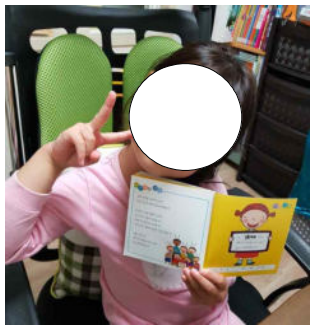



</td><td>'아동권리협약'약속 인증샷을 찍어서 알림장으로 보내주신 아이들의 사진을 인쇄하여 게시</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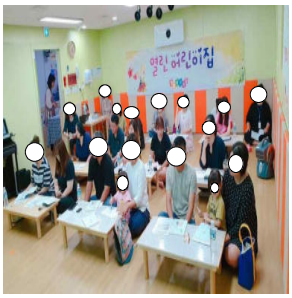
</td></tr>
<tr><td>평가</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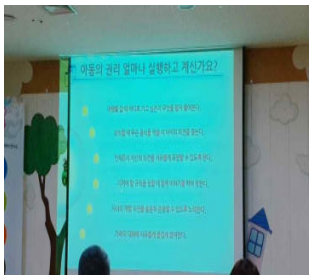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함께 알아보고 '나의 약속'을 사진으로 찍어서 게시하여 '권리'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고 여러 번의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 자신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알아가기보다는 '권리'라는 단어에 더 다가설 수 있는 활동이었다.

</td></tr>
</table>

활동사진	    

● 부모교육

<table>
<tr><td>활동명</td><td>부모교육</td><td>활동일시</td><td>2019년 5월~9월</td></tr>
<tr><td>활동 목표</td><td colspan="3">• 유아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다.
•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td></tr>
<tr><td>활동 형태</td><td colspan="3">집단상담 및 강의</td></tr>
<tr><td>활동 대상</td><td colspan="3">부모</td></tr>
<tr><td colspan="4">활동방법</td></tr>
<tr><td>1차
부모교육</td><td colspan="3">1. 1차 부모교육은 5월에 이루어지고, 행복한 아이를 위한 첫걸음 '애착'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table>
<tr><td>5/10</td><td>행복한
아이를
위한
첫걸음
'애착'</td><td> </td><td> </td></tr>
</table></td></tr>
<tr><td>2차
부모교육</td><td colspan="3">2. 2차 부모교육은 8월 실시되었으며, 자녀권리존중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현재 부모님들의 자녀권리존중의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table>
<tr><td>8/21</td><td>자녀권리
존중교육</td><td> </td><td>  </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3차
부모교육
(1회)</td><td>3-1. 3차 부모교육은 아빠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table><tr><td>9/24</td><td>집단상담</td><td> </td><td> </td></tr></table></td></tr>
<tr><td>3차
부모교육
(2회)</td><td>3-2. ‘놀이야 인성을 부탁해’를 주제로 바른 인성으로 이어지는 놀이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table><tr><td>9/26</td><td>자람이
부모교육</td><td> </td><td> </td></tr></table></td></tr>
<tr><td>평가</td><td>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면 늘 잊고 있었던 것들을 제닫게 되고, 다시한번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다. 또한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통해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다. 다음번에도 부모교육이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td></tr>
<tr><td>활동사진</td><td> 
 </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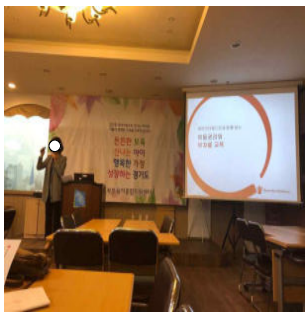
● 아동권리존중 컨설팅 및 발표회 & 교사교육

활동명	아동권리존중 교사교육	활동일시	2019년 4월~8월
활동 목표	• 어린이집에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 본다.		
활동 형태	강의 및 토론		
활동 대상	교사		

활동방법

1차 아동권리 존중 교사교육

1. 아동권리존중 교사교육-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4/25	아동권리와 비차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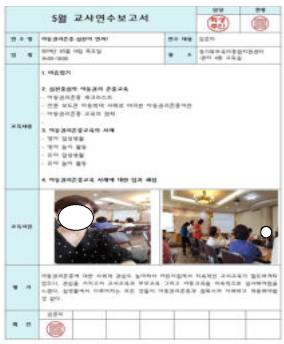
2차 아동권리 존중 교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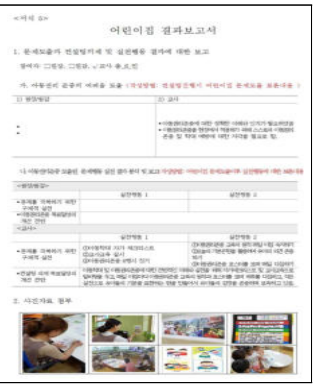
2. 아동권리존중 교사교육-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5/2	긍정적인 훈육		

3차 아동권리 존중 교사교육

3. 아동권리존중 교사교육-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5/16	아동권리 존중- 실천이 먼저!		

활동방법	
4차 아동권리 존중 컨설팅	**4. 아동권리존중 컨설팅-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table><tr><td>6/14</td><td>아동권리 존중 컨설팅</td><td> </td><td>  어린이집 결과보고서</td></tr></table>
평가	**아동권리존중 컨설팅을 받고 난 이후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실천을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1. 아동권리존중 자가체크리스트 실시(매일)** **2. 아동권리 존중 교육의 원칙 교실에 비치 및 숙지** **3. 아동권리존중 내부교사교육 실시(매월)** **아동권리존중 컨설팅 지속적인 노력과**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에서는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5차 아동권리 존중 컨설팅 결과보고회	**5. 아동권리존중 교사교육-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table><tr><td>7/9</td><td>컨설팅 결과 보고회</td><td> </td><td> 7월 교사연수보고서</td></tr></table>

활동방법				
6차 아동권리 존중 교사교육	**4. 아동권리존중 교사교육-내부교육**			
	7/31	하루일과에 따른 보육교사의 아동권리 존중		
7차 아동권리 존중 교사교육	**5. 아동권리존중 컨설팅-내부교육**			
	8/26	야누스 코르차크		
8차 아동권리 존중 교사교육	**6. 아동권리존중 교사교육-온라인교육**			
	8/26~ 8/30	아동학대 예방교육 -온라인		

III. 활동평가

유아의 변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엄마,아빠와 함께 활동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활동한 것들을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아동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 친구와의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일어날 경우 친구도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하는 존재임을 알고, 갈등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의 변화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양하고 재미있게 아동권리존중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적용하게 되었고,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됨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아동의 기본적인 4대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존중되고 실현되어야하는 유아기 과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유아의 새로운 경험, 도전을 존중하여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학부모의 변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선물을 준다는 공지사항을 보면서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우리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아이들을 어리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되고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가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일들이 부모님의 스케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아이 스스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

아동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속에서 지도하면서 조금씩 인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부모교육과, 가정에서도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연스러운 실천이 이루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안

교사

❖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다양한 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아동권리존중이 유아기에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교육한다.

어린이집

❖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동권리존중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Ⅴ. 참고문헌

1.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아동권리인식이 아동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김은옥, 2018).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경험, 아동권리인식 및 아동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김하정, 2017)
3. 유엔아동권리협약(1924)
4. 아동권리존중, 실천이 먼저!(2019,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VI. 참여 후기

맹호어린이집 현장 후기

어린이집에서 2019년도 운영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하게 된 주제가 아동권리존중이었습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 받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인권이지만 아동은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한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단순 돌봄의 대상이 아닌 아동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자율성과 선택 결정권 확대까지 그 보호의 경계를 넓혀가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나 가정 일부에서 아직도 아동을 어른들의 부속물로 여긴다든지 수동적인 관리 대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인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원에서는 아동권리존중을 연간 테마로 잡고 아이들이 등원해서 선생님의 돌봄 아래 친구들과 활동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하루의 순환 속에서 아이들의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호받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행과정이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보다 큰 동기부여가 되고 프로그램 구성이 더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의 권리 존중은 무엇보다 순간순간 나타나는 아이들의 감정과 모든 행동들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성인의 편의와 편견으로 아이들의 감정이 통제되고 억제되는 행동 방식에서 권리존중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호자와 아동간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실시한 Role-Play 역할극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투사된 부모의 언어와 행동은 과연 그것이 누구의 권리였었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할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습니다. UN에서 정한 아동권리협약은 국가 간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잘못을 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움직임에 눈을 뜨고 함께 동참하기 위해 각 가정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유니세프 모금통장을 만들어 상당 금액을 기부했을 때는 세계인의 일원이 되는 자부심도 함께 느꼈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제목이 생각납니다. 어릴 때 행동하고 익힌 질서와 사고, 감수성이 일생을 지배하고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존중의 결과는 아동을 대하는 우리의 현재 모습일 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동안 그들이 그려갈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공모전 참가를 통해 어린이집 일과가 투명하게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보다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이들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지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신 맹호가족 여러분들께,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상의 기쁨을 돌립니다.

맹호어린이집 교사 후기1

‘아동권리존중’ 6행시짓기를 시작으로 아동권리존중을 이해하고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개념과 즐거움을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원장선생님 및 동료교직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고민해보고, 다른 보육기관들의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맹호어린이집에 알맞은 우수보육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참여와 호응도는 좋았으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차를 거듭하면서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시면서 ‘엄마와 함께 티타임’이란 프로그램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점점 더 활성화되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동권리존중 돌발퀴즈’라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깜짝 선물을 지급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동권리존중은 어려운 일들이 아니였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아동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였습니다.

현재는 한달에 한번 숙제처럼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동권리존중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이 우리 부모님,아이들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아동권리존중을 몸과 마음으로 녹여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원장님과 모든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과 아이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아동권리존중 우수보육프로그램 최우수상 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하는 선구자가 되도록 맹호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호어린이집 교사 후기2

원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의 노력에 결실로 우수보육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거듭날 수 있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저 또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맹호어린이집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생활 곳곳에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른들의 시각의 틀 속에 아이들을 맞추려는 것이 가장 큰 오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미흡한 의견이나 주장이라도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여 줄때 아이들도 존중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수 있었고, 이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나아가 아이들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함양되는 결과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 이란 말처럼 가정에서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자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라는 거울이 흠집이 나거나 깨지지 않도록 교사로서 당당히 비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어린이집 부모 후기1

아동권리존중의 첫걸음

아주 작은 아기였던 아이가 커 가는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신기하다. 키도 쑥쑥 크고 어느 새 안아주기가 버거울 만큼 커버린 아이를 보면 그저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고맙기만 하다. 아이는 몸만 큰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마음도 쑥쑥 자라났다. 점점 혼자 하고 싶은 것이 늘어나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아이만의 생각도 늘어나고, 친구와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며 하루하루 커 가고 있다. 어디에선가 아이가 크는 만큼 부모도 큰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내 아이가 이만큼 크는 동안 부모인 나는 얼마나 컸을까?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하며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듣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 유엔에서 만든 국제법이고 우리나라도 1991년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한다. 그러나 나의 어린시절을 돌아보면 그 때는 아동권리존중이 많이 지켜지지는 않았단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동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나 현실은 아동이 부모에게 존속된 존재인, 자신의 생각보다는 어른의 생각에 따라야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점차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제도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단순히 아동을 위험에서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권리를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들과 어른들이 느끼게 된 듯 하다.

나 역시 이러한 부모교육과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나의 작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었다. 단순히 아이이기 때문에 ,위험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먹고 자게 해주는 것만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아이에게 신체적 폭력 뿐만이 아닌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말들도 조심해야 함을 기억하게 되었다.

어쩌면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아이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다. 그냥 작은 아이니까, 아이가 뭘 알겠어 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었다.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며 태어난다. 생존과 보호, 발달과 참여의 권리. 아이는 발달해 가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펼치고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아이의 생각은 존중되어야 함을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즐겁게 노는 것도 아동의 권리 존중이라는 것을 듣고 그동안 아이의 놀자는 이야기를 무심코 넘기기만 했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귀찮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놀자는 이야기를 귀찮아했었는데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놀아주는 것이 아동권리존중의 한 부분임을 보며 좀 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아빠의 경우 아이와 더욱 잘 놀아주고 함께하는 법을 어린이집 부모교육과 함께 배우며 아이의 눈높이에서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이의 성장은 부모의 성장도 함께 가져온다. 초보부모였던 우리는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함께 커가고 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역시 큰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아이와 함께 자라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도와준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과 아동권리존중프로그램은 내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큰 원동력이었다.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 아이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앞으로도 내 소중한 아이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 배움과 노력을 잊지않고,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맹호어린이집 부모 후기2

생각지 못하고 키즈노트 아동권리 존중 돌발퀴즈 선착순 답변에 당첨되어 행복하였으며,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 둘째 아이가 국방부 산하 직장어린이집인 맹호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동의 4대 권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급식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영양식단과 훌륭하신 영양사분의 정성어린 조리를 통해 만들어진 영양식을 섭취하고, 원장선생님, 햇살반 선생님 등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과 세심하고 정성어린 보육지도를 통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에 보호 및 발달권의 권리가 존중되는 힐링의 공간이라고 과감히 말하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부모참여 수업과 발표회 등에서 집에서 가까이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섬세하고 대견함, 몰입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웠던 적도 있었다. 우리 군인들만 좋은 선생님들과 안전한 환경속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집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맹호어린이집과 같이 행복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번 맹호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조리원분들게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리로 물들다

고양시
권율어린이집

Ⅰ.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보육기관과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사건으로 사회적 시선이 민감해 지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높아졌다.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 보호기관. 2016.9)에 의하면 2014년 6,796건, 2014년 10,027건, 2015년 11,715건으로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아동학대 사고나 피해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마을 아동 지킴이' 운영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아동권리존중 교육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나, 여전히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 사례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자주 보여 지고 있다. 이런 아동학대의 예방법으로 미성숙한 영유아를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는 권리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는 대처능력이 미약한 보호의 대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9년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규범을 공포하였고, 우리나라도 1991년 실행의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 모두의 책임이라는 4-3-1모델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4기본권	• 생존권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충분한 영양섭취, 생명유지,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권 : 차별로부터 보호,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과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 :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한 발언권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3원칙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아동에게 최선이 이익 제공
	•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
1과정	• 아동권리 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

<표1> 4-3-1 모델

본 프로그램은 아동권리 협약의 4-3-1모델을 기본으로 보육현장에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영유아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가 가정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교수-학습내용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원 자체적으로 제작한 권리UCC나 가정통신문의 부모교육을 통해 제공하였다. 권리교육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고(우리가 가진 권리), 부모나 교사도 영유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우리가 지켜주는 권리)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 식	• 영유아에게 권리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하여 우리가 가진 권리에 대하여 인식
기 술	• 원 자체적으로 제작한 UCC나 가정통신문 부모교육을 통하여 가정에 권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
태 도	• 원에서 제공받은 권리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가정과 기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권리에 대한 자세 형성

이에 본 프로그램은

첫째, 권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영유아, 부모 교사가 함께 지식, 기술, 태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영유아가의 권리 뿐 만이 아니라 부모, 교사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 영유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계획한 후 각 연령에 적합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전 연령이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셋째, 교사들의 동료장학을 통하여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개선되었고, 교사들 간의 소통의 문화가 형성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1) 영유아권리의 정의

인간의 권리란 출생과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자연법적 권리이다. 영유아 권리는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일반적 권리와 영유아로서 인정되는 영유아 고유의 권리로 구성된다(백우정, 1993). 즉, 영유아 권리는 영유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성인의 권리와 같으면서도,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개념적 차이가 있다(김정래, 2002).

따라서 영유아권리란, 영유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주체인 영유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성,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영유아기 특성과 영유아 권리존중의 중요성

영유아들에 대한 연구들은 주된 양육자와 영유아 자신과의 긍정적인 애착관계형성이 영유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따른 행복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좀 더 성장한 시기의 삶과도 관계가 있는 것을 밝히고 그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서영숙, 2010)는 유아기의 특징과 연결하여 영유아 권리존중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일상에 있어 가장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시기가 영유아기이다. 그러므로 심신이 건강한 영유아로 성장과 발달에 아동최선의 이익을 생각하여 영유아기의 생존발달의 권리존중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영양과 돌봄, 그리고 보호와 지도를 주 양육자나 부모로부터 찾아내는 과저에서 강한 애착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교사와 영유아가 강한 정서적 애착형성과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발달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활동이나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사회적, 물리적, 문화적 영역을 탐색하며, 점차적으로 영유아들은 학습해간다. 이처럼 영유아에게 자신과 주위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의 권리, 정보, 자료의 접근권리, 참여 권리존중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은 생활여건, 본성, 성, 교육, 교육시스템 가족구조 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영유아에게 주어진 환경과 무관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비차별적 권리, 착취, 학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의 권리존중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3) UN아동 권리협약(UN Conventii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국제적으로 영유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영유아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영유아에게 부여된 기본권리들을 규정하는 조약을 승인하였다. 이것이 바로 「UN아동권리협약」이다. 이는 영유아를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국제적 의지표현이자 국제인권협약이다.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UN아동권리협약은 영유아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영유아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Ⅱ.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영유아는 보호의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권리의 주체자이다. 방정환은 “아동은 성인의 축소형이 아니고 그렇게 취급되어서도 안 되며 분리된 개별적인 생명을 지닌 존재”라고 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타고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교수-학습방법을 근거로 계획하여 아동 권리존중이 자연스럽게 실행되도록 하였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과 놀이 그 자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권리존중이란 영유아의 권리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도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권리로 물들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영유아들의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권리존중 속에서 부모와 교사도 함께 존중 받아야 하며 동시에 부모와 교사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안내자와 실천자의 역할도 고려하여 지식과 기술, 태도가 조화를 이루어 실행해야 한다는 것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활동기간

본 프로그램 “권리에 물들다.”는 2018년 1월 보육교직원들의 사전조사 후 계획을 통해 프로그램을 계획한 후 2018년 2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부모님에게 소개 후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실행하였다.

2) 활동대상

본 프로그램 “권리에 물들다.”의 활동대상은 본 원의 만0세부터 만3세 총 3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연령의 발달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가정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실행결과도 원에서의 실행결과와 더불어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실행결과를 통해 영유아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와 부모님들의 권리에 대한 변화가 결과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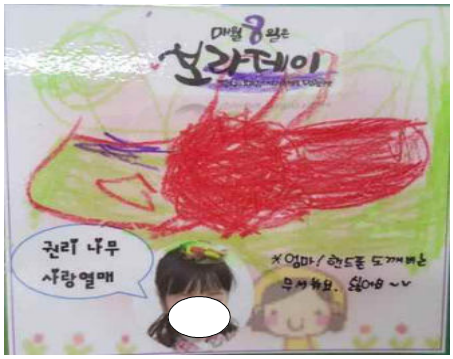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존중을 위해 부모의 인식변화 및 보육교직원의 권리존중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영유아,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의 권리존중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 구성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3) 프로그램 연간

차시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지켜주는 권리		권리조항	활동사진
	영유아	어린이집	가정		
1	권리나무, 사랑열매	“신데렐라 동화를 통한 권리존중” UCC	우리가 생각하는 권리를 실천해요	보호권 보호받으며 자랄 권리	
2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UCC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라왕	생존권 영양과 보건의 권리	
3	쭉쭉 쑥쑥 마사지	베이비 마사지를 하며 권리를 존중해요	베이비 마사지 참여 수업	생존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4	어린이날 즐겁게 놀아요	엄마, 아빠 함께 놀아요	즐겁게 놀아요 보라왕	발달권 신나게 놀면서 배울 권리	
5	아동권리존중 노래 “싫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UCC	“싫단 말이야!” 플래시몹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6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패션쇼	내가 제일 잘 나가! 패션쇼 참여 수업	보호권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7	마음대로 요리사	마음대로 요리사	마음대로 요리사 참여 수업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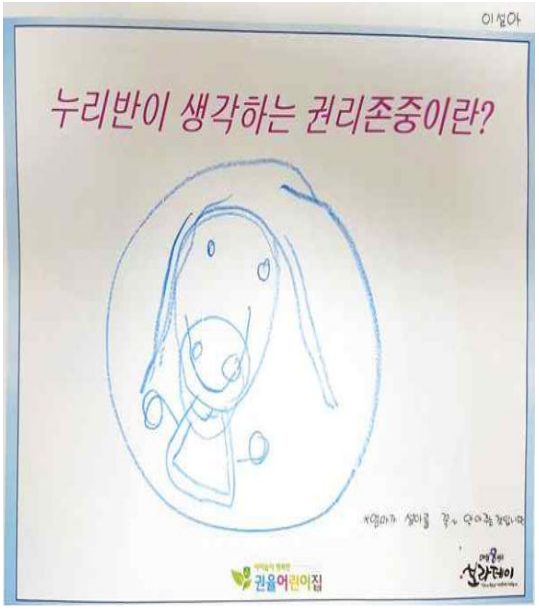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1	우리가 가진 권리 – 권리 나무, 사랑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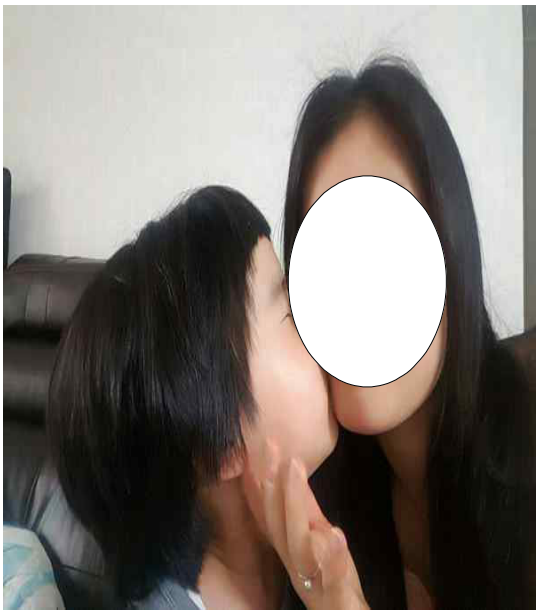
활동명	권리 나무, 사랑 열매	권리조항	보호권 보호 받으며 자랄 권리
활동목표	1.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권리 주체자로서의 나를 인식한다. 2.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표준보육 관련요소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구별하기 예술경험 > 예술적 표현하기 > 자발적으로 미술 활동하기		
활동자료	편지지, 색연필		
활동방법	지식	1. 나의 생각이 존중(보호)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 언제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니? - 그럴 때 기분이 어땠니?	
	기술	1. 존중 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눈다. - 어떤 말을 하고 싶니? - 어떻게 하면 너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2. 권리를 존중 받기 위해 이야기한 것들을 편지지에 그림으로 표현한다.	
	태도	1. 친구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활동사진			
평가	보호권에 관한 영상편지 감상을 통해 유아들이 자신의 권리 중 좋았던 경험과 그렇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가진 권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우리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세요”라는 말을 하여 부모님들이 유아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들을 존중하는 기회가 되었다.		

아동 권리존중 보호권 안내

엄마, 동생 말고 나도 안아 주세요.



가정 연계 활동지



엄마에게 뽀뽀해 줄 때입니다.

동생 말고 나를 먼저 안아 주세요.

아동 권리존중 보호권 실천

2	우리가 가진 권리 –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활동명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권리조항	생존권 영양과 보건의 권리
활동목표		1. 씨앗과 모종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한다. 2. 생존권에 대해 관심 갖고 영유아가 존중 받고 자랄 권리가 있음을 안다.		
표준보육 관련요소		자연탐구 > 과학적 탐구하기 > 주변 동식물에 관심 가지기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내 가족 알기		
활동자료		흙, 모종삽, 씨앗(당근, 봉선화, 강낭콩, 채송화), 모종(상추, 로즈마리, 토마토), 물 조리개		
활동방법	지식	1. 화분에 씨앗과 모종을 심어 본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 씨앗과 모종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술	1. 화분에 씨앗과 모종을 심어 본다. 2. 우리가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사랑해' 라고 말해주며 돌봐 주면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태도	1. 씨앗과 모종을 심어 본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2.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씨앗이나 모종처럼 영양가 있는 음식과 아프면 치료 받을 수 있는 생존권이 필요함을 알고 실천해 본다.		
활동사진				
평가		씨앗 심기와 모종 심기를 통해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웠다. 가정에 잔디인형을 보내 부모와 함께 물을 주고 돌보며 생명에 대한 신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영유아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지만, 부모님들이 잔디인형을 키우며 자녀들의 성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체크하며 생명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2	우리가 지켜주는 권리(가정과의 연계) –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아동 권리존중 생존권 안내 /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UCC

심은 씨앗을 돌봐 줘요.	부모님의 편지

아동 권리존중 생존권 실천

8	우리가 가진 권리 – 쭉쭉 쑥쑥 마사지

활동명	쭉쭉 쑥쑥 마사지	권리조항	생존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활동목표	1.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방법으로 베이비 마사지에 관심 갖는다. 2. 베이비 마사지를 통해 아동 권리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을 안다.		
표준보육 관련요소	기본생활 > 건강하게 생활하기 >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내 가족 알기		
활동자료	매트, 큰 타올, 베이비 마사지 오일		
활동방법 – 지식	1. 베이비 마사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마사지는 어떻게 하는 걸까? - 마사지를 하면 어디에 좋을까? 우리 기분은 어떨까?		
활동방법 – 기술	1. 베이비 마사지 방법과 준비물을 소개한다. - 마사지를 하기 위한 준비물을 살펴보자. - 베이비 마사지 순서에 맞게 마사지를 해 보자. 2. 쭉쭉 쑥쑥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마사지한다.		
활동방법 – 태도	1. 마사지 해 본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2. 가정에서 함께 마사지를 해 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 나눈다.		
활동사진			
평가	영아들에게 손과 얼굴에 마사지를 해 주며 교사와 영아 사이에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활동 중 영아들이 교사의 손길에 간지러워하며 몸을 움직이기도 하였지만 얼굴 마사지를 할 때는 긴장감이 해소되며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이 마사지 받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3	우리가 지켜주는 권리(가정과의 연계 및 부모참여) – 쭉쭉 쑥쑥 마사지

아동 권리존중 생존권 안내

아빠와 함께 해요.

부모님의 편지

아동 권리존중 생존권 실천

4	우리가 가진 권리 – 즐겁게 놀아요

활동명	즐겁게 놀아요	권리조항	발달권 신나게 놀면서 배울 권리
활동목표	1. 놀이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고 실행한다. 2. 내가 좋아하는 놀이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표준보육 관련요소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좋아하는 것 해 보기 신체운동 >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활동자료	에어 바운스, 바람개비, 비눗방울(큰 비눗방울대, 작은 비눗방울대, 비눗방울 액), 수조, 수건, 페이스페인팅 재료, 판박이, 분무기, 원에서 준비한 점심 뷔페		
활동방법	지식	1.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날'의 의미를 알아본다. 2. 가족과 함께 놀이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포스터를 만든다.	
	기술	1. 비눗방울 도구를 사용하여 즐겁게 놀이한다. 2. 페이스페인팅과 판박이 스티커로 놀이한다. 3. 내가 꾸민 바람개비를 돌리며 놀이한다. 4. 에어 바운스에서 걷고, 점프하고, 미끄럼을 타며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한다. 5. 여러 가지 풍선을 사용하여 놀이한다. 6.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여 친구들과 맛있게 먹는다.	
	태도	1. 다양한 놀이에 참여한 느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본다. 2. 우리에게는 '즐겁게 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한다.	
활동사진			
평가	놀 권리에 대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날의 의미'와 '놀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영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영유아들이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고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하여 즐길 수 있었다. 다음 활동에는 영아와 유아의 놀이 수준을 고려하여 놀이를 계획하도록 하여야겠다.		

4	우리가 지켜주는 권리(가정과의 연계 및 부모참여) – 즐겁게 놀아요

아동 권리 존중
엄마아빠 함께 놀아요

이번 보라데이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방달권(놀권리)에 주제를 맞추어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놀이 할 수 있는 "동글동글 과자나라"를 보내드립니다.
(팡구과자, 곤, 패키지에 대한 안내문, 감동의 편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 한 후 키즈노트에 사진을 올려주세요.
(감동의 편지에는 놀이 후 느낌점과 좋았던점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투표를 통하여 엄마아빠와 가장 재미있게 놀이한 가정이 5월의 보라왕으로
선정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놀 아이들이 행복한 권율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① 가족과 함께 "동글동글 과자나라"종이를 접어봅니다.
② 과자를 손가락에 끼우며 놀이해본다.
③ 엄마,아빠의 입속에 넣어주기도 하고 귀에도 넣어 놀이해본다.
④ 종이 과자를 마음껏 다양하게 놀이해본다.

권율어린이집

아동 권리존중 방달권 안내 / "엄마, 아빠 함께 놀아요." 놀이 방법 안내

과자로 놀이해요.

"설아 수호와 함께 놀아요"

4살 수호는 먹는것에 더 집중했었답니다~^^

6살 설아는 "나는 목걸이를 만들거야"라고 말하며

만들기에 성공했답니다! 박수를~~

나는 "엄마를 그릴래에요"라고

꾸미기 시작!!

설아는 과자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완성한 설아, 수호, 엄마 작품!

부모님의 편지

아동 권리존중 방달권 실천

5	우리가 가진 권리 – 아동 권리존중 노래 “싫단 말이야!”

활동명	아동 권리존중 노래 “싫단 말이야!”	권리조항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활동목표	1. 노래를 부르며 ‘아동 권리존중-참여권’에 관심을 갖는다. 2. 노랫말에 맞추어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에 참여한다.		
표준보육 관련요소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좋아하는 것 해 보기 예술경험 > 예술적 표현하기 >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활동자료	‘싫단 말이야!’ 음원, 교사 율동 동영상		
활동방법	지식	1. ‘싫단 말이야!’ 노래를 들어보고 참여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노래 가사에서 무엇이 싫다고 했니? -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니?	
	기술	1. ‘싫단 말이야!’ 교사 율동 동영상을 감상한다. 2. 노래에 맞춰 다 함께 율동을 해 본다.	
	태도	1. 노래와 율동을 함께 해 본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니? 2. 노래와 율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해 본다.	
활동사진			
평가	영아들이 노랫말에 맞추어 동작을 표현하며 즐거움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었다. 영아들에게 ‘싫단 말이야!’ 노래를 반복하여 들려주었더니 ‘싫단 말이야!’라는 노랫말이 나올 때마다 율동과 노래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식사 시간에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영아에게 “싫단 말이야!” 노래를 불러 주며 밥과 국을 따로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 영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었다.		

5	우리가 지켜주는 권리(가정과의 연계 및 부모참여) 아동 권리존중 노래 “심단 말이야!”

다 함께 노래와 율동을 배워 보아요.	부모님의 편지
 아동권리존중 - 참여권 왜 국에 밥말았어 심단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국에 말아줘~~ 꼬옥 그래야돼~! 아동권리 존중! 어렵지 않아요. 먹는 것에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 줄 수 있답니다. 아이들과 '심단말이야' 체조를 해보았어요. 가정에서도 함께 체조해 보신 후 6월 9일 부모참여수업 때 다함께 플래시몹을 하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심단말이야 플래시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권율학부모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 (플래시몹이란? :다수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	 댓글 6 윤[ ] 아빠 5.26 오후 2:52 웃고 힘내고 갑니다..^^ 변[ ] 아빠 5.26 오후 3:03 걸그룹 데뷔 축하드립니다^^ 이거 외워서 아이하고 같이해야겠습니다~ 손[ ]맘 5.26 오후 3:19 고생이 많으십니다ㅎㅎ 윤[ ] 엄마 5.26 오후 4:15 어렵지않네요.집에서 따라해봐야겠네요~~ 장[ ] 엄마 5.28 오후 9:48 ㅋㅋㅋ 장[ ]3 오후 9:48 어렵네요ㅋㅋ ;;; 즐겁게 보고갑니다^^
아동 권리존중 참여권 안내	**아동 권리존중 참여권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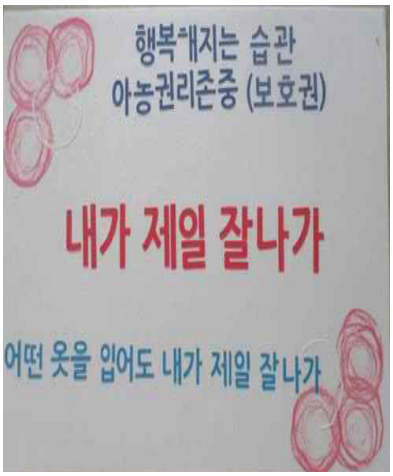
플래시몹 - “다 함께 추면 좋단 말이야!”

아동 권리존중 참여권 실천

6	우리가 가진 권리 – 내가 제일 잘 나가!

활동명	내가 제일 잘 나가!	권리조항	보호권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활동목표	1. 좋아하는 의상과 소품을 사용하여 나를 꾸미고 패션쇼를 즐긴다. 2.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아동 권리존중 – 보호권'을 실천한다.		
표준보육 관련요소	예술경험 > 예술적 표현하기 > 모방과 상상 놀이하기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내 가족 알기		
활동자료	무대, 배경 이미지(엘사, 안나, 타요, 뽀로로,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패션쇼 의상 및 소품, 배경 음악, 풍선 장식		
활동방법 – 지식	1. '내가 제일 잘 나가!' 활동을 소개한다. - 패션쇼는 무엇일까요? - 패션쇼를 본 적이 있나요? - 내가 좋아하는 옷과 소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활동방법 – 기술	1. 패션쇼 방에 준비된 여러 가지 의상 및 소품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소품을 골라 나를 꾸며 본다. 2. 음악에 맞춰 무대를 걸으며 패션쇼를 해 본다.		
활동방법 – 태도	1. 영유아들이 색다른 옷을 입고 패션쇼 놀이를 해 본 소감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본다. 2. 가정에서도 영유아들이 차별 받지 않고 놀이하며 '보호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약속해 본다.		
활동사진			
평가	자신이 선택한 옷을 입고 레드카펫을 걸으며 그 누구보다 행복해 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옷을 선택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선택한 옷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고 있으며 부모에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였다.		

6	우리가 지켜주는 권리(가정과의 연계 및 부모참여)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동 권리존중 보호권 안내

멋지게 레드카펫을 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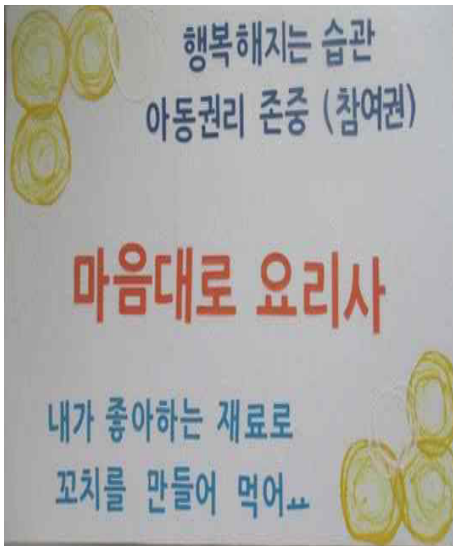
부모님의 편지

아동 권리존중 보호권 실천

7	우리가 가진 권리 – 마음대로 요리사

활동명	마음대로 요리사	권리조항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활동목표	1.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음식 꼬치를 만들어 먹으며 즐거움을 경험한다. 2.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아동 권리존중 - 참여권’을 실천한다.		
표준보육 관련요소	기본생활 > 건강하게 생활하기 > 바르게 먹기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내 가족 알기		
활동자료	방울토마토, 캠벨, 청포도, 네모치즈, 마시멜로, 비엔나소시지, 초코시럽, 위생 장갑(유아용, 성인용), 꼬치, 접시		
활동방법 지식	1. 여러 가지 음식으로 꼬치를 만들어 본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 꼬치를 만들어 보았나요? - 어떤 음식으로 꼬치를 만들어 보았나요?		
활동방법 기술	1. 음식 꼬치 만들기 재료를 소개한다. 2.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접시에 담은 후 책상으로 이동하여 엄마, 아빠와 함께 음식 꼬치를 만들어 본다.		
활동방법 태도	1. 가족과 함께 음식 꼬치를 만들어 본 소감을 이야기 나눈다. 2. 가정에서도 영유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놀이에 참여하며 ‘참여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약속해 본다.		
활동사진			
평가	부모님들께 ‘마음대로 요리사’ 활동에 녹아 있는 ‘아동 권리존중 – 참여권’에 대해 설명한 후 영유아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꼬치에 끼우며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말하고 맛을 즐기며 놀이할 수 있었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다려 주고 도움을 주며 놀이하였다.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부모와 영유아들이 아동 권리존중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며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활동 후에도 가정에서 아동 권리존중을 실천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약속해 보았다.		

7	우리가 지켜주는 권리(가정과의 연계 및 부모참여) – 마음대로 요리사



아동 권리존중 참여권 안내

내가 만든 꼬치를 가족과 함께!

부모님의 편지

아동 권리존중 참여권 실천

지역사회 연계활동

부대 슈퍼 방문 –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와 과자를 선택해요. (참여권)

부대 방문 – 자유롭게 놀이하며 건강하게 자라요. (발달권)

Ⅲ. 활동평가

1	자체평가

< 프로그램 활동관찰 및 전사 1 >	< 보육교직원 설문지 1 >

<프로그램 활동 관찰 및 전사 보고서>

활동명	돼지코놀이 (자유 놀이)	관찰자	차복자 (0세반교사)
영역	언어	기록한날	2017년 3 월 17일
목표	1. 반복되는 몸짓과 다른 몸짓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2. 신체의 부분 명칭을 들으며 탐색한다.		
관찰내용(전사내용)			
	- 동물(돼지)가면을 언어영역에 비치해 두었다. 수민이가 교구장을 탐색하더니 동물가면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을 시작했다. 교사가 수민이에게 다가갔다. T: 수민아~ 한 번 만아볼까? 으응~ 수민이 만아주니까 기분 좋구나~ (교사가 만아 주니 수민이가 만기에 활짝 웃는다.) T: 아유 우리 수민이 만은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 아유 우리 수민이 까꿍~ 수민이 선생님이 보니까 아유 너무 예쁘네~ 아유 선생님 보고 웃어 주는 거야? 아유 우리 수민이 웃는 것도 너무 예뻐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우리 수민이 입도 예쁘고~~~ 자~ 우리 수민이 눈 어디 있어~ 눈? (영아의 신체를 잡아가며 관련동요를 불러주었다) T: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귀는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 T: 어~수민이~ 오우~ 이거 꼴꼴 돼지 한 번 써 볼 까?(말하면서 교사가 먼저 돼지가면을 쓰고) 꼴꼴꼴, 어우 꼴꼴꼴, 어우 잘해~ 어우 잘 해 꼴꼴이 코 어디 있어~ 코, 코코코코코~ 꼴꼴이 코~ 선생님도 한 번 써 볼까요? 자어~ 꼴꼴이 꼴꼴꼴꼴~꼴꼴이 코 어디 있어~ 코 만져보세요~코코코코, 코~코~~~~ (선생님이 쓴 돼지가면에 얼굴 뚜어나온 코를 만져보게 했다) 수민: 엄마마~(돼지가면을 쓰고 수민이 얼굴에 가까이 하니 수민이가 뽀뽀를 해주었다. 수민이가 선생님이 쓴 가면을 달라고 동알이를 하며 손을 내밀었다. 수민이가 가면을 잡아 빼더니 스스로 머리에 잡어넣으려고 했다.)		
관찰자 평가	영아가 익숙한지 않은 활동에 탐색하고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영아의 주도적 활동에 대해 교사가 개입하여 구체적 언어로 상호작용하였고 짧은 시간에 반복된 언어로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 보았다. 교사가 먼저 모델링을 제공하여 영아가 놀이에 관심을 가졌고 모방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면을 쓰려고 하다가 소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았고 눈과 손의 협응이 유연하지 않아 가면을 쓰려다 포기하고 벗어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영아의 모방 활동에 격려하고, 목적성 있는 상호작용으로 영아의 다양한 활동 유도하여 관심도를 높여 보았다. 반복활동으로 영아의 흥미 유지를 지원해 주었다. 그럼에도 영아의 흥미가 짧아 더 확장은 하지 못했고 마무리 지었다. 다음시간에 계획해서 확장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반복해서 활동에 익숙해져 스스로 주도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		
지도내용	·수민이의 반응을 더 많이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다. ·반응이 없어도 계속 유발시킨점이 좋았다 ·손유희,노래가 수업에 앞도록 해주면 더 좋겠다. ·사소한 행동을 언어로 피현을 해주면 좋겠다.		

영유아 권리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한 교사용 설문지 - 동료장학)

보육교육 환경	상호 협력적이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료장학은 동료 교사와 생각을 나누고, 서로 돕거나 어려운 점들을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처럼 동료장학은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초로 형성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 권리이해와 권리실천에 도움을 준다.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며 상호 협력, 배려, 나눔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활동명)	2017.03.17 돼지코 놀이 (전사)
권리존중 및 침해상황	'돼지코 놀이' 활동을 하면서 영아의 언어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권리존중 및 침해 상호작용 및 행동	영아가 활동을 좋아하 다음용으로 관심을 돌리자 교사가 영아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영아의 반응을 관찰하지 않고 교사가 계획한대로만 밀어붙여 상황을 하였다.
동료교사의 반응	영아의 반응을 조금 더 피드백해주고 영아가 반응하는 부분에 맞춰 천천히 진행했어 좋았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다.
권리존중에 대한 나의 생각	영아의 언어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여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의 속도를 맞추고 영아의 반응을 충족해줌으로써 영아의 언어발달을 돕도록 하겠다.

자유놀이 시간에 영아들과 놀이하는 상호작용을 녹음한 후 전사하여 동료 교사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교사 장학을 통해 아동 권리존중에 대해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어떠하였는지 교사 설문을 통하여 조사해 보았다.

만 0세 반은 '돼지 코 놀이'를 통해 신체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료 장학을 통해 교사들은 언어보다 표정이나 몸짓, 행동 등으로 표현하는 영아들에게 교사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 주는 것이 영아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였고, 영아들과 놀이 시에는 영아의 발달 단계와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의성어나 의태어 또는 반복되는 말을 자주 사용해 주고, 언어의 속도를 낮추며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영아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의견에 생각을 모았다. 앞으로도 교사들은 놀이 시간에 영아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존중해 주며 영아 스스로 자유로운 탐색과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 아동 권리가 일과 속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프로그램 활동관찰 및 전사 2 >	< 보육교직원 설문지 2 >

사 랑 반 단 위 활 동 계 획

일 시	2017 년 03 월 23 일 목요일		
대·소 주 제	새로운 것이 낯설어요 / 만나고 친해져요		
활동영역	감각·탐색 영역	소요시간	5분 24초
활동대상	만 1세	그룹형태	3명
활동주제(명)	공기 매트 위에서 놀아요		
활동목표	◆ 공기매트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 손과 발을 이용하여 공기매트를 탐색한다.		
교육과정 관련요소	◆ 신체운동 >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몸 움직임 즐기기 > 몸을 활발히 움직인다. ◆ 신체운동 >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 감각기관으로 탐색하기 > 감각기관으로 주 변 환경을 탐색한다.		
활동자료	에어캡		
활동방법	● 에어캡을 길게 연결한 공기매트를 걸어보고 뛰어보며,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촉감과 소리를 탐색한다. − 선생님 손잡고 매트 위를 걸어볼까요? −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걸어보자. ● 공기매트 위에 앉아서 엉덩이를 움직여보거나 앉아서 손가락으로 그대로 눌러본다. − 엉덩이 걸음마로 움직여 볼까요? − 앉아서 손가락으로 꼬옥 눌러봐요. ● 공기매트 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놀이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볼까요? − 이번에는 살금 살금 기어볼까요? ● 활동을 마무리 하며 모두 제자리 노래를 들으며 정리해본다. − 교사가 모두제자리 노래를 불러준다. − 영아의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 정리해본다.		
활동평가	영아들과 에어캡을 활용하여 활동해보았는데 처음 보는 소재로 인해 영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보였다. 그런데 에어캡이 단단한 에어캡이여서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발로 밟으며 활동을 할 때에 소리가 잘 나지 않아서 활동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교사가 활동하는 것을 녹음을 하고 차근차근 들어보며 기록하는 것은 교사가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 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도평가	−목표,활동이 한눈에 보이는 것이 좋았으며 의태어가 다양했음 더욱 좋았을 것 같다. 또한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씩 불러주고 동요를 활용하여 활동에 유도한 점도 좋았다 −상호작용과 즉시적인 반응이 좋았고 영아들의 이름을 골고루 불러주어 좋았지만 '엉덩이쿵'의 활동이 더욱 안전한 활동으로 대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또 손으로 '꾹꾹꾹 꾹꾹꾹'을 조금 더 다양하고 흥미롭게 진행하였다면 좋았을 것 같다. −신체적으로 흥미를 유도하고 언어로 자극해주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이 좋았다.		

영유아 권리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한 교사용 설문지 - 동료장학)

보육교육 환경	상호 협력적이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료장학은 동료 교사와 생각을 나누고, 서로 돕거나 어려운 점들을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처럼 동료장학은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초로 형성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 권리이해와 권리실천에 도움을 준다.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며 상호 협력, 배려, 나눔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활동명)	2017.03.23 공기 매트 위에서 놀아요
권리존중 및 침해상황	(교사와 유아들의 상호작용 중) 유아들이 에어캡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며 교사가 유아들의 반응을 빨리 유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아들의 반응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교사가 활동을 주도 하였다.
권리존중 및 침해 상호작용 및 행동	[illegible]
동료교사의 반응	상호작용과 즉시적인 반응이 좋았고 영아들의 이름을 골고루 불러주어 좋았지만 '엉덩이 쿵'의 활동이 더욱 안전한 활동으로 대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권리존중에 대한 나의 생각	[illegible]

만 1세 반은 '공기매트 위에서 놀아요' 주제로 활동해 보았다.
담임교사는 영아·교사와 상호작용 과정을 전사하며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영아들의 놀이에 개입하고, 놀이를 진행하며 이끌어 가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였고, 놀이 중 교사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표준보육과정을 참고하여 주간 계획안 작성 시 '영아들의 수준과 발단 단계를 고려하여 주제 안에 영아의 권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놀이들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영아들이 놀이에 참여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교사가 자신의 활동 방법을 강조하여 영아 스스로 놀이에 참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기다려 주고 존중해 주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교사는 이런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음 활동에는 영아들의 말과 행동, 표정, 몸짓 등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여 '놀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고 다짐하였다.

< 훈육과 교육방법 설문지 1 >	< 훈육과 교육방법 설문지 2 >

영유아 권리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한 교사용 설문지 – 훈육과 교육)

보육교육 환경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넘어 존중받아야 할 주체자로 인식하는 보육실행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다. 하지만 보육현장 여건에 따라 교사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실행에 딜레마를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법과 시사점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돌발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등에서 훈육과 지도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시(활동명)	낮잠 시간
권리존중 및 침해상황	영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려 노력 중 낮잠 시간을 힘들어한다며, 잠을 자기 싫다며 울먹이고, 일지 않으려고 하는 영아가 있었다.
권리존중 및 침해 상호작용 및 행동	이런 영아에게는 하려 달래를 이야기하며 최대 오전 동안 이런 활동을 하며 휴식이 필요하고, 충식을 취함으로써 오늘에 아름다운 활동에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또한 자기 싫으면 억지로 안 자도 되니까 누워서 휴식을 취하라고도 말해 주었다.
아이의 반응	교사의 말에 수긍하며 "이제 또 놀 거야." 하고 말하고 이불 위에 누웠다.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요?" 하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며 영아를 옆에 재우고, 이내 편한 자세를 취하더니 잠이 들었다.
권리존중에 대한 나의 생각	영아의 권리를 존중하되, 영아의 의견과 다른 상황 또한 영아를 위한 권리 존중이 한 방법이라면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영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충분히 설득작업이 후 필요해 보인 것 같다.

영유아 권리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한 교사용 설문지 – 훈육과 교육)

보육교육 환경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넘어 존중받아야 할 주체자로 인식하는 보육실행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다. 하지만 보육현장 여건에 따라 교사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실행에 딜레마를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법과 시사점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돌발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등에서 훈육과 지도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시(활동명)	급간식 시간
권리존중 및 침해상황	영아가 과일 간식을 먹고 있었다. 이유식에서 고형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영아가 과일 덩어리를 먹고 삼키며 과일 덩어리를 뱉었다.
권리존중 및 침해 상호작용 및 행동	영아가 과일을 좋아 맛있게 먹어보도록 유도하기 '수박' 동요를 불러주고 "박수쳐서 달콤한 수박 먹는 게 냠냠 소리를 내며 교사가 같이 씹어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과일을 먹을수 있도록 격려했다.
아이의 반응	교사와 같이 먹으면서 영아도 같이 과일을 꼭꼭 씹어먹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과일 덩어리를 뱉었다.
권리존중에 대한 나의 생각	아동의 권리와 성향적을 존중하며 다양한 교수법으로 영아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을수 있도록 돕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음을 생각해 보았다.

다음은 교사가 '훈육과 지도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한 교사용 설문지의 답변이다.

교사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과 중 '낮잠 시간과 급·간식시간에 훈육과 지도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고 대답하였다.

'훈육과 교육'의 설문지 답변 중 교사는 영아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기 싫어하여 울먹이거나 떼를 쓰고, 이불에 눕지 않으려고 할 때 영아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영아에게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영아가 교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 눈을 맞추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스킨십 등의 방법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둘째 '훈육과 교육'의 설문지 답변 중 교사는 급·간식 시간에 영아가 음식을 거부하거나 음식을 뱉어내고, 편식을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급·간식과 관련된 동요를 불러 주고 영아가 다양한 음식의 맛과 색깔, 냄새, 모양 등에 관심을 가지며 눈, 코, 입, 귀 등의 오감을 사용하여 다양한 감각적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영아가 이유식에서 고형식으로 넘어가는 발달적 단계임을 생각하여 교사가 다양한 교수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영아가 즐겁게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원과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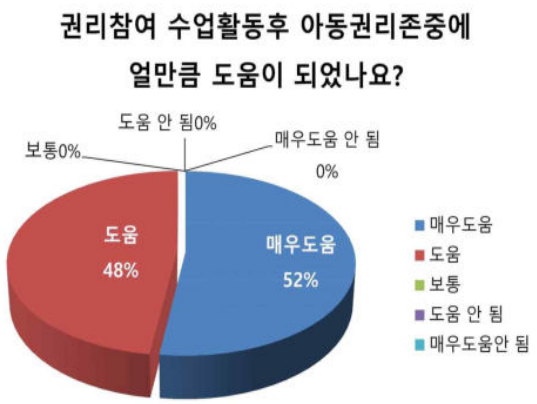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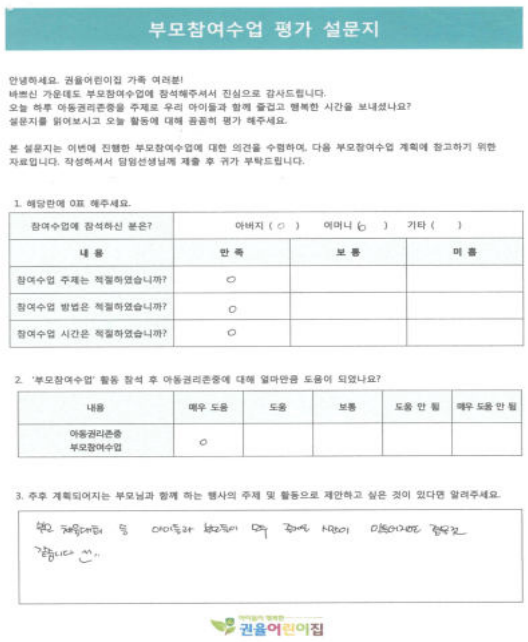
2	수요자 반응

1) 학부모

-조사 시기 및 대상

·조사 시기 : 2018년 6월 9일

·대상 : 권리참여수업 참석한 학부모

<권리참여 수업 활동 후 설문지의 답변>	<권리참여 수업 설문지>
	

부모참여수업 평가 설문지

안녕하세요. 권율어린이집 가족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부모참여수업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동권리존중을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설문지를 읽어보시고 오늘 활동에 대해 공공히 평가 해주세요.

본 설문지는 이번에 진행한 부모참여수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부모참여수업 계획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후 귀가 부탁드립니다.

1. 해당란에 O표 해주세요.

참여수업에 참석하신 분은?	아버지 (○) 어머니 (○) 기타 ( )		
내 용	만 족	보 통	미 흡
참여수업 주제는 적절하였습니까?	○		
참여수업 방법은 적절하였습니까?	○		
참여수업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		

2. '부모참여수업' 활동 참석 후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나요?

내용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 됨	매우 도움 안 됨
아동권리존중 부모참여수업	○				

3. 추후 계획되어지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행사의 주제 및 활동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로 체험여행 등 아이들과 보호자의 단독 참여 사람이 미흡하여서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ㅠ..

권율어린이집

'부모참여수업 - 아동 권리존중' 활동에 참여한 23명의 부모님이 작성한 설문지에서 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권리로 물들다' 프로그램과 가정통신문, 가정 연계 활동, 보육 활동 등이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며 아동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실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답변을 주신 부모님의 52%는 여러 가지 아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리에 대한 쉬운 안내와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참여수업으로 인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하였다. 48%의 부모님들은 처음 아동 권리 존중이라는 프로그램이 다소 난해하고 생소하게 느껴졌으나 활동을 진행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음에 나머지 48%의 부모님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쭉쭉 쑥쑥 마사지’ 놀이를 통해 부모가 아이와 신체 접촉하며 서로가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 아빠도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실천하며 배우는 시간과 부모교육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적어주신 권리존중 평가>

8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본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는 권리의 주체임을 알고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보육 교직원의 민감한 상호작용을 활용한 보육 과정은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데 아동 권리존중을 위한 기술과 태도를 익히고 실천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는 아동 권리존중의 의무 이행자로서 영유아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을 하여야 한다. 이때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아동 권리존중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아동 권리존중을 실행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존중 받고, 보육 교직원도 함께 존중 받으며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권리존중으로 물드는 시간이 될 것이다.

Ⅳ. 프로그램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

2018년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앞서 2017년에는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와 어린이집 내 안전교육을 통한 영유아 권리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아직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유아가 가정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실행한 후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권리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하여 입상을 하였다. 안전권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영유아들이 자기 스스로 권리를 알고 실행하려면, 스스로 권리를 알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권리로 물들다’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이 교육과 훈육사이의 딜레마, 부모님의 “스스로 하겠다면 다 하라고

해야하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권리의 중요성과 함께 의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2019년에는 권리의 실천자들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워 진행해 볼 예정이다.

‘권리로 물들다’ 프로그램은 2017년에는 안전을 통해 ‘권리와 마주하는 해’로 시작하여 2018년에는 ‘권리로 물드는 해’ 2019년에는 ‘권리가 가득 찬 해’로 안심보육환경을 위한 권리 중장기 3개년 계획을 통해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가 권리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V. 참고문헌

김윤정(1988).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권리에 관한 기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2015).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권리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서정은(2000).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도레(2016). 어린이집 일과에서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및 교사의 갈등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은혜(2017).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및 어려움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6). 2016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아이의 시간, 성장의 비밀

2011년 제 1차 육아선진화 포럼, 영유아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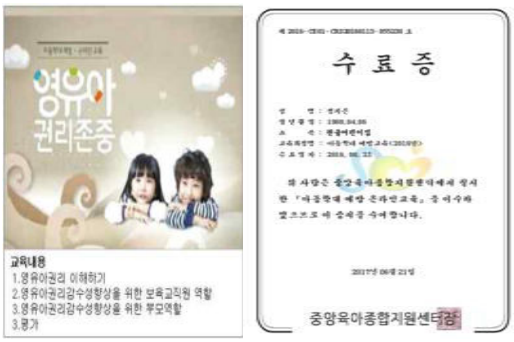
백우정(1993). 아동권리의 발전과정에서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벌점 1	보육 교직원의 아동 권리 존중을 위한 시간

베이비 마사지 교육

존중과 공감의 영아 보육 교육

보육 교직원 안전 교육



영유아 권리 존중 온라인 교육

벌점 2	교사의 권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영화 관람

네일아트

만2세 행복기쁨반 일일보육계획안

담임	담임	원장

날 짜	6월 1일 (목)	날 씨	흐림
목 표	*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몸의 여러 부분을 관찰하고 탐색한다.	대주제	나는요
		소주제	내 몸을 살펴보아요

시간 및 활동명	활동 및 활동내용	활동자료	실시된 활동 및 평가
07:30 ~ 09:00 등원 및 및 통합보육	(보육실 환기하기) [등원] 내 사물함에 옷, 가방 넣어보기 - 영아들의 몸 상태와 투약, 전달사항을 확인한다. - 내 사물함에 옷과 가방을 넣어 정리해본다. [기본생활습관] 더러워진 옷 갈아입기	키즈노트 투약의뢰서 가방 체온계	등원 한 영아들에게 교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 한 후 가방에서 도시락 가방을 꺼내서 각
09:00 ~ 09:30 배변활동 및 손 씻기 오전간식	[배변] 배변 후 손 씻기 - 스스로 옷을 내리고 배변을 한다. - 배변을 한 후 손을 씻는다. [간식] 내 자리에 앉아서 먹기 - 간식 먹기 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보육실 환기하기)	<오전간식> 치즈죽	
9:30 ~ 10:30 실내 자유놀이 및 정리정돈	◎ 오전 실내 자유놀이 활동영역 / 활동명 신체영역 / 마사지를 해요 언어영역 / 놀이책 「표정이 변해요」 감각·탐색영역 / 내 몸을 살펴보아요 역할·쌓기영역 / (역할) 색반죽을 만들어 보아요 (쌓기) 종이벽돌블록으로 내 키만큼 쌓아 보아요 미술영역 / 내 얼굴 따라 그려 보아요 음률영역 / 음률 게임 「누구일까요?」 (신체: 마사지를 해요) 목표: 마사지를 받으며 신체 부분의 명칭에 관심을 갖는다. 소근육을 사용하여 또래의 신체를 주물러 준다. 신체운동 >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안다 신체운동 >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 소근육 조절하기 >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본다 1. 매트에 누워 교사의 마사지를 받는다. 2. 마사지를 받으며 감각에 대해 언어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3. 또래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 (미술: 내 얼굴 따라 그려 보아요) 목표: 내 얼굴 모습에 관심을 갖는다. 내 얼굴 모습을 따라서 그려본다.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구별하기 >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구별한다 예술경험 > 예술적 표현하기 > 자발적으로 미술활동하기 > 자발적으로 그리기, 만들기를 한다 1. 활동자료를 자유롭게 탐색해본다. 2. OHP용지 아래로 비쳐보이는 영아 얼굴을 보며 함께 이야기나눈다. 3. 보드마카를 이용하여 사진이 비쳐지는 OHP용지 위에 끼적여본다. [정리정돈] 정리노래를 들으며 정리해요 - 정리 노래를 들으며 정리정돈을 한다.	쿠션감이 있는 매트 놀이책 「표정이 변해요」 우리 몸 판 다양한 물이기 자료 천사점토 사인펜 종이벽돌블록 인쇄한 영아 얼굴 사진 OHP 용지 사인펜 「누구일까요?」 가사판	(신체) 매트에 누워 있는 00를 보고 "00아! 선생님이랑 조물조물 마사지 해 해볼까요?" 라고 묻자 "영아가네!" 라고 대답하였다. 영아가 긴장하지 않도록 교사가 영아의 어깨, 팔, 손 신체 부위의 이름을 말해주며 천천히 마사지를 해 주었다. "00이 어깨네. 어깨를 부드럽게 쑥쑥~쭉쭉~건강하게자라요, 팔도 쑥쑥~ 쭉쭉~건강하게 자라요" 라고 말하며 마사지해주자 영아가 웃으며 교사와 눈을 맞추고 미소 지었다. 교사가 반복하여 마사지 해주며 손, 팔, 다리 등의 명칭을 불러주자 영아가 스스로 손, 팔을 내밀고 다리를 들어 교사의 말에 반응하였다. 마사지 놀이를 통하여 영아가 자신의 신체 각 부위의 명칭을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영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권리존중 생존권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마시지 놀이 후 친구에게도 교사와 함께 손을 마사지 해주며 사회관계도 증진시킬 수 있었다.
10:30 ~ 11:30 실외활동	[배변] 배변 후 손 씻기 [실외활동] 친구와 하늘 높이 풍선 던지기 목표: 다양한 방법으로 풍선을 가지고 놀이한다. 다양한 신체 부위를 움직이며 조절해본다. 신체운동 >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본다 신체운동 >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 대근육 조절하기 > 팔, 다리, 목, 허리 등 움직임을 조절한다 1. 다양한 색의 풍선을 탐색해본다. 2. 자유롭게 놀이하며 풍선을 던져 본다. 3. 영아가 흥미를 느끼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높이 던져 보기도 하고 교사와 함께 동시에 던져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선을 던져 본다.	비상약 휴지 카메라 물티슈 위생봉투 여벌옷 풍선 고무줄	오늘은 풍선을 이용해 활동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비가 올 것이란 일기 예보대로 날씨가 흐려서 원 앞 놀이터에서 노래를 들으며 신체를 움직이고, 자유롭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변경하여 진행되었다. 교사와 함께 노래에 관한 율동을 따라 춰 보기도 하고, 두 팔을 펼쳐서 선 따라 걸어보기도 하고, 순서를 지켜 미끄럼틀을 타기도 하며 즐겁게 실외활동을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신발을 정리하였다.

권리 존중 활동 실행 및 평가

및 연계	지역사회 연계	가정과의 연계: 가족과 함께 목욕하며 서로의 몸에 관심 갖고 자연스럽게 탐색해보기

※ 영아의 흥미에 따라 보육내용이나 진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Ⅵ. 참여 후기

권솔어린이집 교사 후기1

아동권리보다 아동학대란 단어가 더 쉽게 와 닿아 있는 가운데 아동에게 권리가 주체적이어야 하고 아동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함을 많이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세분화 된 프로그램을 통해 권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어 프로그램을 마칠 때 쯤에는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했다는 자부심과 감동이 밀려 왔다.
선생님들과 고민하고 연구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영유아들을 알아가고 부모를 알아감으로 더욱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동의 권리를 7차시까지 하면서 본인이 맡았던 '쭉쭉 마사지'란 주제로 베이비 마사지를 하면서 권리를 존중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영아들에게 신체적 접촉이 학대가 아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 줌으로 영유들의 신체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부모님 참여수업으로 연계하여 부모님들이 영유아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사지를 해 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 행복했던 것 같다.

아동권리 존중 노래를 부르며 노랫말에 맞추어 반복해서 춤을 추며 노랫말에 대한 의미를 몸으로 익혀 영유아들의 올바른 식습관에 형성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유아, 부모님들과 함께 플래시몹을 함으로 아동 권리존중 참여권에 대한 실천이 다 함께 즐겁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기억에 남고 모두가 함께 아동 권리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이 어린이집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유아 자신들, 부모님 모두와 함께 동참하며 진행되었다는 것이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권리로 물들다'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이 일회성 프로그램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소 행해졌고 몸으로 기억했기에 잊지 않고 아동권리 존중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제목 그대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켜 줄 수 있고 물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권율어린이집 교사 후기2

오랜 시간 교사로 근무하며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아동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권리로 물들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교사들이 먼저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4대 기본권과 원칙,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는지 실천방법과 가정연계 방법에 대해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교사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다.

교사가 아동권리에 대해 공부하며 매일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표준보육과정을 더 세심하게 찾아보고 전공 서적이나 논문, 온라인 사이트까지 찾아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런 시간을 거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은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임을 상기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게 되었다.

또한 실천 프로그램을 부모님,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하여 실천하며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이 교사도 함께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존중을 받고 더 소중한 존재로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권리로 물들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후 부모님들과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아이, 교사,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에게 '권리로 물들다' 프로그램의 끝은 없다. 앞으로도 권율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이들과의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아동의 권리를 소중하게 지켜주고 함께 실천하여 권리가 물드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애쓰려 한다.
고맙습니다.

권솔어린이집 부모 후기1

어린이집에서 권리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하여 아직 나이어린 아이들과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어느날 '엄마 나도 물을 혼자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라고 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린이집에서 무엇인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냥 엄마가 따라주는 거 마셔, 흘리면 옷 다 젖잖아'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내 아이를 더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아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들어주고 해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작고 사소한 것 붙어 시작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집에 혼자 두고 마트가지 않는 것, 언니와 차별하지하지 않고 꼬옥 안아주는 것, 골고루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등 어린이집에서 보내준 동영상과 참여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참여 수업 때 한 패션쇼가 가장 즐거웠다. 아이들도 엄마도 즐겁게 권리존중에 대해 체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매번 올라오는 권리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읽으며 가정에서 내 아이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나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크게 무언가를 해주기 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고 싶은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권솔어린이집 부모 후기2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에서 권리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을 때 저 또한 권리라는 단어만 가지고 선생님이 유도 해주시는 대로 따라하는 것에 그쳤던 것 같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권리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해주셨을 때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말에서 교육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한 가지의 예로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엄마! 꽃은 다 예쁘지!? 그래서 함부로 꽃을 꺾으면 꽃이 아프지?"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나 또한 아주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겨야한다는 것에 그냥 지나쳤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우리 아이에게 평소에도 나부터 작은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싫단 말이야" 활동이 가장 감명 깊었던 활동 중 하나였다. 평소 아이들의 식사시간이 제일 나에게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에도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러한 활동 전 까지도 국에 대충 밥을 말아 먹여주고 있던 나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고 이러한 말을 할 때 또 한 번 뉘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우리 선생님들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아이의 부모로써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부모가 함께 하는 권리 교육 이였던 것 같다.

청(聽)진기

고양시
시립 소나무어린이집

Ⅰ.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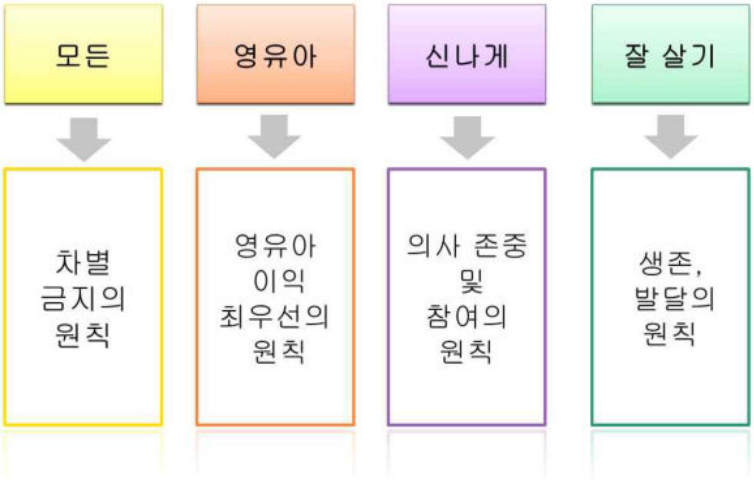
1.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와 안전한 보호를 위한 관심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영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 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변화된 인식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동방임, 폭력, 실종 등 아동에 관련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아동권리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영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성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 적인존재로 바라보거나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편견, 지속적으로 가르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김영명 외 7명, 2019) 탈피하여 아동이 하나의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김은옥,2018).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한 아동의 경험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들에게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협력적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장희수, 2009), 보육현장에서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본원에서는 영유아의 입장에서 의사표현을 지지하고 존중하기 위해 '청(聽)진기' 아동 권리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경청(聽)'에 뿌리를 두어 계획해 보았다. 경청을 잘하려면 귀(耳)와 눈(目)이 함께 힘을써야하는데 눈(目)위에 열(十)이 있는 것은 눈이 열개인 것처럼 집중해서 듣고,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한(一) 마음(心)이 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王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공감 해 주는 것이다. 아직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서툰 영유아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다 더 가까이 들어주고 공감하며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2.프로그램의 실시배경(이론적배경)

1) 아동 권리 존중 교육의 정의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권 즉,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권리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며 자격을 논하지 않아야 한다(강민지, 2010).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의사표현과 감정을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해 주어야 한다. 영유아가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두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1990년 9월 2일 발효한 아동권리협약은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출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과 교육 (P9, 창지사)

① 생존권

영유아가 삶을 누리는데 가장 필요하고 기초적인 권리로서 생명유지, 의식주 해결, 의료 서비스 지원을 받을 권리이다.

② 보호권

모든 아동은 연령과 발달의 특성상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③ 발달권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써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로 문화, 정보, 생각,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이다.

④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능력을 밑바탕으로 한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이다. (정미영, 2017; 김진숙, 2009). 아동권리교육은 영유아가 사회화를 통해 단순한 지식습득 및 학습기술을 익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삶의 일부분을 구성 해 나가며 얻는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증대되며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로 함께 협력・조율・배려・나눔・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발달특성에 따른 영유아 권리 존중

영유아시기에는 급격한 성장발달을 이루게 되며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발달특성에 맞는 자극을 통하여 얻는 경험, 관심 등은 영유아 스스로 권리를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① 영아기

신체적・정신적 건강, 정서적 안정, 문화적・인격적 정체성, 능력 개발의 기초 단계로 (김영명 외7명, 2019)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이지만 발달은 느리게 진행되며 이때의 경험은 영아의 언어, 사회정서, 인지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이지영,2011).

② 유아기

감정을 관장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역할을 맡은 편도체, 대상회, 해마 등으로 구성된 변연계가 성장하는 시기로 강한 정서적 애착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를 점차 형성해 나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토대인 공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발달(김영명 외7명, 2019)하게 된다. 대인관계 속에서 유아는 또래와의 문제 해결에 직면하여 스스로 갈등상황을 조정하여 해결 하거나 사회적 통념 및 약속에 대해 인지하고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 성장발달경험은 영유아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밑바탕으로 형성 된다. 영유아가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의 주변을 탐색하고 느끼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느낌에 공감하며 이해하고, 생각을 잘 드러내도록 허용하여 북돋아 주어야 한다. 또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여 영유아의 의견이 실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서영숙 외, 2009a) 아동권리존중교육은 영유아의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적절한 양육과 발달을 지원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Ⅱ.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 기간

‘청(聽)진기 아동권리 존중’ 프로그램은 2019년 4월부터 시작되어 2019년 9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 활동 대상

본 어린이집의 재원 중인 만 0~5세 까지 영·유아 75명, 부모, 보육교직원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9월 기준)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통합반	합 계
2반	2반	2반	1반	1반	1반	1반	10반
6명	10명	14명	15명	13명	15명	2명	75명

3) 프로그램 연간 계획안

‘청(聽)진기’ 아동 권리 존중 프로그램 연간계획안

	주 제	아동 권리	영아 활동명(만0,1,2세)	유아 활동명(만3,4,5세)
4	내가 알아보는 마음의 소리	발달권	나는 누구일까요?	마음의 소리가 뭐에요?
		참여권	나에게는 여러 가지 표정이 있어요.	감정 신호등을 알아보아요.
		보호권	우리는 자라고 있어요.	나는 소중해요.
5		생존권	여러 가지 기분이 있대요.	굿바이~ 미세먼지!!
		발달권	[리듬 Day①] Hear Day (쫑긋데이) :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	
6	내가 표현하는 마음의 소리	발달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참여권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내 놀잇감을 소개해요.
		보호권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칭찬 받고 싶어요.
7		생존권	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폭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요.
		참여권	[리듬 Day②] Slow Day (엉금엉금데이): 마음을 천천히 표현해요	
8	내가 지켜주는 마음의 소리	발달권	나부터 시작해요	마음의 소리를 지키는 방법
		참여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신발을 지킬 수 있어요.
		보호권	모두가 행복해 지는 약속 (규칙)	나는야 소나무 지킴이
9		생존권	나를 지켜주는 약속 (규칙)	‘태풍’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보호권	[리듬 Day③] Protect me Day (살금살금데이): 나를 보호해요	

	주 제	아동 권리	영아 활동명(만0,1,2세)	유아 활동명(만3,4,5세)
10	나와 다른 너의 마음의 소리	발달권	어떤 표정이니?	가족 마음의 소리를 알아보아요.
		참여권	함께 소리 내어요.	전화기로 들리는 친구의 마음
11		보호권	다르지만 같아요.	예쁜 말로 표현해요.
		생존권	마주보고 손 내밀어요.	지구가 아파요(분리수거)
		발달권	[리듬 Day④] Sensitivity Day (긍긍데이): 세심히 살펴봐요	
12	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	발달권	마음 나누고, 더하고, 보태기.	우리! 함께! 행복!
		참여권	오늘 기분은 내가 정해요.	나도 도울 수 있어요.
1		보호권	우리? 우리!	동생들과 함께 해요.
		생존권	두 가지 마음, 하나의 시선	무서운 추위를 이겨내요.
		참여권	[리듬 Day⑤] Sharing Day (뭉게뭉게데이): 나누면 더 커지는 마음	

4) 활동방법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님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영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지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자율적인 탐색을 도우며 발달특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정, 지역사회, 어린이집이 함께 아동의 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 해 보았다.

영•유아	교사	부모	지역사회
• 아동 권리 관찰 사전조사 • 연령별 발달수준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활동 • BioRhythm에 따른 Rhythm Day 실시	• 아동권리존중 인식 전/후 조사 실시 • 동료교사와의 정보 교류 및 나눔 • 보육교직원 힐링 동아리 활동 지원	• 부모교육자료 배부 •원내 부모 재능 기부 •원내 부모 참여 수업 실시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연계활동	• 작은도서관, 인성예절버스, 동화를 통한 인성교육, 경로당방문, 소방안전체험, 다문화 교사 방문 교육 등 지역과 연계하여 자원 활용하여 활동함

최근 영유아의 인권 신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영유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대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 제도 도입의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의 1-1영유아 권리존중을 토대로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독려 하였다.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부모님의 원내 아동권리 프로그램에 참여율을 높였으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영유아가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아동권리존중 교육 계획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1) 영유아 사전조사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인성교육
영아 사전·사후 관찰 체크리스트

관찰유아	0 0 0(남)	생년월일	2016년 01월 01일	관찰자	신성영

평 가 항 목			실행 전(2019년 3월)			
			1	2	3	4
아동권리 4대 기본권	발달권	소소로 선택한 놀이나 놀잇감을 즐긴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본다.				
	참여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 표현을 한다.				
		자신이 속한 반의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보호권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생존권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평 가 항 목			실행 중(2019년 9월)			
			1	2	3	4
아동권리 4대 기본권	발달권	소소로 선택한 놀이나 놀잇감을 즐긴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본다.				
	참여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 표현을 한다.				
		자신이 속한 반의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보호권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생존권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평 가 항 목			실행 후(2020년 2월)			
			1	2	3	4
아동권리 4대 기본권	발달권	소소로 선택한 놀이나 놀잇감을 즐긴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본다.				
	참여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 표현을 한다.				
		자신이 속한 반의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보호권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생존권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인성교육
유아 사전·사후 관찰 체크리스트

관찰유아	0 0 0(여)	생년월일	2013년 05월05일	관찰자	유효원

평 가 항 목			실행 전(2019년 3월)			
			1	2	3	4
아동권리 4대 기본권	발달권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유아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참여권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유아가 차례를 지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보호권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한다.				
	생존권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평 가 항 목			실행 중(2019년 9월)			
			1	2	3	4
아동권리 4대 기본권	발달권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유아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참여권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유아가 차례를 지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보호권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한다.				
	생존권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평 가 항 목			실행 후(2020년 2월)			
			1	2	3	4
아동권리 4대 기본권	발달권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유아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참여권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유아가 차례를 지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보호권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한다.				
	생존권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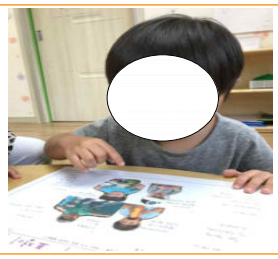
※[출처] -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 만4세 발달체크리스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0-1세, 2세), 보건복지부

2) 영유아 아동권리 활동

① 영유아 수준별 아동권리 교육

유엔아동권리 위원회(2005)에서 말한바와 같이 영유아기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영유아는 발달수준에 따라 권리의 차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영유아들과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영아는 일상생활에 속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해 보면서 언어적 표현이 부족하더라 해도 몸짓언어로 다양한 표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아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분기별 실행한 '리듬데이'는 전체연령이 함께 모여 활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의 권리뿐 아니라 친구, 형님 또는 동생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 권리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만0세 만1세			
	우리는 자라고 있어요 <보호권>	좋아요! 싫어요! <보호권>	내가 할 수 있어요 <참여권>
만2세			
	나는 누구일까요? <발달권>	다양한 표정이 있어요 <참여권>	행복해지는 약속 <보호권>
만3세			
	마음을 표현해봐요 <발달권>	장난감 데이 <참여권>	굿바이~ 미세먼지!! <생존권>
만4세			
	감정 신호등 <참여권>	내 신발 지키기 <참여권>	나를 지켜요 <생존권>
만5세			
	장난감 데이 <참여권>	칭찬 받고 싶어요 <보호권>	마음의 소리가 뭐에요? <발달권>

◇ 한빛반(만5세) – 발달권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4월 한빛반(만5세) 아동 권리존중 활동 계획안

활 동 명	마음의 소리가 뭐에요? (뮤지컬 알사탕 관람 후 사후 활동)		
활동 목표	- 뮤지컬의 내용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 주인공의 표정을 살펴보고, 기분에 알맞은 소리를 찾아본다. - 우리가족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며 표현해 본다.		
누리 과정 관련 요소	의사소통 > 듣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이해한다. 의사소통 >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한다. 사회관계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권 리 관련 요소	발달권		
활동 유형	이야기나누기 / 미술	대상 연령	만 5세
활동 형태	대그룹	소요 시간	30분
교수 자료	뮤지컬 관람, 활동지, 쓰기도구, 동화책		
활동 방법	〔도입〕 1. 수수께끼를 내면서 동화책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2. 동화의 제목을 읽어보면서 먼저 뮤지컬로 감상한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3. 다시 한번 '알사탕'을 동화로 들어 볼 것임을 소개한다. 〔전개〕 1. 동화를 듣고 동화 속 내용을 회상해 본다. 2. 내가 동화 속 주인공 '동동이' 이였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고 동동이의 마음의 소리를 교사가 제시한 활동지에 표현해 본다. 3. 자신의 표현한 동동이의 마음의 소리를 교사와 친구들 앞에서 소개해 본다. 〔마무리〕 1.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본 소감을 이야기 나누어 본다. 2.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 나누어 본다. 3. 가정과 연계활동으로 우리가족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활동 사진			
유의 사항 및 평 가	유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알사탕' 동화의 내용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의 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었음. 또한 가정과 연계활동으로 인해 나의 마음의 소리에서 다른 누군가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볼 수 있는 활동이였던 것 같음. 또한 유아들이 극의 내용을 유아들이 단순히 등장인물들의 우스운 모습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마음의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도담반(만0세) – 발달권

4월 도담반(만0세) 아동 권리존중 활동 계획안

활 동 명	나는 누구일까요?		
활동 목표	- 거울 속 나에 관심을 가진다. - 거울 속 나를 교사와 함께 관찰하며 신체부위를 짚어본다. - 거울에 얼굴을 비쳐보며 자기 인식의 경험을 해본다.		
표준 보육 과정 관련 요소	신체운동 >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 신체 탐색하기 > 주요 신체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한다.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구별하기 > 거울 속의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의 것 인식하기 >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다.		
권 리 관련 요소	발달권		
활동 유형	감각/탐색영역	대상 연령	만 0세
활동 형태	개별	소요 시간	3~5분
교수 자료	'나는 누구일까요?' 활동지, 거울(손거울 혹은 안전거울)		
활동 방법	[도입] 1. 영아가 거울에 관심을 보이면 교사가 다가가 상호작용한다. [전개] 1. 영아와 함께 거울을 탐색한다. 2. 거울 속 비친 영아의 모습을 교사와 함께 살펴본다. 2. 거울에 비친 영아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며 상호작용한다. 3. 교사가 거울에 비친 영아의 모습을 함께 보고 신체 부위의 명칭을 짚어가며 이야기해준다. [마무리] 1. 활동 후 거울을 정리한다.		
활동 사진			
유의 사항 및 평 가	손거울을 제시해주자 영아가 관심을 보이며 거울을 만지는 모습을 보였음. 교사가 '사과 같은 내 얼굴' 노래를 불러주며 영아와 함께 거울에 비친 영아의 모습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영아가 미소를 보이며 활동에 더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교사와 함께 거울에 비친 영아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짚어보고 " 00이 동그란 코가 여기 있네요~ "라고 신체 부위 명칭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며 활동해보았음. 또한, 영아가 손거울을 볼 때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었음.		

◇ 라온반(만3세) - 생존권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5월 라온반(만3세) 아동 권리존중 활동 계획안

활 동 명	굿바이~ 미세먼지!!		
활동 목표	-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본다. - 책 읽기에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 예방 및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누리 과정 관련 요소	신체운동 건강 > 건강하게 생활하기 >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신체운동 건강 > 건강하게 생활하기 > 질병 예방하기 > 질병의 위험을 알고 주의한다. 의사소통 > 듣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권 리 관련 요소	생존권		
활동 유형	이야기나누기/새노래	대상 연령	만3세
활동 형태	대그룹	소요 시간	15분
교수 자료	'지진, 태풍, 미세먼지의 힘 자랑' 도서자료, '꼼짝 마! 미세먼지' 가사 판		
활동 방법	[도입] 1. 미세먼지를 경험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전개] 1. 소나무어린이집 교직원이 제작한 교수자료 '지진, 태풍, 미세먼지의 힘 자랑' 동화책 표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눈다. 2. 소나무어린이집 교직원이 제작한 교수자료 '지진, 태풍, 미세먼지의 힘 자랑' 동화책 내용을 들려준다. 3. 동화의 내용을 회상하며,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4. 소나무어린이집 교직원이 구성한 교수자료 '꼼짝 마! 미세먼지'동요를 불러보며 다시 한 번 미세먼지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마무리] 1. 소나무어린이집 교직원이 구성한 교수자료인 동화, 동요를 읽고 불러본 느낌을 평가한다. 2. 활동 후 정리시간을 갖는다.		
활동 사진			
유의 사항 및 평 가	유아들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고 미세먼지를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음. 이전 유아들과 실외활동을 하며 유아들이 미세먼지에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소나무어린이집 교직원이 제작한 교수자료로 '굿바이~ 미세먼지' 동화책을 읽으며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진행하였더니 유아들이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음. 동화책을 함께 읽어본 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밖에 나가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미세먼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음. 또한 교직원이 구성한 교수자료인 '꼼짝 마! 미세먼지' 동요를 율동과 함께 부르며 확장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음.		

◇ 한울반(만4세) – 발달권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6월 한울반(만4세) 아동 권리존중 활동 계획안

활 동 명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활동 목표	- 내 마음속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본다. - 내 마음속 따뜻함을 전달해 본다.		
누리 과정 관련 요소	의사소통 > 쓰기 > 쓰기에 관심가지기 >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사회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기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알고 표현하기 >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권 리 관련 요소	발달권		
활동 유형	이야기나누기 / 미술	대상 연령	만 4세
활동 형태	대그룹	소요 시간	20분
교수 자료	하트모양 종이, 쓰기 도구, 그리기 도구		
활동 방법	[도입] 1. 유아들과 하트모양의 종이를 보며 무엇을 적어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봄. [전개] 1. 유아들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을 들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2. 하트모양 종이에 써보고 물감으로 채워 볼 수 있도록 한다. 3. 또래 친구들이 표현하는 경험을 경청해 본다. 4. 또래 친구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을 표현해 본다. [마무리] 1.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어 보며 느낌을 이야기 해본다. 2. 활동 후 정리시간을 갖는다.		
활동 사진			
유의 사항 및 평 가	유아와 하트 모양의 종이를 탐색해 보며 무엇을 적어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음. 유아들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을 들었던 경험에 대해 떠올려 보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였음. 유아들이 가족 또는 또래 친구들, 선생님과의 경험을 이야기 해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하트 종이에 적어 볼 수 있도록 하였음. "친구들한테도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며 또래 친구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이야기 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등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유아들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고 또래 친구의 경험과 생각을 교류하며 유아들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다은반(만2세) – 보호권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7월 다온반(만2세) 아동 권리존중 활동 계획안

활 동 명	좋아요! 싫어요!		
활동 목표	- 위험한 것과 위험한 상황을 안다. - 짧은 문장과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해본다.		
표준 보육 과정 관련 요소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위험한 상황 알기 > 위험하다고 알려주면 주의한다. 의사소통 > 말하기 >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		
권 리 관련 요소	보호권		
활동 유형	언어영역	대상 연령	만 2세
활동 형태	소집단	소요 시간	5분
교수 자료	영아 안전교육자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활동 방법	[도입] 1. 영아가 안전판에 관심을 보이면 교사가 다가간다. [전개] 1. 안전판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이야기나눈다. 2. 교사가 안전판의 내용을 읽어준다. 3.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며 영아들과 어떤 기분일지 이야기나눈다. 4.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해본다. [마무리] 1. 활동 후 교사와 포옹하거나 엄지 뽀뽀 등의 긍정적인 교감을 나누며 마무리한다.		
활동 사진			
유의 사항 및 평 가	영아들이 안전판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가 "이게 뭐예요? 알려주세요."하고 교사에게 묻는 모습을 보였음. 교사가 영아들에게 안전판의 내용을 알려준 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보았음. 영아들이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기분은 "좋아요. 사랑해요. 안아줘요.",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기분은 "싫어요. 안돼요."라고 말하며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하였음. 영아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싫어요. 안돼요."라고 말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영아들이 안전판의 내용을 떠올리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가은반(만1세) – 참여권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8월 가온반(만1세) 아동 권리존중 활동 계획안

활 동 명	내가 할 수 있어요!		
활동 목표	-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알아본다. -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난 후의 느낌을 표현해본다.		
표준 보육 과정 관련 요소	기본생활 > 건강하게 생활하기 >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 하루 일과에 편안하게 참여한다. 의사소통 > 말하기 > 표정, 몸짓, 말소리로 말하기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		
권 리 관련 요소	참여권		
활동 유형	일상생활	대상 연령	만 1세
활동 형태	개별	소요 시간	5분
교수 자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림 자료		
활동 방법	[도입] 1.그림자료 영아가 스스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사가 다가가 영아의 행동을 읽어주며 상호작용한다. [전개] 1. 영아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눈다. 2. 영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영아가 스스로 해본다. 3. 영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난 후의 느낌을 표현해본다. [마무리] 1. 자발적으로 영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활동 사진			
유의 사항 및 평 가	영아들이 낮잠 후,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배변훈련을 진행하며 영아들이 배변훈련을 한 뒤 물을 내려 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음. 영아들이 물을 내려본 뒤 "OO이 가 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며 영아가 스스로 물을 내려 본 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며 영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며 다음에도 스스로 물을 내려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음. 놀이시간뿐 아니라 하루 일과를 진행하며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음.		

◇ 다은반(만2세) – 보호권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9월 다온반(만2세) 아동 권리존중 활동 계획안

활 동 명	모두가 행복해지는 약속		
활동 목표	- 우리 반 약속 판에 있는 그림 보고 우리 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 본다. - 우리 반 약속을 지키며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표현해본다.		
표준 보육 과정 관련 요소	의사소통 > 읽기 > 그림책과 환경 인쇄물에 관심 가지기 > 그림책과 환경인쇄물에 있는 그림과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의사소통 > 듣기 > 짧은 문장들고 알기 >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사회적 가치를 알기 > 간단한 약속을 지킨다 의사소통 > 말하기 > 표정, 몸짓, 말소리로 말하기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		
권 리 관련 요소	보호권		
활동 유형	실내자유놀이	대상 연령	만 2세
활동 형태	개별	소요 시간	5~10분
교수 자료	'○월 우리의 약속' 판		
활동 방법	[도입] 1. 영아가 약속 판에 관심을 보이면 교사가 다가가 상호작용한다. [전개] 1. 약속 판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영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2. 영아와 함께 약속 판에 그려진 약속을 지켜본다. 3. 영아가 어떤 약속을 지켰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약속 그림 아래에 영아의 얼굴을 붙여본다. 4. 교사와 영아가 하이파이브, 엄지 뽀뽀 등의 긍정적인 교감을 나눠본다. [마무리] 1. 약속 판에 있는 약속 외의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표현해본다.		
활동 사진			
유의 사항 및 평 가	약속은 영아의 수준을 고려하고 영아들이 가능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제시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음. 약속 판을 제시하자, 영아들이 약속 판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영아들에게 약속판에 대해 설명해주었음. 놀잇감을 정리하는 영아에게 스스로 약속판에 영아 자신의 자신을 붙일 수 있게 해주자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던 영아도 스스로 놀잇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음. 또한, 화장실에서 서로 먼저 손을 씻으려했던 모습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음. 영아들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교실 내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로 바꿔 약속판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음.		

② 'Rhythm Day' 아동권리 교육

영유아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각 반별 아동권리 프로그램과 함께 BioRhythm을 전제로 한 Rhythm Day를 진행하였다. BioRhythm란 영유아의 신체・감정・지성에 주기에 따른 반응으로 '체내시계'라고도 불리 운다. Rhythm Day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영유아들에게 개개인에게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직접 말하고, 들어보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를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정(젊)진기' 아동 권리 존중 'Rhythm Day' 연간계획안			
	주제	아동 권리	활동 명
4 5	내가 알아보는 마음의 소리	발달권	[리듬 Day①] Hear Day(쫑긋 데이) -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
6 7	내가 표현하는 마음의 소리	참여권	[리듬 Day②] Slow Day(엉금엉금 데이) - 마음을 천천히 표현해요
8 9	내가 지켜주는 마음의 소리	보호권	[리듬 Day③] Protect me Day(살금살금 데이) - 나를 보호해요
10 11	나와 다른 너의 마음의 소리	발달권	[리듬 Day④] Sensitivity Day(통통 데이) - 세심히 살펴봐요
12 1	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	참여권	[리듬 Day⑤] Sharing Day(뭉게뭉게 데이) - 나누면 더 커지는 마음

첫째, 귀를 기울여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고개 끄덕여 공감하며 (쫑긋DAY)
둘째,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표현 해 보고 (엉금엉금DAY)
셋째,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통해 '나'와 '우리'를 보호하여 (살금살금DAY)
넷째, 나와 다른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킁킁DAY)
다섯째,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나눔과 배려를 시도 하여 기쁨을 얻는다.
(뭉게뭉게DAY)

위와 같이 5가지 목적으로 구성하여 영유아의 BioRhythm에 따른 Rhythm Day를 주 목표로 영유아,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계획・실행 하였다.

'청(聽)친가' 아동 권리존중 교육

Rhythm Day 아동 권리존중 활동 계획안

활 동 명	Hear Day (쫑 긋 데 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요		
활동 목표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고덕이고 세 번에 공감할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 관련 요소	의사소통 > 듣기 > 말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 바라본다 >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억양 등을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		
누리 과정 관련 요소	의사소통 > 듣기 > 바른 태도로 듣기 >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권 리 관련 요소	참여권		
활동 유형	이야기 나누기	대상 연령	전 연령(만0 - 5세) 75명
활동 형태	소그룹 / 대그룹	소요 시간	10~15분
교수 자료	토끼 귀 머리띠, '경청' 음원, 시청각자료		
활동 방법	1. 경청은 무엇일까요? -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2. 신나는 '경청' 동요 따라 불러보아요. 두 귀를 쫑긋 두 눈을 반짝 경청합시다 경청합시다 만장은 노우 두 귀를 열고 눈을 뜹시다 눈을 뜹시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친구들 이야기 모두 경청하고 존중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3. 오늘은 친구의 말을 두 귀 쫑긋 들어볼 수 있어요. - 친구의 손을 잡고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요. - 어떤 말이 였나요? - 친구의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4. 부모님, 선생님, 친구의 말을 경청 할 수 있어요. -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요. -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안전하게 놀이해요. - 친구의 말을 듣고 사이 좋게 놀이 할 수 있어요		
활동 사진			
유의 사항 및 평 가	영·유아들과 경청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며 '경청' 동요를 감상 해 보았음. 동요를 들은 영아들은 박수를 치며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유아들은 '경청'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하기를 시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교사가 먼저 토끼 머리띠를 쓰고 몸을 기울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범을 보이자 영·유아가 눈을 마주치고 또래의 목소리에 귀와 몸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언어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영아들은 몸짓언어(비언어적표현)를 통해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교사가 바라보고 언어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었음. 활동 후 유희실에 활동 놀잇감을 제시 해 주었더니 영유아가 자유롭게 토끼머리띠를 쓰고 몸을 흔들 또래의 입가에 토끼귀를 내밀고 이야기를 듣는 흥내를 만복작으로 나 보았음.		

'청(聽)친가' 아동 권리존중 교육

Rhythm Day 아동 권리존중 활동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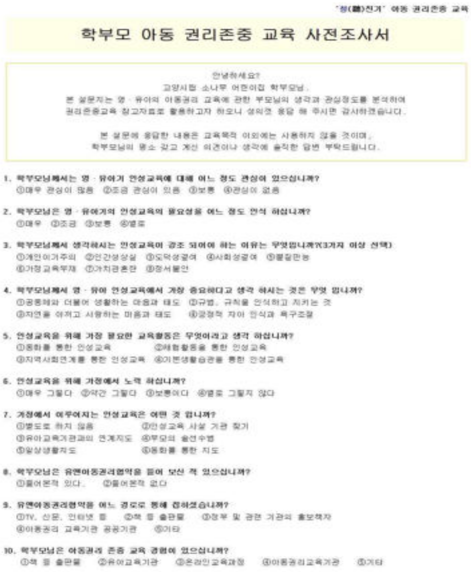
활 동 명	Slow Day (엉 금 엉 금 데 이): 마음을 천천히 표현해요		
활동 목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 표현 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어 표현 해 본다.		
표준보육과정 관련 요소	의사소통 > 말하기> 표정, 몸짓, 말소리로 말하기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 의사소통 > 말하기 >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두 낱말로 말해본다.		
누리 과정 관련 요소	의사소통 > 말하기 > 상황에 맞게 바른태도로 말하기 >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한다. 의사소통 >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한다.		
권 리 관련 요소	참여권		
활동 유형	이야기 나누기	대상 연령	전 연령(만0 - 5세) 75명
활동 형태	소그룹 / 대그룹	소요 시간	10~15분
교수 자료	하트 표정판, 거북이 등, 거북이 모자		
활동 방법	1.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 어떤 말이 하고 싶나요? - 그 말이 왜 하고 싶어졌나요? 2.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 내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 어떻게 표현 해야 할까요? - 기분좋은 말, 울퍼지는 말 3.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해요 - 나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대요 - 엉엉 울어요, 하하 기뻐요, 깔깔 놀랬어요, 씩씩 화가났어요 -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들어요 - 기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대요 4. 나와 친구의 기분을 존중해요. - 내기분과 친구 기분은 달라요 - 기분이 다를 수 있어요 - 나와 친구의 기분은 소중해요		
활동 사진			
유의 사항 및 평 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이야기 하며 표정 그림판을 살펴보았음. 영아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걸어보며 그림판을 짚고 교사를 따라 표정을 지어보거나 방판에 그려진 표정을 보고 "슬퍼요", "기뻐요" 하며 짧은 단어로 감정표현에 대해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음. 유아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물어보자 "좋았어요", "울었어요" 등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언어/비언적인 표현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시도해야겠음.		

쫑긋DAY	엉금엉금DAY	살금살금DAY

㉝ 연간 스페셜 데이 아동권리 교육

나무야 숲이 되어 만나자 (식목일)	세수식(어버이날)	신나는 물총놀이
너한테 반할 수박에 (여름행사)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영유아 개별 생일잔치

3) 부모 아동권리 사전 인식도 조사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학부모 아동 권리존중 교육 사전조사서

안녕하세요?
고양시립 소나무 어린이집 학부모님.
본 설문지는 영 · 유아의 아동권리 교육에 관한 부모님의 생각과 관심정도를 분석하여
권리존중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응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교육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학부모님의 평소 갖고 계신 의견이나 생각에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학부모님께서는 영 · 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매우 관심이 많음 ②조금 관심이 있음 ③보통 ④관심이 없음

2. 학부모님은 영 · 유아기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 하십니까?
①매우 ②조금 ③보통 ④별로

3.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성교육이 강조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가지 이상 선택)
①개인이기주의 ②인간성상실 ③도덕성결여 ④사회성결여 ⑤물질만능
⑥가정교육부재 ⑦가치관혼란 ⑧정서불안

4. 학부모님께서 영 · 유아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는 것은 무엇 입니까?
①공동체와 더불어 생활하는 마음과 태도 ②규범, 규칙을 인식하고 지키는 것
③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 ④긍정적 자아 인식과 욕구조절

5. 인성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동화를 통한 인성교육 ②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③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④기본생활습관을 통한 인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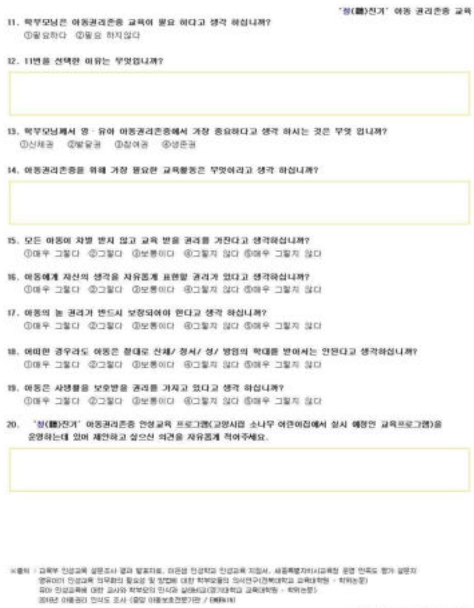
6.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에서 노력 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7.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어떤 것 입니까?
①별도로 하지 않음 ②인성교육 시설 기관 찾기
③유아교육기관과의 연계지도 ④부모의 솔선수범
⑤일상생활지도 ⑥동화를 통한 지도

8. 학부모님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①들어본적 있다. ②들어본적 없다

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어느 경로로 통해 접하셨습니까?
①TV, 신문, 인터넷 등 ②책 등 출판물 ③정부 및 관련 기관의 홍보책자
④아동권리 교육기관 공공기관 ⑤기타

10. 학부모님은 아동권리 존중 교육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책 등 출판물 ②유아교육기관 ③온라인교육과정 ④아동권리교육기관 ⑤기타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11. 학부모님은 아동권리존중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필요하다 ②필요 하지않다

12. 11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학부모님께서 영 · 유아 아동권리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는 것은 무엇 입니까?
①신체권 ②발달권 ③참여권 ④생존권

14. 아동권리존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5.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6. 아동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7. 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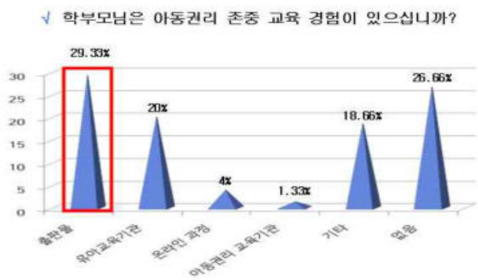
18.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은 절대로 신체/ 정서/ 성/ 방임의 학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9.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0. '청(聽)진기' 아동권리존중 인성교육 프로그램(고양시립 소나무 어린이집에서 실시 예정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안하고 싶으신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4) 부모 사전 조사서 결과

11번 문항. 학부모님은 아동권리존중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97.33%
이유 ➤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되어야함.	
➤ 아동권리존중 인식의 부재로 교육이 필요함.	
➤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받고,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이 필요함.	
➤ 아이도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음.	
➤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함에 이유는 필요치 않음.	
➤ 자존감이 존중되면 사회성 및 기본생활습관도 증진 될 것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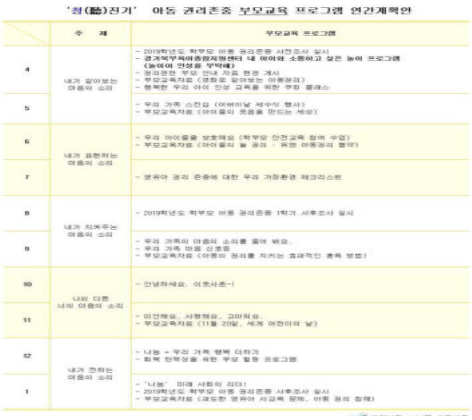


부모 사전조사결과 아동권리존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7.33%으로 아동권리 존중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부모는 아동권리존중 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아 교육적 목표에 다다르기 어렵다는 의견과 성인과 달리 '아동'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존중 받지 못하는 인식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부모가 아동권리 교육을 접한 경로는 주로 책이나 출판물, 서적관련에서 접하였으며 접하지 못한 경우도 26.66%에 달했다. 이는 출판물을 경험했던 부모와 접하지 못한 부모의 수가 비례하는 것을 확인 해 볼 수 있으며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가 확연한 온도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부모의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 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 자료 배부와 영유아의 하루일과 중 시간을 조율하여 부모재능기부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활동과 연계되는 아동권리 활동을 주제로 삼아 가정과의 연계 활동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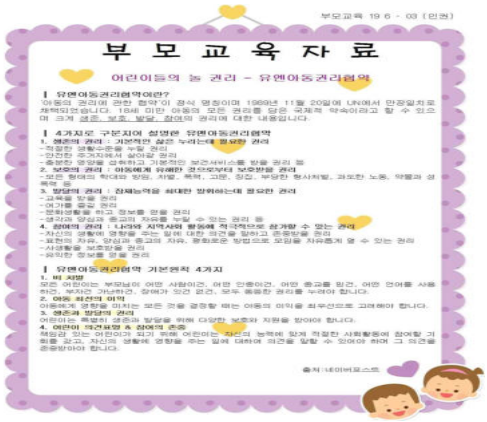
5) 가정과 연계활동

① 부모교육자료 및 가정연계지를 통한 연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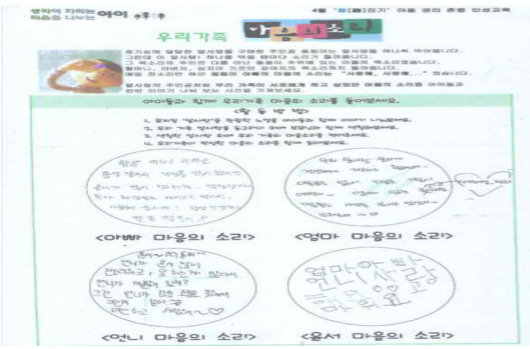
‘청(聽)진기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의 연간교육계획안을 바탕으로 가정과의 연계 활동을 위해 매월 부모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다. 월별 아동권리 존중 프로그램의 주제는 표준보육과정과 행사와 연계하여 부모 교육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권리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요소부터 원내 활동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영·유아와 함께 활동에 참여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부모교육자료와 가정연계지를 통해 활동에 참여하며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해 배우고 있는지 안내하며 가정에서도 영유아와 함께 활동을 하며 아동권리에 대해 알고 중요성을 느끼며 실천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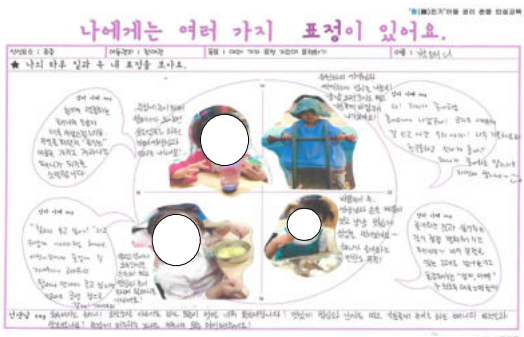


<아동권리존중 부모교육 연간계획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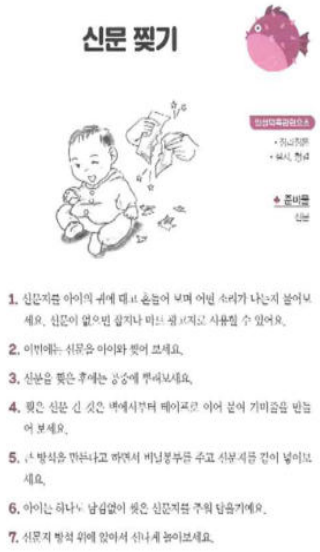
<부모교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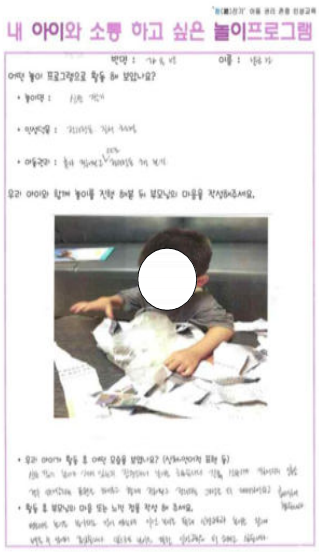


<가정연계 활동지>

<놀이야 인성을 부탁해>
경기 북부 육아
종합지원센터 지원



<놀이야 인성을 부탁해>
Page 47



<놀이야 인성을 부탁해
가정연계지>

영아반 '놀이야 인성을 부탁해' 가정연계 활동 안내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도담반(만 0세)을 시작으로 일주일 씩 각 반별로 '놀이야 인성을 부탁해' 책과 가정활동 연계활동지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 책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영아와 함께 놀이를 경험해 보시고 느끼신 점을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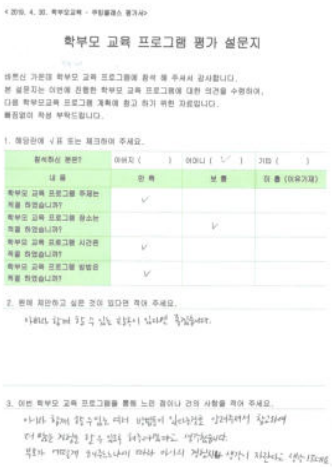
6월 7일 ~ 6월 14일 **도담반**	6월 14일 ~ 6월 21일 **가온반**	6월 21일 ~ 6월 28일 **다온반**

<놀이야 인성을 부탁해 가정연계 활동안내>

② 부모교육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부모 아동 권리존중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도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동 권리존중 사전조사서를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키즈노트 가정통신문 및 어린이집 현관 공지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였다. 활동을 통해'권리란 무엇인지?'이론적인 측면부터 행복한 우리 아이 인성 교육을 위한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여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영양과 즐거움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배워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활동해 봄으로써 학부모님이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며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높였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활동 사진>



<부모교육 안내서> **<부모교육 일지>** **<부모교육 평가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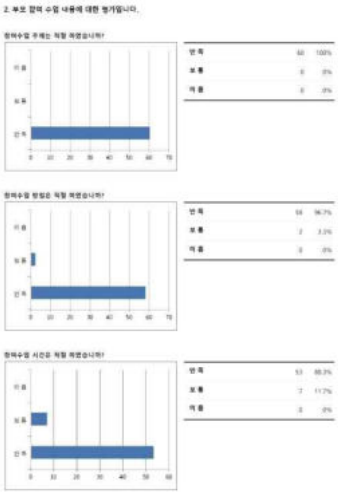
③ 부모 재능 나눔을 통한 참여 활동

부모 재능기부 신청 희망 시, 개별 부모참여 신청서, 활동 주제 및 내용, 소요 시간, 필요한 준비물을 전달받아 보육활동시간을 조절하여 미리 키즈노트 가정통신문 및 어린이집 현관 공지를 통해 안내 한 뒤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일 선생님으로 영유아들과 함께 하루일과를 경험하며 보육현장에서의 아동권리 교육을 몸소 체험 하였으며 부모의 다양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원내 다양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 하였다.

오르프 활동	경제교육	안전 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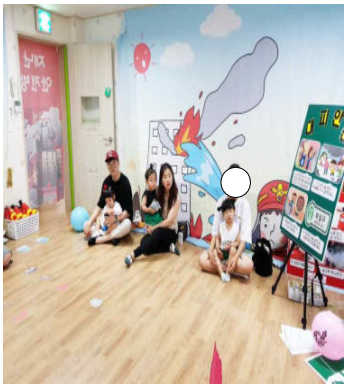
<부모 재능 나눔을 통한 아동권리 교육>

◆부모 재능 나눔 참여수업 '엄마, 아빠는 안전히어로'◆



<부모참여 행사계획안> **<부모 참여 수업 평가 설문지 및 만족도>**

간호사 엄마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소방관 아빠와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체험

<부모 재능 나눔 참여수업 '엄마, 아빠는 안전히어로'>

6) 보육교직원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보육교직원용)

연 번		내 용	확 인
1		어린이집 일과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1	낮잠 및 휴식에 대한 영유아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시간, 공간)을 조성해 주고 있다.	□
	1-2	대소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놀이하려는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3	급·간식에 대한 영유아의 기호, 먹는 속도와 양을 존중해주고 있다.	□
	1-4	배변, 배뇨 등 영유아의 기본적인 생리적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5	보육교직원은 일관성 있는 태도로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2		영유아가 보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2-1	영유아가 만든 결과(작품, 사진, 노래, 블록, 구조물 등)에 대해 존중하며 적절히 게시되어 있다.	□
	2-2	영유아의 의견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한 보육과정을 운영한다.	□
	2-3	규칙을 정할 때는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3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3-1	영유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놀이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지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
	3-2	영유의 흥미, 관심, 기분 및 건강상태를 전반적인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	□
	3-3	영유아 간의 관계를 살피며 상호 역동성을 파악하여 상호작용한다.	□
4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4-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4-2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4-3	양육자의 보육실 참관(절차 및 방법, 안내)이 이루어지고 있다.	□
5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
	5-1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
	5-2	양육자에게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 등 안정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
	5-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자와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6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
	6-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였다.	□
	6-3	영유아 권리의 기초가 되는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7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7-1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7-2	보육교직원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8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보육교직원 간 협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1	어린이집 운영(보육과정, 특별활동, 견학, 행사 등)의 계획과 평가에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
	8-2	반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체회의를 통해 협력 및 해결하는 구조가 있다.	□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아동권리 자가 체크 및 권리보호 책임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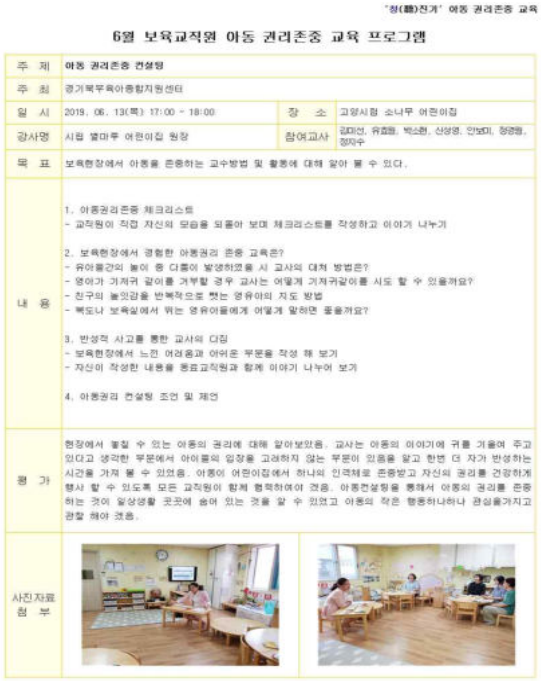
영유아들과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교직원들의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실시해 보았다. 이렇게 자가 체크리스트를 실시한 후 교사들과의 토의시간을 통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한 아동권리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그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권리보호 책임선서'를 시작으로 환경개선과 다양한 연수 및 교육을 계획하였다.

7) 보육교직원 아동권리 교육

보육교직원 아동권리 교육은 사전에 교사 개개인이 확인해 보았던 교사 자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하여 교육현장에서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교사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교사들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 교사들 간의 MBTI검사를 실시하여 틀림이 아닌 다름을 알아보고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보육교직원 교육 연간계획안

	주 제	활 동 내 용
4	내가 알아보는 마음의 소리	- 영유아의 권리보호를 위한 책임 선서 - 상반기 영유아 권리 존중 자가 체크리스트 -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권리존중 특강1 (이진숙 원장 2019.04.11)** - 경기도 자식캠퍼스 '참의 · 인성 쑥쑥' 교육 이수 (2019.04.12) - 1박2일 교사 힐링 워크샵 '동료 교사들의 마음을 들어 보아요' (MBTI 검사로 본 동료교사 마음 알아보기), (2019.04.19) -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권리존중 특강2 (유효점, 김대선 교사 2019.04.25)**
5		-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 -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권리존중 실천이 먼저!** **(이진숙 원장, 김대선 교사 2019.05.16)** - 소나무 어린이집 권리 존중 행동 강령 토론 - **교사 힐링 프로그램(우리가 green 세상) (유효점, 박소현 교사 2019.05.29)**
6	내가 표현하는 마음의 소리	-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아동권리 교육** **문제아동 성격, 행동지도 방법 (안보미 교사 2019.06.04)** - **교사 힐링 프로그램 (우리가 green 세상) (홍지영, 박재진 교사 2019.06.12)** - **아동권리존중 컨설팅 (2019.06.13)** - 하루 일과에서 살펴본 아동권리 감수성향상을 위한 교사의 역할
7		-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비츠프로젝트 교육 (이진숙원장 2019.07.05.)** - **교사 힐링 프로그램(우리가 green 세상) (유효점, 홍승연 교사 2019.07.17.)**
8	내가 지켜주는 마음의 소리	-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러블리, 욱블리' 원내교사교육** **(2019.08.03. / 2019.08.16)** - 동료교사와 함께 나누는 '청진기 권리존중 프로그램' 상호 보안 - 보육교직원 프로그램 1학기 만족도 조사서
9		- 영유아 갈등 시 사례 나누기 - 하반기 영유아 권리 존중 자가 체크리스트 - **교사 힐링 프로그램(우리가 green 세상) (안보미, 박재진 2019.09.18)**
10	나와 다른 너의 마음의 소리	- 당신의 존귀 점수는? - 영유아 보육활동 시 갈등 사례 나누기 - **교사 힐링 프로그램 (우리가 green 세상)**
11		- 교사 주도권 흔이는 방법 - 교사가 사용하는 긍정어 사용 횟수 - 영유아 식사 지도시 갈등 사례 나누기
12	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	-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 - 보육현장에서 아동 권리 존중을 위한 상가해야할 대화유형
1		- 보육교직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서 - 동료교사와 함께 나누는 '청진기 권리존중 프로그램' 상호 보안 논의 및 2020년 계획안 작성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6월 보육교직원 아동 권리존중 교육 프로그램

주 제	아동 권리존중 컨설팅		
주 최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일 시	2019. 06. 13(목) 17:00 ~ 18:00	장 소	고양시립 소나무 어린이집
강사명	시립 별마루 어린이집 원장	참여교사	김대선, 유효점, 박소현, 신상영, 안보미, 정경림, 정지수
목 표	보육현장에서 아동을 존중하는 교수방법 및 활동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내 용	1. 아동권리존중 체크리스트 - 교직원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야기 나누기 2. 보육현장에서 경험한 아동권리 존중 교육은? - 유아들간의 놀이 중 다툼이 발생하였을 시 교사의 대처 방법은? - 영아가 기저귀 갈이를 거부할 경우 교사는 어떻게 기저귀갈이를 시도 할 수 있을까요? - 친구의 놀잇감을 반복적으로 뺏는 영유아의 지도 방법 - 복도나 보육실에서 뛰는 영유아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3. 반성적 사고를 통한 교사의 다짐 - 보육현장에서 느낀 여러종과 아쉬운 부분을 작성 해 보기 -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동료교직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기 4. 아동권리 컨설팅 조언 및 제언		
평 가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음. 교사는 아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한번 더 자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었음.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를 건강하게 행사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함께 협력하여야 겠음. 아동컨설팅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동의 작은 행동하나하나 관심을가지고 관찰 해야 겠음.		
사진자료 첨 부			

MBTI 검사로 본 동료교사 마음 알아보기	'청진기 권리존중 프로그램'상호 보안	영유아 갈등 시 사례 나누기
러블리, 욱블리 **북부 육아 종합지원센터**	교사 힐링 프로그램 **북부 육아 종합지원센터**	아동권리존중 컨설팅 **북부 육아 종합지원센터**
아동권리 존중 이수증	아동권리 실천 이수증	러블리, 욱블리 수료증

8) 지역사회 연계활동

'청(聽)진기' 아동 권리 존중 영·유아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연간계획안

	주 제	영아 활동명 (만0,1,2세)	유아 활동명 (만3,4,5세)
4	내가 알아보는 마음의 소리	검정 머리띠를 하고 산책을 가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나의 마음을 전달해요 (관리 사무소 - 라온, 한빛반)
			'우린 모두 소중해' 인형극 관람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한울반)
5			올바른 마음의 소리를 알아보아요. (인성버스 - 한울, 한빛반)
			동화를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어린이 도서관 - 라온반)
6	내가 표현하는 마음의 소리	우리 동네 형, 누나들과 함께 인성동화 책을 읽어요	인성동화를 읽고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아요. (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 라온, 한울, 한빛)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표현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아요 (경기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 한빛반)
7			엄마 선생님과 함께 방문하는 가와지 볍씨 박물관 (가와지 볍씨 박물관 - 한울, 한빛반)
			소방관 아저씨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고양 소방서 - 라온, 한울, 한빛반)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엄마, 아빠께 알려드려요 (덕양구 보건소 - 라온, 한울, 한빛반)
8	내가 지켜주는 마음의 소리	우리 동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눠요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아요. (원내 - 라온, 한울, 한빛반)
9			우리를 지켜주시는 경비아저씨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한과 전달하기 - 라온, 한울, 한빛반)
10	나와 다른 너의 마음의 소리	형님 반 동생 반에 가서 마음 청진기 놀이를 해요	나의 마음, 너의 마음 편지를 전달해요 (형님, 동생반 편지를 전달 해요 - 라온, 한울, 한빛반)
11			동네 둘보미 활동 - 환경미화 (단지 내 - 라온, 한울, 한빛반)
12	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	지역기관 내 사랑의 동전 모으기	나의 마음이 담긴 동전을 모아 전달해요 (원내 - 라온, 한울, 한빛반)
1			단지 내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드리기 (단지 내 - 라온, 한울, 한빛반)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5월 한울반(만4세) 아동 권리존중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 동 명	올바른 마음의 소리를 알아보아요		
활동 목표	1. 인성버스에 탑승하여 다양한 인성 활동을 경험하며 인성에 대해 알아본다. 2. 인성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며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알아본다.		
누리 과정 관련 요소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사회관계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알고 조절하기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안다. 신체운동· 건강 > 신체인식하기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움직인다.		
권 리 관련 요소	발달권		
실시 일	2019년 5월 22일 (수)	대상 연령	만 4세
활동 장소	고양시립 소나무 어린이집	소요 시간	90분
준비사항	사진기, 구급함		
활동 방법	[도입] 1. 인성버스에 탑승하여 다양한 활동을 둘러본다. [전개] 1. 인성버스에 탑승하여 인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인성에 대해 알아본다. 2. 활동에 참여해보며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신체, 언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3. 또래 친구들이 표현하는 경험과 생각을 경청해 본다. [마무리] 1. 인성버스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본다.		
활동 사진			
사후 활동	인성 관련 동화책을 읽어보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본다.		
유의 사항 및 평 가	유아들이 버스 안에서 활동하는 것에 흥미를 보였으며 인성이 무엇인지, 다양한 인성의 덕목에 대해 알아보았음.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인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었으며 올바른 식사예절과 마트 예절에 대해서도 놀이를 통해 알아보며 유아들이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음. 유아들이 활동 중간 중간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며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음.		

① 지역 내 자원을 통한 아동 권리 교육

소방안전 체험	경로당 방문	동화 작가와의 만남
다문화 교사 방문 교육 **북부 육아 종합지원센터**	동화를 통한 인성교육 **북부 육아 종합지원센터**	인성예절버스 **북부 육아 종합지원센터**

Ⅲ. 활동평가

1.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결과 및 만족도

1) 아동권리 교육을 통한 영유아 발달 평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교사가 영·유아가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고 아동권리존중 인성교육 체크리스트에 맞춰 발달 정도를 표시하였다. 실시 전 표시는 '청(聽)진기 아동권리 존중'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인 2019년3월에 체크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2019년 9월에 발달 평가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수치는 4점 척도·96점 (영아반), 180점(유아반) 기준으로 하였다.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인성교육
영아 사전·사후 관찰 체크리스트 통계표

평 가 항 목 (4점 척도, 96점 기준)			실행 전 (2019년 3월)	실행 중 (2019년 9월)
아동권리 4대 기본권	발달권	스스로 선택한 놀이나 놀잇감을 즐긴다.	43	63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본다.	48	62
	참여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	45	58
		자신이 속한 반의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37	56
	보호권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	40	56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38	50
	생존권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안다.	40	56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37	52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인성교육
유아 사전·사후 관찰 체크리스트 통계표

평 가 항 목 (4점 척도, 180점 기준)			실행 전 (2019년 3월)	실행 중 (2019년 9월)
아동권리 4대 기본권	발달권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98	115
		유아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한다.	80	104
	참여권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78	102
		유아가 차례를 지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66	95
	보호권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	92	114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한다.	86	111
	생존권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87	116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74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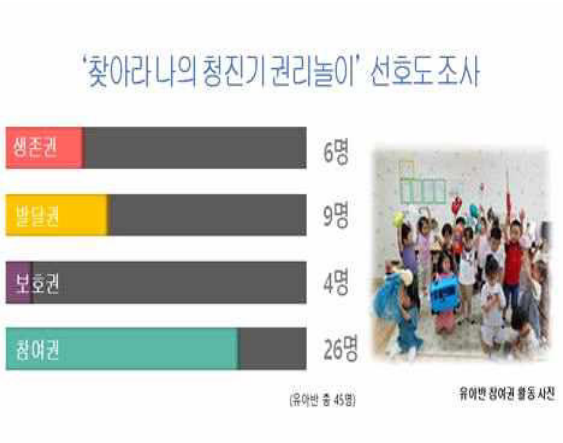
< 영·유아 사전사후 관찰체크리스트 통계표>

2) 영유아 만족도

만 1~5세 영·유아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진 설문지를 통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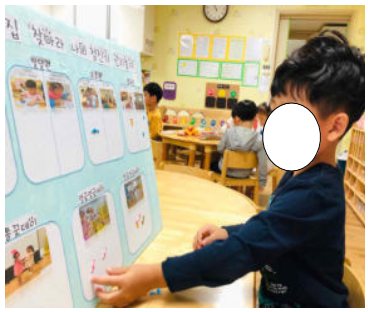
'청(聽)진기' 활동을 진행하며 가온반(만1세), 다온반(만2세)을 포함한 영아반 24명은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여러 가지 표정이 있어요'활동을 진행한 참여권 관련 활동이 37.5%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발달권 관련 활동이 25% 생존권 관련 활동이 25%, 보호권 관련 활동이 12.5%로 그 뒤를 이었다.

'청(聽)진기'활동을 진행하며 라온반(만3세), 한울반(만4세), 한빛반(만5세)을 포함한 유아반 45명은 기억에 남는 활동 중 '감정신호등, 내 놀잇감을 소개해요'활동을 진행한 참여권 관련 활동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달권 관련 활동이 20%, 생존권 관련 활동이 13.4%, 그 다음으로는 보호권 관련 활동이 8.8%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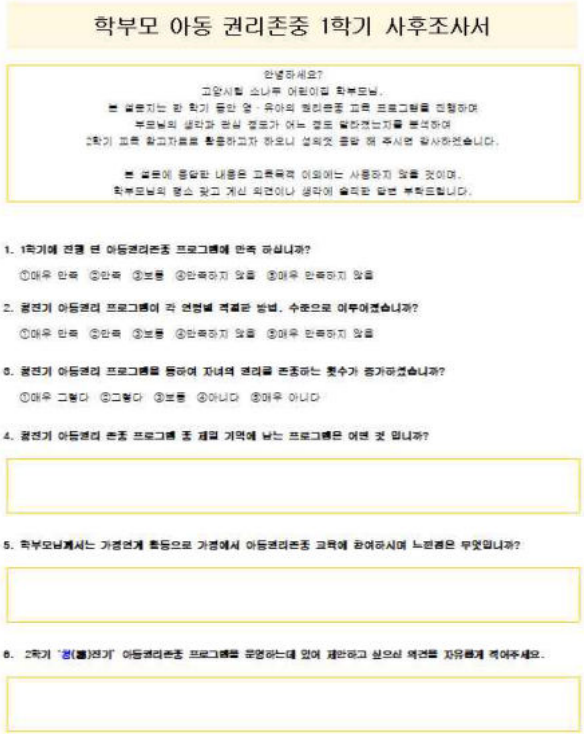
나의 청진기
권리놀이 설문지

설문에 참여하는
영아의 모습


설문에 참여하는
유아의 모습

전 연령이 함께 활동했던 권리 스페셜 데이에서는 엉금엉금 데이가 53.62%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쫑끗 데이가 27.53%로 그 뒤를 이었다. 각반 별로 진행한 '청진기'중점 활동과 전 연령과 함께 활동했던 권리 스페셜 데이를 비교해봤을 때 영유아들은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함께 협력하는 참여권 활동을 즐거워함을 알 수 있었다.

3) 아동권리 교육이 부모 만족도 및 가정에 미친 영향



학부모 아동 권리존중 1학기 사후조사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소나무 어린이집 학부모님.
본 설문지는 한 학기 동안 양·육아의 영위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부모님의 생각과 관심 정도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여
2학기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응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교육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학부모님의 평소 갖고 계신 의견이나 생각에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학기에 진행 된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에 만족 하십니까?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만족하지 않음 ⑤매우 만족하지 않음

2. 금년기 아동권리 프로그램이 각 연령별 적절한 방법,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까?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만족하지 않음 ⑤매우 만족하지 않음

3. 금년기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횟수가 증가하셨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 ④아니다 ⑤매우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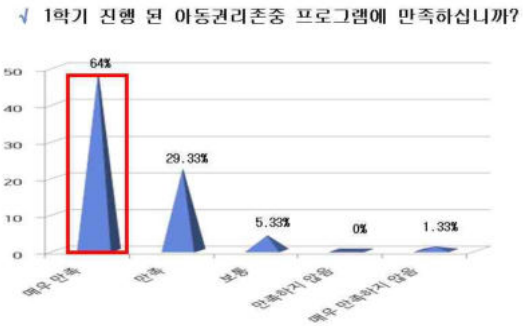
4. 금년기 아동권리 존중 프로그램 중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 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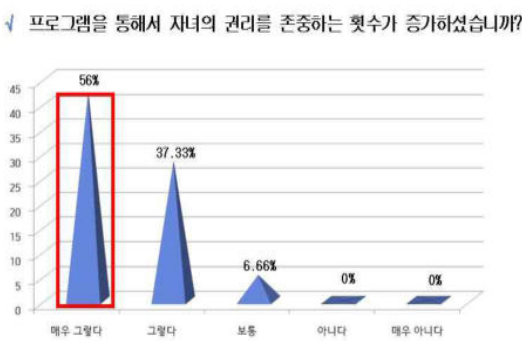
5.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연계 활동으로 가정에서 아동권리존중 교육에 참여하시며 느낀점은 무엇입니까?

6. 2학기 '청(聽)진기'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안하고 싶으신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학부모 아동권리 존중 1학기 사후조사서>

1학기 동안 진행 된 '청(聽)진기' 아동권리 존중 활동에 대한 부모 만족도는 전체의 64%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29.33%가 만족한다, 5.33%가 보통이라고 하였다. 만족하지 않음과 매우 만족하지 않음의 경우 합산하여 1.33%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청(聽)진기' 아동권리 존중 활동에 참여 후 가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항목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횟수가 증가' 여부에 대해 묻자 전체의 56% 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했으며 37.33%가 그렇다, 6.66%가 보통에 응답하며 전반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횟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4) 아동권리 교육이 교사에게 미친 영향

'청(聽)진기' 아동 권리존중 교육
보육교직원 프로그램 1학기 만족도 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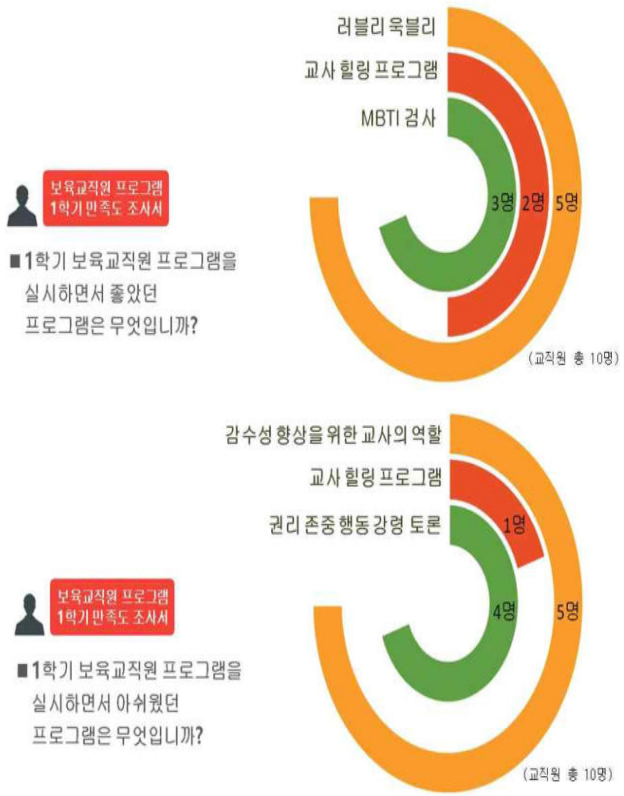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본 만족도 조사는 권리존중과 관련해 보육교직원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더 나은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응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학기 보육교직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①1박2일 교사 힐링 워크샵 '동료 교사들의 마음을 들어 보아요' (MBTI 검사로 본 동료교사 마음 알아보기)
②원내 권리 존중 행동 강령 토론
③교사 힐링 프로그램(우리가 green 세상)
④하루 일과에서 살펴본 아동권리 감수성향상을 위한 교사의 역할
⑤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러블리, 욱블리' 원내교사교육

2. 1학기 보육교직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아쉬웠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①1박2일 교사 힐링 워크샵 '동료 교사들의 마음을 들어 보아요' (MBTI 검사로 본 동료교사 마음 알아보기)
②원내 권리 존중 행동 강령 토론
③교사 힐링 프로그램(우리가 green 세상)
④하루 일과에서 살펴본 아동권리 감수성향상을 위한 교사의 역할
⑤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러블리, 욱블리' 원내교사교육

3. 향후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교직원 아동 권리존중 프로그램 1학기 만족도 조사서>



교사들이 1학기 동안 진행된 교직원 아동 권리존중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추려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러블리, 욱블리' 원내교사교육이 50%의 결과로 교사들에게 권리존중과 관련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이 '러블리, 욱블리' 원내 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유아 권리에 대해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자체 평가

‘청(聽)진기‘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영유아 발달단계와 각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하루일과 속 기본생활습관, 자유선택활동, 일상생활 등 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 울음을 자주 보이거나 낮은 자신감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아동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씩 시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Rhythm Day를 통해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과 이야기를 들을 때 끝까지 듣고 난 뒤 또래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표정으로, 말로 표현 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말하기 시범을 보이며 도왔다. 2학기 프로그램 진행 시 나와 다른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영유아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권리에 대해 알아 보며 직접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로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

아동의 권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계획 시 가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사전인식 조사서를 배부 하였고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교육 갈증에 대해 분석하여 부모교육자료 배부 및 원내 재능기부, 가정연계활동지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였다. 부모는 가정연계활동지를 통해 영유아가 성장하는 과정과 발달단계에 대한 정보공유에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2학기에도 부모와의 다양한 소통과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교직원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육현장에서 아동권리를 실현 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교사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고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 동료교사와 상호보완을 나누는 시간을 나누었다. 또,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위해 경기북부육종합지원센터에서의 교직원 상담교육 ’러블리 욱블리‘를 신청하여 원내에서 실시하였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보육현장에서 느낀 교직원의 실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교직원의 솔직한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사람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MBTI 검사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성향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과 나 자신이의 차이를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에 대해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2학기 활동으로는 보육교직원의 강점을 강화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을 준비하여 교직원의 역량강화에 집중하여야겠다.

Ⅳ. 향후 타 어린이집에서 참고가 되는 제안

1. 영유아 모두에게 실질적인 아동권리 존중교육이 필요하다.

‘청(聽)진기‘ 활동을 계획하며 모든 영유아가 권리존중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이끌어 내었는데 Rhythm Day를 통한 이야기 나누기나 각 반별 개별적 프로그램에도 모든 영유아들이 잘 참여한 반면 통합반 영유아들에게는 활동을 통해 권리를 느끼고 권리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웠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해 강화물을 제시하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권리존중 활동을 개별화 권리존중 교육계획안(IEP)으로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아동권리의 궁극적인 취지인 모든 영유아가 가치 있게 누릴 권리행사에 힘을 싣고자 한다.

2. 부모재능기부를 통한 아동권리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원내행사 및 부모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직접 아동권리존중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경험해 보았다. 아이들 앞에서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에 떨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로 현장에서 나눔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 이였다. 어린이집은 항상 부모들에게 개방하여 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재능나눔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특색이 있는 재능기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기본생활습관, 실외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능기부를 계획하고 부모님들의 참여를 유도 하여 부모 스스로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실행 후 어린이집 현관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나눔의 현장을 비참여 부모와 함께 공유하여 다각도의 재능 나눔 동기를 유발 한다.

3. 보육교직원 공평한 교육받을 권리 제공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를 위하기 전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동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을까? 보육교직원들의 권리존중을 위해 MBTI검사 실시, 힐링캠프, 보육현장의 소통을 주제로 한 ’러블리 욱불리‘상담,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등을 통해 동료 교직원의 성향과 교사 내면의 이야기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아동권리 선서, 아동권리존중 컨설팅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바르게 인지하며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원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부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그로인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꾸준히 노력하는 교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육활동 후 교육에 참여하거나 상담일정을 소화해내는데 있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의 보육 배치와 업무 피로도가 증대되는 경우가 있다. 모든 교직원이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계획하거나 순서에 따라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교직원의 교육 받을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4. 육아 공동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연계 방안.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영유아들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그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다문화교육, 동화 작가와의 만남, 경로당 방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존권에 해당되는 손씻기 교육, 보호권에 해당되는 소방안전체험, 발달권과 참여권에 해당되는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인성예절버스, 동화를 통한 인성교육과 원내 프로그램인 작은 도서관, 감정머리띠를 쓰고 산책하기, 이웃들과 인사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가까워지고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차후에도 아동권리존중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역할과 직업을 가진 사람, 집단을 만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여 영유아가 성장하였을 때 간접 체험을 통한 진로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V. 참고문헌

어린이보건복지부 '우리에겐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김영명 외 7명(2019) 영유아권리존중 보육과 교육 (창지사)

강경자 외 4명(2019) 아동권리와 복지 (동문사)

서울시지역아동센터 초록우산재단
'아동권리 인식 및 아동권리 옹호행동에 관한 연구'

김은옥 (2018)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아동권리인식이 아동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미영 (2017) 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인식을 매개로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장희수 (2008)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조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보건복지부)

두산백과 검색어 'biorhythm' (검색일 : 2019. 09. 16)

강민지 (2010)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김윤희 (2016)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진숙 (2009)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이지영 (2011) 영아의 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Naver 카페 https://cafe.naver.com/momsmusic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맘스뮤직 검색어 '경청'

윤매자 (2010)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2009a) 아동권리 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 청소년의권리 (보육교사용) (보건복지부가족부・세이브)

Ⅵ. 참여 후기

시립소나무어린이집 교사 후기 1

보육현장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지난날이 떠오릅니다. 영・유아가 내는 목소리와 표현에 귀 기울이고자 첫 걸음을 내딛었던 '청(聽)진기 아동권리 존중'프로그램은 2019년 4월을 시작으로 '내가 알아보는 마음의 소리', '내가 표현하는 마음의 소리', '내가 지켜주는 마음의 소리', '나와 다른 너의 마음의 소리', '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의 5가지의 대 주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며 함께 서로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 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원의 특색 프로그램인 영・유아의 바이오리듬을 바탕으로 한 '리듬데이'를 통해 영・유아가 자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또 타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활동을 통해 '권리'가 무엇인지,'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존중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낯선 아동들도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기 시작 하였고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또래의 기분을 살피고 이야기 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나의 권리'와'타인의 권리'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배려하는 변화였습니다. 또 다양한 부모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세수식'행사와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테마로 진행한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무엇보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와 하루를 마주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아동권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많은 의견을 공유하며 '권리'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 라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진실 된 마음 나누기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동료교사와 함께 나누는 다양한 감정공유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직원 교육을 활용하였는데 특히 '러블리욱블리'교사교육은 단연 교직원 내에서도 으뜸이라고 칭할 만큼 교직원의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며 교직원의 권리에 대해 알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직원과 협력하고 가정과 동행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다 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영・유아가 내는 작은 소리와 작은 표현에도 몸과 마음을 다해 수용 하여 타인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세상 곳곳에 뿌리를 내릴 '청(聽)진기'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원에서도 끊임없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소나무어린이집 교사 후기 2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원장님, 선생님들과 함께 아동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원이 진행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청진기'라는 이름의 '청'은 '들을 청'으로 나부터 시작해 너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고 공감 해주자라는 뜻을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의 의의를 정의 내려 보았습니다.

방향성을 잡고 프로그램명을 정할 때 까지만 해도 이해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활동을 계획할 때 되니 다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고 무겁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또한, 영아 수준에 맞는 활동을 계획하기에 앞서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은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장 선생님과 선임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여쭤보기도 하며 권리와 관련된 서적과 검색을 통해 다시 한 번 권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영아의 경우 '너'와 '우리'라는 개념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내용의 활동을 우선 계획해보았습니다. 나의 겉모습을 먼저 관찰하고 알아본 후, 내 안에 자리 잡은 것들을 표현해봄으로써 영아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이 '나'에서 '너'로 넘어가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 영아들이 나에 대한 권리와 우리에 대한 권리를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뜻깊었습니다.

또한, 내가 계획했던 활동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해보고 활동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며 영아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함께 교직원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루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교사의 권리 또한 보호받는 것이 중요했기에 계획한 원내 활동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교육을 신청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았습니다. 교직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함께 업무 외의 시간을 보내며 여러 활동을 교직원들이 참여하고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권리에 대해 어렵게 느껴졌던 처음과는 달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당연시하게 여겼던 권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에 힘쓰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립소나무어린이집 부모 후기 1

먼저 '청(聽)진기 아동권리 존중'프로그램의 경기도지사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프로젝트들의 주제를 돌아보면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진행 해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 항상 열린 어린이집을 지향하며 늘 학부모와 소통하며 원칙을 철칙으로 생각하시고,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을 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던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한결 같은 모습과 끊임없는 노력이 수상으로 연결되어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 고양시립 소나무 어린이집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져만 갑니다.

우리 고양시립 소나무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이번 '청(聽)진기 아동권리 존중'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알사탕 프로그램의 가정연계 활동으로 내 아이의 마음과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을 색색깔의 알사탕이 빗대어 표현 해 보았는데 평소 내 아이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색 할 정도로 아이의 적극적인 표현에 예전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라고 마무리 짓던 하루가 현재는“오늘 하루 마음이 어땠어요?”라고 하루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입장으로 감동받았던 프로그램은 ‘어버이날 세수식’과 ‘감정신호등’활동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도 감정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던 활동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맞춰 생활하던 저에게는 제 아이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 할 수 있는 신선한 활동이였고 ‘우리 아이들도 타인의 마음을 들을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던 시간 이였습니다.

이러한 '청(聽)진기 아동권리 존중'프로그램에서도 소나무만의 재치만점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열정가득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쫑긋데이, 엉금엉금데이, 살금살금데이, 킁킁데이, 뭉게뭉게데이로 이루어진 ‘리듬데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활동으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표현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며 아이들도 ‘리듬데이’활동 후 활동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 하며 가정에서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덕분인지 하원 시 “오늘 하루 재밌었어~ 내일 또 어린이집 가자!! 엄마는 오늘 어땠어?”라고 표현하는 제 아이를 보며 “오늘도 우리 아이의 마음과 권리가 한 뼘 쑥쑥 자랐구나!” 라고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고양시립 소나무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기도지사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소나무어린이집 부모 후기 1

'청(聽)진기 아동권리 존중'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우리는 자라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가정 연계활동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일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과제를 받은 것 같아 부담스러운 마음도 조금 있었던 것이 사실 이였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의 빈칸을 채워 나가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 1살 때의 모습, 현재의 모습 사진을 담고 그 때의 내용을 기록하다보니 '그동안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랐구나!'하는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주제와 연결된 또 다른 가정연계 활동지를 받았을 때 '이번엔 무슨 내용일까?'하는 기대감이 들며, 프로그램을 시작하던 처음과 달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어버이날 세수식 행사에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서로 손을 씻겨주며 온전한 둘만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아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한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넨 '좋은 엄마 아빠 상'을 건네받고 제가 제 아이의 '부모'라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도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잘 키워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조금은 막연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나무 어린이집은 이러한 학부모의 궁금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여 부모 교육 자료를 제공 해 주셨고 어린이집 현관에 아동의 4가지 권리에 대한 안내 글과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분 공감하라."를 게시하여 존중받아야 하는 아동의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 우리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아이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어린이집을 만들어가기 위해 수고하시는 고양시립 소나무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동권리가 있어요

포천시
시립 송우어린이집

Ⅰ.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아동의 양육과 보호가 가정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김숙연, 2009).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가족제도의 핵가족과, 개인주의 팽배, 취업여성의 증가, 이혼한 가정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가족 구성원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동 보호에 소홀함과 더불어 학대행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처럼 아동보호 기능이 약화되며 더 이상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가정에서만 책임지도록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박숙인, 2007). 이에 따라 약화된 가정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이미숙, 2010). 발달 초기에 있는 영유아기에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질 높은 아동 권리존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이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많아지며 아동학대에 대한 질책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아동의 권리 침해 및 아동학대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권리존중을 위해서는 성인만이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다. 또한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존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 '우리에게는 아동권리가 있어요.'의 목적은 '다양한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아동권리존중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유아의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누리과정 기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놀이를 통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과 교사가 아동권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유아들의 권리를 더 올바르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

(1)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최근 몇 년 전부터 가정과 유아기관에서의 아동학대사례가 뉴스에서 보도가 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생기던 초반에는 아동학대를 한 것에 대한 질책과 징벌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있었지만 점차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며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교육을 통하여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부모와 교사들이 알고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①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②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정서학대: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및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성 학대: 성인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배우로 출현, 성인물 판매 행위

-방 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2) 아동권리존중

(1) 아동권리존중의 정의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주체인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성,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 권리이며,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4).

(2) '아동권리존중'에 관한 중심개념

- 아동은 태어나서 19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지이다.
- 아동권리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며, 아동들이 갖는 권리를 말한다.
- 아동권리에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이 있다.
- 생존권이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말한다.
- 발달권이란 교육 받을 권리와 놀 권리를 말한다.
- 보호권이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 참여권이란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Ⅱ.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기간

2018년 3월 ~ 2019년 1월

2) 활동대상

만 3~5세 유아, 부모, 어린이집 교직원

3) 프로그램 연간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 '우리에게는 아동권리가 있어요.'는 아동과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함께 아동권리존중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 부모, 교사의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였다.

연간계획안

월	활동명	대상	방법
3월	존중이란?	만3~5세	'존중'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에 대해 알아보며 간단한 존중을 경험해본다.
4월	아동권리는 무엇일까요?	만3~5세	안전교육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를 진행하며 유아들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5월	아동권리존중 프로젝트 "우리에게는 아동권리가 있어요."	만4~5세	유아들이 프로젝트 '우리에게는 아동권리가 있어요.'에 참여하며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스스로 아동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한다.
6월	부모참여수업 "헨젤과 그레텔"	만4~5세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내용을 각색하여 아동권리존중에 앞장서는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님처럼 나의 권리를 존중해주시는 부모님과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들을 해본다.
7월	아동권리존중 캠페인 "아동권리 존중해요."	만4~5세	거리로 직접 나가 아동권리존중을 알리는 캠페인에 참여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해 알린다.
8월	"우리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요리활동	만3~5세	유아들과 몸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인 생존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몸에 좋은 자동차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본다.
9월	아동권리존중 동화 "너는 특별하단다."	만4~5세	부모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동권리존중에 관련된 동화인 "너는 특별하단다."를 읽어보며 아동권리에 대해 생각해본다.
10월	미션 "존중을 받아라~!"	만3~5세	가정에서 존중받는 경험을 하며 나는 소중한 사람임을 느낀다. 존중받은 소감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11월	나의 권리를 지키는 부모님께 감사해요	만5세	아동권리를 지켜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차와 그림편지를 선물한다.
12월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해요	만3~5세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해줄 수 있을지 알아본다.
1월	우리가 입학할 초등학교에 견학을 가요	만 5세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기관인 초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견학을 다녀온다.

학부모참여프로그램

월	활동명	방법
3월	영아반 적응을 위한 부모교실 활동	보호자가 영.유아와 교실에서 함께 놀이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고, 보호자의 참여로 담임교사와 영유.아의 친밀감을 높여본다.
6월	부모참여수업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각색하여 4가지의 아동권리 테마로 꾸며진 활동에 참여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동권리존중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7월	아동권리존중 캠페인 “아동권리 존중해요.”	아동권리존중 캠페인에 부모가 인솔을 도우며 유아들이 안전하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8월	“우리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요리활동	아동의 권리인 생존권을 알고, 유아들의 생존권을 위해 요리활동에 도움을 준다,
9월	아동권리존중 동화 “너는 특별하단다.”	부모님께서 유아들에게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동화인 “너는 특별하단다.”를 직접 읽어주시며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아동권리에 대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10월	미션 “존중을 받아라~!”	유아와 미션을 시도하며 부모의 입장에서 유아들을 존중해주며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가져본다.
11월	나의 권리를 지키는 부모님께 감사해요	나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차와 그림편지를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교사 및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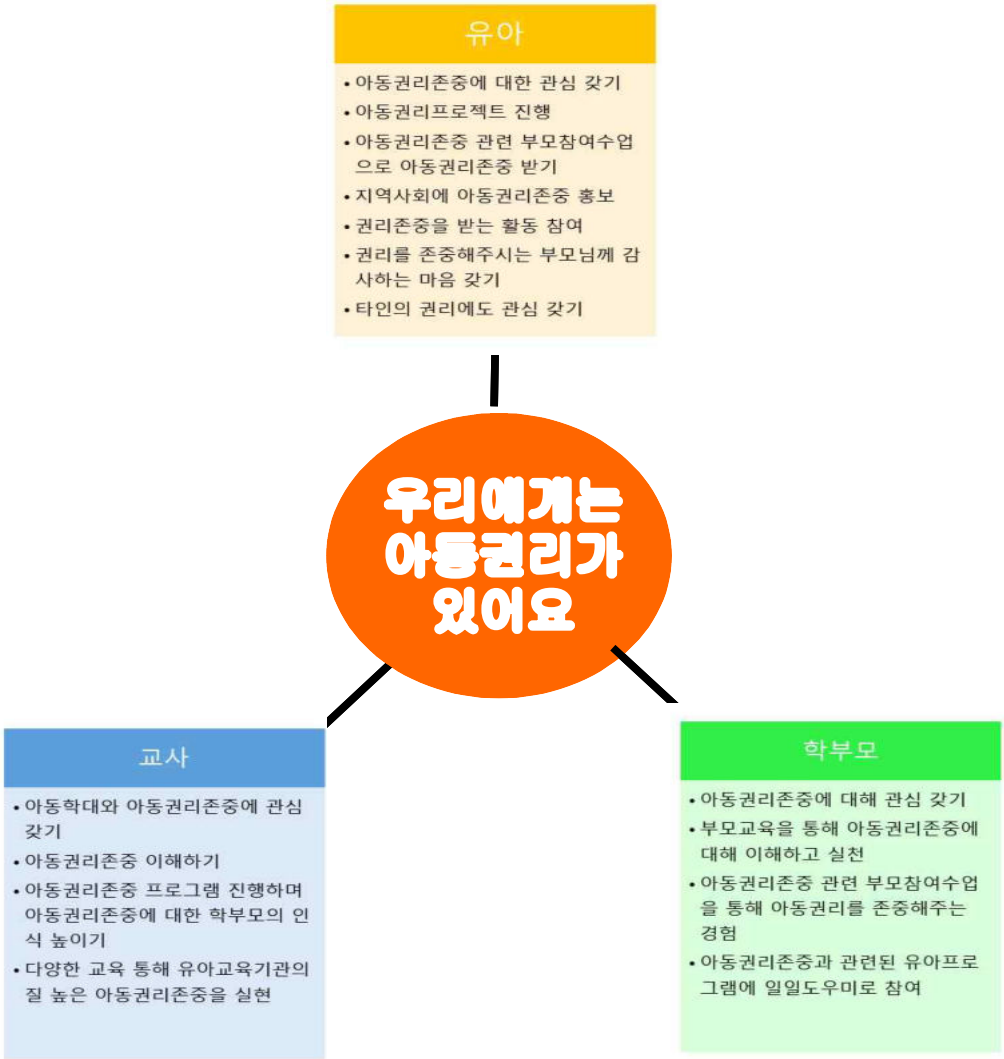
월	교육명	방법
2월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2019학년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아동권리존중프로그램을 실시함을 소개함과 아동 성폭력 예방법과 아동학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4월	자존감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 정보를 얻으며 자녀의 자존감 키워주는 방법을 알아본다.
6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양육방법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양육방법을 알아본 후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운 점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한 것들을 알아본다.
9월	아동권리 존중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존중에 대해 알아보고, 평소 자녀 양육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고, 교사들은 아동권리존중을 하는 올바른 보육방법을 정확히 이해한다.
10월	아동권리존중 교사교육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아동권리존중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들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보육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이해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질 높은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알아본다.

4) 활동방법

2018년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부모들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를 높이고, 가정과 연계하여 질 높은 아동권리존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소개하고, 부모참여에 대해 독려하였다.

계획단계에서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아, 부모 프로그램에 유아와 부모가 참여하며 아동권리존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세워 실행하였다.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 '우리에게는 아동권리가 있어요.'는 유아, 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아동 및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동 계획 및 실행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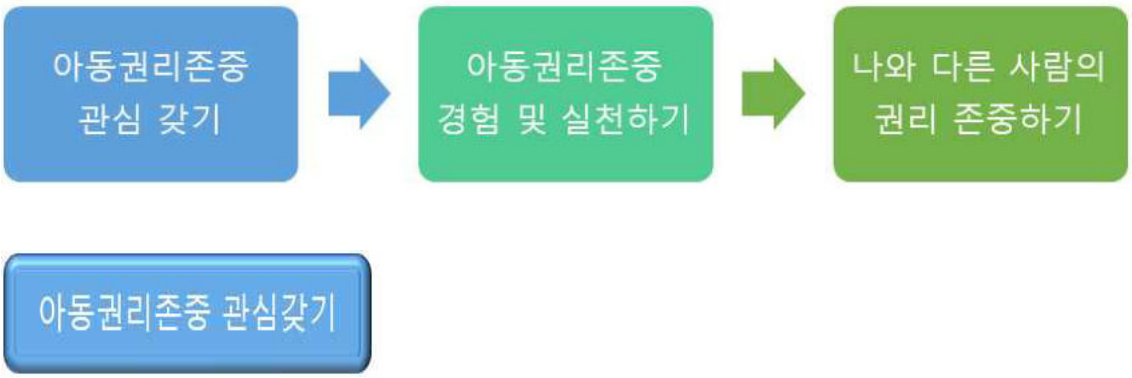
▷활동1

활 동 명	존중이란	생활 주제	어린이집과 친구
활동 목표	▪ ‘존중’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존중의 의미를 알아본다.		
표준(누리) 보육과정 관련요소	▪ **사회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 **사회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나의 감정 조절하기 >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 ▪ **의사소통> 듣기>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인성관련요소	▪ **존중**		
활동 유형	이야기나누기	대상 연령	만3세 ~ 만5세
활동 형태	대집단	소요 시간	20분
교수 자료	노트북, 모니터, ‘존중’ 이야기나누기 PPT, ‘우리는 모두 친구에요’ 동영상자료		
활동 방법	〔도입〕 1.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노래를 부른다. 〔전개〕 1. ‘존중’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화면에 무엇이라고 써있나요? -‘존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 어떤 상황에 존중이라는 말을 쓰나요? 2. 존중에 관한 이야기나누기 자료를 보며 존중의 의미를 알아본다. -존중은 어떤 것이라 했을까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3. 존중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다. -영상에서 어떤 친구가 나왔나요? -곰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북극곰이 나만 곰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곰들은 어떻게 하며 화해를 하게 되었나요? -그러면 곰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친구의 기분이 좋을까요? 4. 존중을 하는 여러 상황을 모의로 유아들과 해본다. -친구가 아침에 등원했을 때 어떤 행동으로 존중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놀고 있는 장난감으로 놀고 싶은 때 어떤 행동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행동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 1. 존중에 대해 알아본 것에 대해 평가를 해본다. -존중이라는 것을 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활동을 하면서 즐거웠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나요? 2. 존중을 하는 모습으로 화장실에 다녀온다. -우리 서로 존중을 하며 화장실에 다녀와볼까요?		
평 가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존중’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작을 가져보았다. 유아들이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할 때 존중이라는 말 자체를 생소해하는 모습을 보여 존중의 의미를 설명해준 후 유아들의 수준에 맞춰 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예시를 이야기해주자 점차 ‘존중’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보이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과 간단한 손유희도 해보고, 동영상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유아들이 무겁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야기나누기 활동 후 존중이라는 단어를 교사가 일상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아들도 존중이라는 단어를 점차 사용하며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였다. 존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어 유아들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아들이 존중을 받아야할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아 볼 준비가 된 것 같다.		

▷활동2

활 동 명	아동권리존중 캠페인 “아동권리 존중해요!”	생활 주제	즐거운 여름
활동 목표	▪ 아동권리존중의 중요성을 안다. ▪ 아동권리존중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험을 한다. ▪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존중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 부모가 일일보조교사로 함께 참여하며 유아들의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높은 관심을 경험한다.		
표준(누리) 보육과정 관련요소	**▪ 건강하게 생활하기>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 예술적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인성관련요소	**▪ 존중**		
활동 유형	캠페인	대상 연령	만4세 ~ 만5세
활동 형태	대집단	소요 시간	1시간
교수 자료	유아들이 직접 디자인한 캠페인 피켓, 캠페인 팜플렛, 캠페인 썬캡, 아동권리노래 음원, 휴대용 오디오		
활동 방법	〔도입〕 1. 아동권리존중 캠페인에 대해 소개를 한다. 2. 캠페인을 다녀올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전개〕 1. 신청하신 부모님의 인솔도움을 받으며 거리로 캠페인을 나간다. 2. 사전에 유아들과 미리 정한 구호를 다함께 외치며 거리를 다닌다. 3. 지나다니며 발견하는 행인께 “아동권리를 존중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유아들이 사전에 미리 만들어놓은 팜플렛을 나누어준다. 4. 최종 도착지(지역 하나로마트 앞)에 도착하면 준비된 아동권리존중 음원에 맞춰 유아들이 좋아하던 동요(오! 해피데이)를 개사한 것을 열심히 부르고, 유아들과 가사에 맞춰 함께 만들었던 율동을 하며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홍보를 한다. 〔마무리〕 1. 캠페인에 참여한 것에 대한 칭찬과 함께 특별선물 하나로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나눠 주고, 참여한 유아, 부모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2. 캠페인에 참여한 소감을 아동,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눈다. 3. 캠페인은 끝났지만 앞으로 아동권리존중에 앞장서는 어린이와, 부모님이 되기를 약속하며 마무리한다.		
평 가	유아들과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알리는 방법들 중에서 유아들과의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것들을 모아 캠페인을 해보자 유아들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였다. 교사의 생각보다 유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팜플렛을 나누어주며 “아동권리를 존중해주세요.”씩씩하게 말해주는 모습을 보여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캠페인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캠페인을 본 어른들에게는 아동권리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한 부모님들이 함께 인솔에 참여해주시며 부모들의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관심도 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활동이 진행될수록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관심을 점차 확대시키고, 아동권리존중을 경험하며 아동이 스스로 권리가 있는 소중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계획을 하였다.



▶ 3월 <존중이란?>

존중이라는 단어를 유아들에게 소개를 하며 존중이 어려운 것이 아닌 실생활에서 유아들이 알고, 존중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동영상 '우리는 모두 친구에요'를 시청하며 존중의 의미와 실생활에서 존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존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4월 <아동권리는 무엇일까요?>

손인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상황을 연출하여 도입을 하며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은 아동권리가 있어 존중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유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입을 하며 유아들에게 '아동권리'라는 단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묻자 유아들 대부분 매우 생소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의 4가지 권리 이름과 의미에 대해 소개를 하자 유아들이 이해를 하며 권리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상황과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유아들과 구분해보았고, 코코몽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코코몽과 함께 배우는 아동권리헌장 우리에겐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동영상을 사전에 준비하여 유아들이 더 즐겁게 아동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유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참여하였다. 또한 동화 '우리에게는 아동권리가 있어요'를 통하여 아동의 4가지 권리를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자 아동의 권리 4가지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였지만 각 권리의 쉬운 의미는 기억하며 말로 표현하였다. 시간이 길지 않아 아동의 권리를 매우 자세하게 알지는 못 했지만 권리를 받는 유아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행복할 것 같다고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동권리존중 경험 및 실천하기

▶5월 <아동권리존중 프로젝트 "우리에게는 아동권리가 있어요.">

4주로 계획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유아들의 관심이 높았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프로젝트 중간에 6주로 기간을 늘려 진행을 하였다. 6주 동안 유아들과 아동의 4가지 권리를 소주제로 각 흥미영역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소집단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존중을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적어 초기에 염려가 많았으나 교사도 아이들과 함께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며 다양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6주 동안 '아동권리존중이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인 생존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인 발달권',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인 참여권'을 진행하며 마지막에는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방법을 유아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어떻게 아동권리존중을 홍보할 것인지를 정하고, 유아들의 투표로 결정된 아동권리존중 캠페인을 다음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동권리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마지막에 아동권리 지킴이 시상식에서 유아들이 직접 그린 아동권리포스터로 포토존을 만들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다.

아동권리존중 프로젝트 주차별 소주제

- 1주 • 아동권리존중이란?
- 2주 • 생존권(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 3주 • 보호권(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4주 • 발달권(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 5주 • 참여권(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 6주 • 참여권 & 아동권리존중 홍보방법 투표 & 아동권리지킴이 시상식

아동권리존중 프로젝트 계획안

(가정배부 계획안&안내문)

프로젝트 교육계획안

1) '아동권리존중' 프로젝트 안내

주제	**아동권리존중 프로젝트 "우리에게는 아동권리가 있어요."** **(관련주제: 나와 가족)**	
학습예상 시기	2018.5.21.(월)-2018.6.29.(금) (6주간)	
주제 선정 이유	유아반 안전교육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를 진행하면서 유아들이 권리에 대해 알아본 후 자신의 생활과 다름을 느끼고, 교사에게 "선생님, 나는 아침밥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줘요.", "선생님, 왜 어른이 시키는 것은 다 해야하나요?","우리 아빠는 나 안 좋아해요.", "어른이 시키는 것을 안 하면 혼나요.",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래서 아이들의 권리를 알려주고, 스스로 그 권리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교육목표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안다. -생존권을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 -발달권을 이해하고 스스로 궁금한 것을 배우고, 놀이에 참여한다. -보호권을 이해하고 서로 차별하거나 받지 않고 존중한다. -참여권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직접 결정에 참여한다. -아동권리존중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며 아동권리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경험을 한다.	
'아동권리 존중'에 관한 중심개념	1) 아동은 태어나서 19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지이다. 2) 아동권리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며, 아동들이 갖는 권리를 말한다. 3) 아동권리에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이 있다. 4) 생존권이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말한다. 5) 발달권이란 교육 받을 권리와 놀 권리를 말한다. 6) 보호권이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7) 참여권이란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가정에서 도와주세요	유아와 함께 하실 일	1.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아동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2.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책을 보거나 인터넷으로 '아동권리존중'을 검색해보세요. 3.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자원협조	뒷장에 나와있는 자원 목록을 보시고,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이외의 '아동권리존중'과 관련된 어떤 자원도 환영합니다.
	전문가/자원봉사	유아들에게 '아동권리존중 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분을 전문가로 모십니다.

2) '아동권리존중' 자원 목록표

1차적 자원	**사람**	사회복지사 찾아오는 아동인권교육	
	현장 견학장소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서울시민안전체험관	
2차적 자원	**책**	**정보를 주는 책**	우리에게는 아동권리가 있어요.
		그림책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썸키즈) 큰다는 건 (키즈엠) 사자도 꼼짝 못하는 우리 엄마 (키즈엠) 미운 아기 오리 (한국삐아제) 희망과 그레텔 (한국삐아제) 나쁜 비밀이 있어요 (별똥별) 뽀뽀하기 싫어요 (별똥별) 싫어요! 하지 마세요! (풀잎나라) 싫어요! 안 가르쳐 줄래요! (풀잎나라) 자전거를 타요 (풀잎나라) 부릉부릉 안전하게 타요 (풀잎나라) 휴식이 필요해요 야누슈 코르착 언제나 칭찬 모두 나를 사랑해 소원을 그리는 아이 나 여기서 살아도 되니? 같이 놀자 루이 어른이 되는 날 어른들은 왜 그래? 코코몽과 함께하는 우리에겐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동요	-아이지킴이 Song -슈퍼 파워 -나의 꿈 보따리 -오! 해피데이	
	관련 동영상	코코몽과 함께 배우는 아동권리헌장 (https://www.youtube.com/watch?v=J8xLDW1BXI0)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RTtar6XRMY) 우당탕탕 아이쿠- 아이쿠와 지구순찰일지(어린이폭력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jBy8gK5YY_U) 옆유아써 설루션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우리는 소중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H33wTY72U0s) 지식채널e- 어린이를 사랑하는 법 (https://www.youtube.com/watch?v=66WWW182-ro) 역사채널e- 아동인권 (https://www.youtube.com/watch?v=7XbY8jeVFlg) 아동학대 예방- 친구 몸에 멍자국이 있어요! 내 친구의 미소를 찾아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nQMYUIQKCHw)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화 '잠겨진 문' (https://www.youtube.com/watch?v=-QQcCVxaFqU) 아이지킴이콜 송 (https://www.youtube.com/watch?v=BetIJ9RIOKoY)	
	관련 웹사이트	유니세프 (http://www.unicef.or.kr/) 한국아동단체협의회 (http://kocconet.or.kr/?page_id=3565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국제아동인권센터 (http://incrc.org/go_childrights/)	

어린이의 약속

나는,
나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친구들의 권리도 잘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아이들의 흥미나 원의 사정에 따라 프로젝트 활동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사진

<조형-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모자이크>

<언어-아동권리존중 리플렛>

<조형- 안전한 우리 집>

<조형- 아동권리존중 포스터>

<쌓기- 보호해주는 우리 집 구성하기>

<실외활동-'존중'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함께 존중하는 협동달리기>

<언어- 서로를 존중하여 협동을 실천하는 말 책>

<대소집단활동- **아동권리존중 홍보방법을** 투표해요>

<아동권리지킴이 시상식 & 아동권리 존중 포스터>

▶6월 <부모참여수업 "헨젤과 그레텔">

각색한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들려준 후 아동권리존중과 관련된 4가지 테마(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로 부모참여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며 유아들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4가지 테마의 활동 후 각 반으로 모여 나의 권리를 존중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노래선물과 세족식을 통해 유아와 부모님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

각색동화 "헨젤과 그레텔"

옛날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들 헨젤과 그레텔이 살고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들이었지요.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님은 아동권리를 존중해주시는 부모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나쁜 마녀가 숲속에서 놀고 있던 헨젤과 그레텔을 부모님 몰래 데리고 가서 괴롭히고, 배가 고프도록 굶기며 일만 시켰어요. 헨젤과 그레텔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헨젤과 그레텔을 열심히 찾으러 다녀 결국 구출해주었어요. 마녀에게서 상처를 받았던 헨젤과 그레텔은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와 상처도 치유 받고, 아동권리도 존중받으며 행복한 날을 지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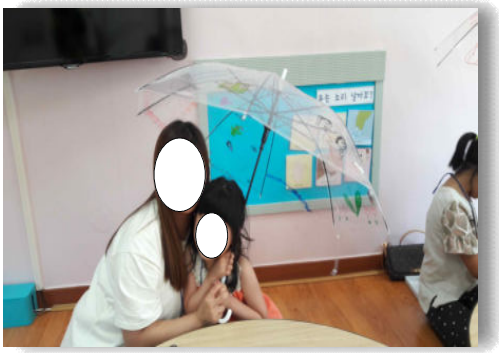
부모참여수업 일정표

시간 및 활동명	활동			
등원 (9:40~9:50)	-등원 -이름표 달기			
하루일과소개 (9:50~10:00)	-원장님 인사말 -동극(헨젤과 그레텔) -주의사항(주임선생님) -조별 이동(피켓가지고 이동) *조장 정하기			
부스활동 (10:00~12:00) *10분 전 정리 *5분 전 이동	1조	2조	3조	4조
	발달(체육)	생존(요리)	보호(조형)	참여(퍼포먼스)
	참여(퍼포먼스)	발달(체육)	생존(요리)	보호(조형)
	보호(조형)	참여(퍼포먼스)	발달(체육)	생존(요리)
	생존(요리)	보호(조형)	참여(퍼포먼스)	발달(체육)
감동의 시간 (12:00~12:30)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헨젤과 그레텔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서 좋은 점 인터뷰 동영상 -엄마, 아빠에 향한 노래 선물 -세족식 -부모참여수업에 대한 평가			
귀가 (12:30~)	-교사와 인사하며 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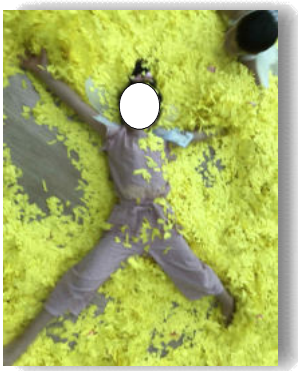
부모참여수업 활동별 계획안 및 사진

활동제목		**'생존하러 Go Go' 요리활동- 과자집 만들기**
활동목표		여러 가지 과자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집을 꾸미면서 요리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아동권리 존중에서 생존권을 이해하고, 안전한 집을 인식할 수 있다.
활동대상		만 4세-만5세
활동내용	준비물	여러 가지 과자들, 생크림, 딸기쨈, 빵, 아이스크림 수저, 케익상자, 접시, 빵칼, 유아들이 사전에 만든 팻말, 도넛, 음료수
	활동방법	<도입> 1. 헨젤과 그레텔 동화 속에 등장하는 과자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 안전한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전개> 3. 오늘의 요리를 소개한다. 4. 과자집 만드는 순서와 지켜야할 약속을 알아본다. 5. 과자집 만드는 시범을 보인다. 6. 부모님과 함께 과자집을 만들어본다. <마무리> 7. 부모님과 함께 만들며 남은 재료와 준비된 도넛을 시식한다. 8.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
활동평가		안전한 우리 집이라는 주제에 맞춰 부모님과 집이 있어서의 고마움을 이야기 나누며 진행되는 모습이 보였다. 우선 유아들이 과자라서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만드는 방법도 쉬워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완성되는 자신의 집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으며 엄마와 함께 활동을 하여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유의점		과자집을 케익상자보다 높게 만들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만큼의 재료만 사용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활동제목		‘보호해주세요’ 조형활동 – 우산 만들기
활동목표		미술 재료를 이용하여 나만의 우산을 구상한다. 아동권리 존중에서 보호권을 이해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활동대상		만 4세-만 5세
활동내용	준비물	순서도, 우산, 유성매직, 스티커, 가위, 비닐봉지
	활동방법	<도입> 1. 활동명을 소개하며 보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 헨젤과 그레텔 동화 속에서 헨젤과 그레텔을 보호해준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전개> 3. 우산 만드는 순서도를 보며 활동방법을 알아본다. 4. 유성매직과 스티커를 이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우산을 꾸며본다. <마무리> 5. 주변의 사용한 자리를 정리정돈한다. 6. 부모님과 함께 꾸민 우산을 소개한다. 7.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무리한다.
활동평가		우산을 소개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족과 연계하여 이야기를 나누자 유아들이 가족의 중요성과 감사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나만의 우산을 꾸며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물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유아들이 직접 만든 우산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기대감을 표현하며 재미있게 참여하였던 것 같다.
유의점		유성매직이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를 함. 자신이 사용한 후 나온 스티커종이를 스스로 정리정돈 할 수 있도록 함.



활동제목		‘참여 속으로’ 오감퍼포먼스- 나비 되어보기
활동목표		몸을 움직이면서 대근육 발달을 돕고, 부모와 함께 활동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아동권리 존중에서 참여권을 이해하고, 놀이에 참여하는 경험을 한다.
활동대상		만 4세-만 5세
활동내용	준비물	습자지, 작은 우산, 꽃잎, 바구니, 나비 날개, 나비와 곤충 모빌
	활동방법	<도입> 1. 활동하는 공간을 탐색한다. 2. 오늘의 활동을 소개한다. <전개> 3. 습자지를 탐색해본다. 4. 습자지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본다. -습자지 던지기 / 바구니에 습자지 넣어 날리기 우산에 습자지 넣어 날리기 / 나비 되어보기 <마무리> 7. 활동한 도구를 함께 정리한다. 8.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
활동평가		퍼포먼스 교실로 이동하여 현수막으로 채워진 숲을 발견한 유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다. 습자지의 특징인 쉽게 날리는 특성으로 인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를 하며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활동이 진행될수록 나의 아이뿐만이 아니라 구분 없이 친구의 부모님과도 함께 즐기며 온몸을 움직이면서 놀이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유아들이 원하는 도구를 선택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구성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였다.
유의점		도구를 이용하여 습자지를 날릴 때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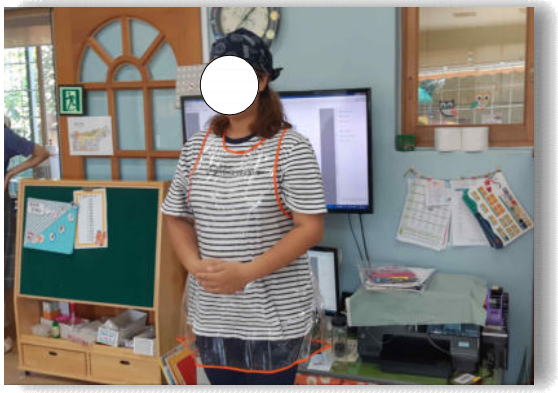


활동제목		‘발달이 쑥쑥’ 체육활동 – 링고리
활동목표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대근육발달을 돕는다. 아동권리 존중에서 발달권을 이해하고, 나의 발달을 도와주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활동대상		만 4세-만 5세
활동내용	준비물	링고리, 링고리걸이
	활동방법	<도입> 1. 발달권에 대해 소개를 한다. 2.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와 연계하여 설명을 해준다. 3. 체조를 따라 하며 준비운동을 한다. <전개> 4. 링고리를 소개한다. 5. 링고리를 이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놀이를 해본다. - 링고리 탐색하기 / 링고리걸이에 빠르게 걸고 돌아오기 내 몸에 링고리 걸기 / 부모님의 몸에 링고리 걸며 놀이하기 <마무리> 6. 함께 링고리를 정리한다. 7.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
활동평가		도입 시 발달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발달권을 존중해주시는 부모님과의 체육을 한다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유아들이 체육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에 부모님과 함께한다는 것에 더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유아들이 링고리걸기를 집중하여 걸고 자신의 몸에 걸었을 때에도 집중하며 자신의 몸을 조절하여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유아가 승부욕으로 인해 친구가 먼저 했다는 것에 속상해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없이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유의점		링고리를 던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유아들과 프로젝트 활동 마지막 단계에서 유아들이 어떻게 아동권리존중을 홍보할지 직접 투표를 하여 정한 아동권리존중 캠페인을 다녀오자 유아들이 캠페인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였다. 유아들이 직접 만든 팜플렛, 피켓, 구호, 개사한 노래와 율동을 미리 준비하고, 캠페인에 쓰고 갈 썬캡을 아침에 디자인하여 착용 후 다녀왔다. 유아들이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이라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보이며 유아들의 팜플렛을 잘 받아주시고,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였다. 열심히 참여하는 유아들에게 지역의 상인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기도 하며 지역사회에도 아동권리존중을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또한 부모님께서 인솔도우미로 함께 해주시며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인 유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동권리존중에 부모의 입장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

▶8월 <"우리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요리활동>

아동의 4가지 권리 중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인 **생존권**과 관련된 활동으로 유아들이 평소 좋아하지 않지만 건강에는 좋은 샐러드를 유아들이 재미있게 만들어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8월의 생활주제인 교통기관과 관련되어 자동차 모양의 빵에 샐러드를 넣어 요리하는 자동차 샐러드를 만들어보았는데 유아들이 요리활동 자체에 흥미가 높아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하였다. 부모님께서 요리활동의 일일도우미를 해주셔서 유아들이 요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아동과 부모님이 함께 아동권리에 대해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었다. 유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샐러드였지만 요리를 통하여 조금 더 즐겁게 먹어볼 수 있는 활동이었다.



▶9월 <아동권리존중동화 "너는 특별하단다">– 부모 일일교사(동화 구연)

부모님께서 동화를 읽어주실 준비를 해오신 후 유아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동권리와 관련된 동화인 '너는 특별하단다.'를 읽어주셨다. 평소에 자주 경험한 교사가 읽어주는 것이 아닌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것이어서 그런지 유아들이 더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화의 내용이 길어 동화의 마지막까지 읽어주시지는 못하셨지만 활동 후 교사와 이어서 읽어 마지막까지 읽은 후 유아들이 동화에 나오는 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며 모든 아동의 권리는 존중받아야한다는 것을 느끼는 활동이었다.

동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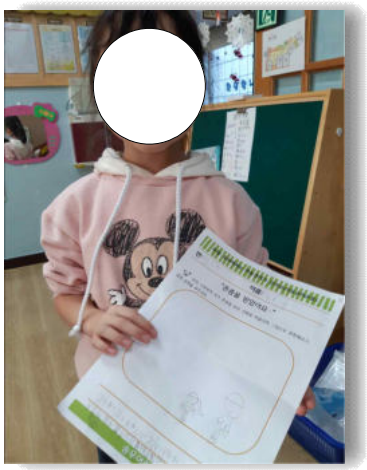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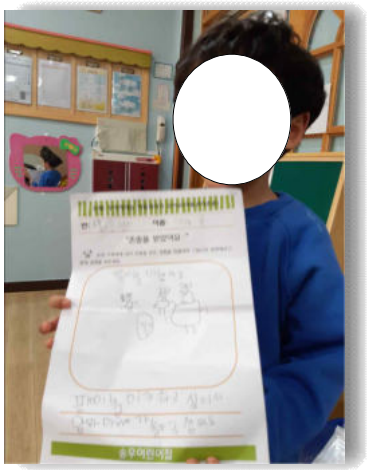
모두들 최최고 여사가 최고의 웜믹이라고 찬양합니다.
어떤 웜믹인들 최고의 웜믹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좋은 숲에서 나온 가장 단단한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웜믹만이 최고의 웜믹이 될 수 있다고 최최고 여사는 말합니다.
반대로 잘 휘어지고 약한 버드나무로 만들어진 펀치넬로는 마을 주민 모두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자신이 버드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슬퍼하고 원망하던 펀치넬로는 우연히 자신을 만들어준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엘리 아저씨가 일부러 버드나무를 선택해서 만든 특별한 존재란 것을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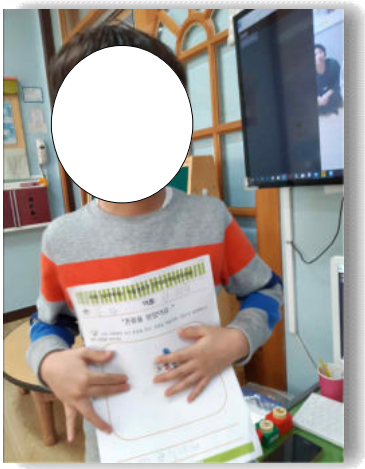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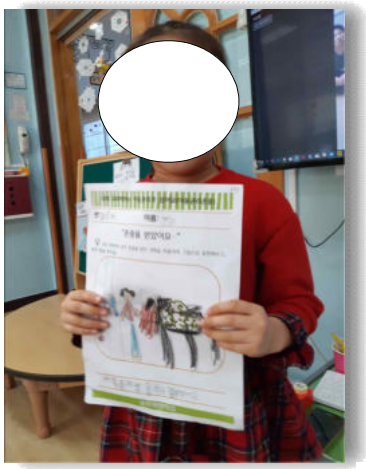
▶10월 <미션 "존중을 받아라~">

금요일 귀가 시간에 유아들에게 미션 "존중을 받아라~" 방법을 소개한 후 유아들이 주말 동안 아동권리존중을 받는 경험을 하고, 자신이 받은 아동권리존중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미리 활동지를 만들어 나누어주자 가정에서 경험을 한 후 어린이집으로 와 친구들과 아동권리를 존중받은 경험을 스스로 나누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에 참여한 유아들의 표정이 밝았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와 다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확장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미션

1. 가족에게 아동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을 한다.
2. 아동의 권리를 존중받은 경험의 인증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알림장에 올린다.
3. 자신이 경험한 아동권리를 존중받은 경험을 그림으로 활동지에 표현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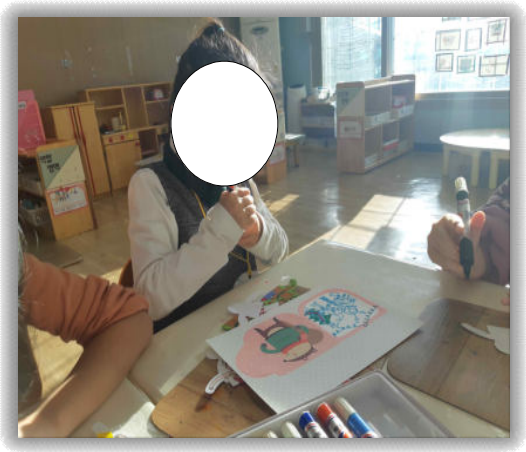



스마트폰 알림장
미션 수행사진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하기

▶11월 <나의 권리를 존중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해요>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그동안 알아보았고,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아들이 인식하였다. 그동안의 활동을 하며 유아들이 나의 권리를 존중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고, 추워진 날씨에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차 티백을 유아들의 그림편지와 함께 선물하는 활동이었다. 유아들이 부모님께 전하는 그림편지에 마음을 담는 모습을 보였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 후 스마트폰 알림장으로 전달받은 인증사진에서의 표정이 한결 같이 밝은 모습이었다. 유아들이 나의 권리만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더 사고가 확장되어 나의 권리를 존중해주시는 부모님도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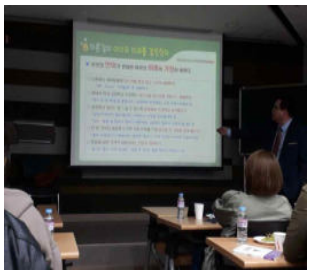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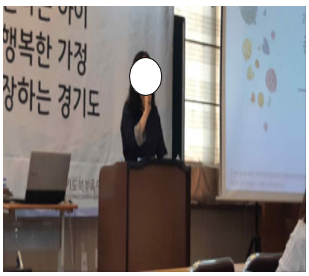


<부모님께 감사카드와 차 티백 인형 선물하기>

▶12월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해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에는 누가 있는지를 질문하자 초반에는 유아들이 어려워하였지만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분들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활동이었다. 유아들이 동화 "똥똥똥"을 통해 몸이 불편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5세반에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비슷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그 친구의 행동이 유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어 존중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동화의 내용이 흥미있어 유아들이 잘 집중하였고,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을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이야기 나누었던 좋은 활동이었다.

부모 및 교사 교육프로그램

회	교육명	교육사진
1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원내 교육)	
2	자존감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원내 교육)	
3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양육방법 (원내 교육)	
4	아동권리 존중 & 아동학대 예방교육 (원내 교육)	
5	아동권리존중 교사교육 (외부 교육)	

<부모교육 안내 및 신청서 예시>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권리존중을 통해 아동이 편견과 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권리가 보장되도록 아동권리인식을 증진하며,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대해 이해하며 가정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장　　소 : 송우어린이집 푸른반 교실
- 일　　시 : 2018. 9. 6.(목) 6:30 ~ 8:00
- 주최/주관 : 포천시청 가족여성과 드림스타트/송우어린이집
- 참가 대상 : 부모 및 보호자

◎ 안내사항

1. 부모교육은 정시에 시작하므로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어린이집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를 8월 21일(화)까지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세요.

※ 가정 통신문에 안내해 드렸듯이 참석하시는 분들께 3회 출석의 가산점을 부여해 드립니다.^^

국공립 송우어린이집

----------절취선----------

부모교육 신청서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반:_____　원아이름:_____　보호자 이름 : _____(부 . 모. 기타)

참석 합니다.	참석하지 못합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한 부모교육

가정 배부 자료

송우어린이집 아동 권리 존중 프로그램

1. 아동권리 존중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1)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2)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아동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아동의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
3) 가정과의 연계하여 보호자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2. 영유아 권리에 대한 책임

1) **국가**- 영유아 권리 실현을 위한 법과 정책 마련
2)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 국가가 낸 이행보고서를 검토하여 각 국가에게 시정이나 개선 할 사항을 권고
3) **민간단체**- 국가 이행보고서에 관한 정보와 자문 제공 및 보완
4) **어른**- 부모교사, 사법집행 공무원, 아동시설 종사자, 보건의료요원, 사회복지사 등
5) **어린이**- 어린이도 다른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 줄 책임

영유아 권리의 기본이 되는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연대책임, 사회적 책임

3. 아동권리헌장 내용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함.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

4.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

5.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을 이루는 일반원칙

1) **무차별의 원칙**-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그리고 인종과 국적 등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됨
2)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당사국은 아동에 관한 모든 정책과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보장의 원칙**-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이러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
4) **아동의 의사존중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들은 아동의 관점에서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함.

6. 가정 연계 아동권리 존중 교육 개요

부모교육 자료 및 부모교육, 가정 연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가 영유아의 4가지 권리에 대해 알고 가정에서 실천함으로 영유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생존권**- 영유아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2) **보호권** - 영유아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차별, 폭력, 그리고 고문과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또는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 영유아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더불어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또한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4)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함께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국공립 송우어린이집

<송우 18년 6월 22일 부모교육>

가정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실천 방법 안내문

1. 아동 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2. 학대의 유형

신체 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예)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발로 차는 행위, 두들겨 패는 무기로 위협하는 행위
정서 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두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예)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방임. 언어적 폭력(소리를 지르는 행동),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좁은 방에 가두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성 학대	· 성인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배우로 출현, 성인물 판매 행위 예)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성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계모나 계부, 친지, 이웃에 의한 강간 접촉 행위
성 학대	· 성인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배우로 출현, 성인물 판매 행위 예)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성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계모나 계부, 친지, 이웃에 의한 강간 접촉 행위
방 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예) 씻기지 않는 행위,, 소풍-견학시 도시락, 간식을 보내지 않는 행위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집에 두고 가출하는 행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교육적 방임, 몸이 아픈데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행위

3. 안돼요(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아동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폭력에 대해 털어 놓을 때...

	늘 평정을 유지하고 침착하세요. 부모의 반응이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노골적이고 솔직한 표현도 잘 받아주세요 당황스럽고 난처한 주제라도 피하지 마세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든지 이야기해도 좋다는 것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섣불리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5.아동의 이야기를 들은 후 ...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를 평가해 주세요 아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마음 쓰고 있다는 것,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아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세요 아이에게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아이에게 알려 주세요 폭력 유형에 따라 적절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6.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민주형 부모되기)

	· 아이의 생각, 감정, 욕구를 아이 처지에서 이해한다. · 아이가 사랑을 원할 때 안아주기 등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 · 아이가 부모에게 다가올 때 거부하지 않는다. · 매일 30분은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놀이를 매일 30분씩 함께 한다. · 가능한 한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책임지게 한다. · 부모의 생각을 곧바로 말하기보다, 아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표현할 기회를 준다. · 아이가 도움을 구할 때는 격려하거나 도와준다. · '안돼'라는 말을 남발하지 않는다. · 아이의 실수나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혼자 노력하는 것을 존중해준다. · 결과보다 노력하는 태도를 칭찬한다.

7.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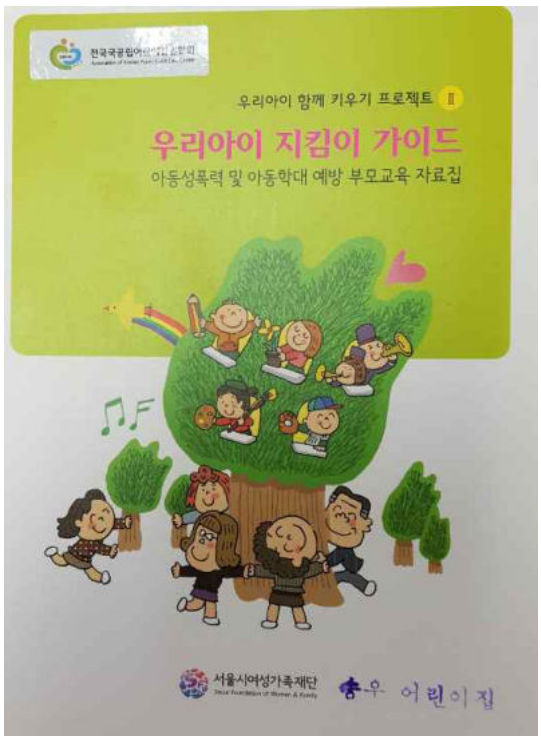
한 번의 미소	정확히 잘 하고 있어	대단한 발견이야~	네가 자랑스럽구나~	웃는 모습이 예뻐~	좋아 보이는데	넌 정말 멋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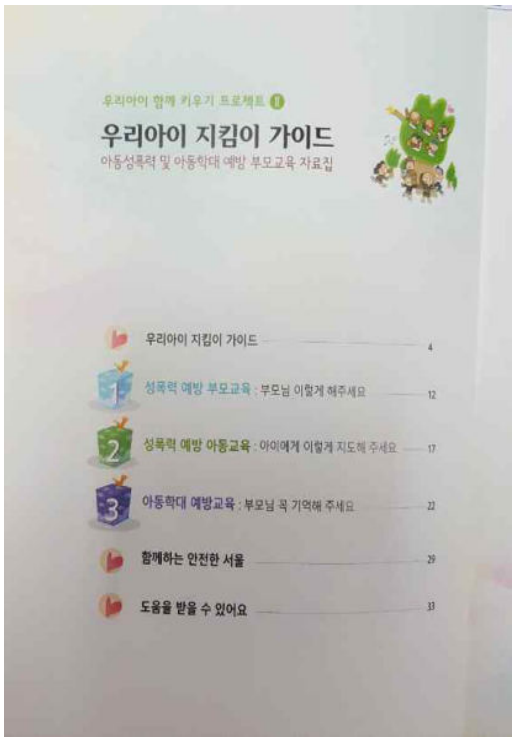
비밀을 알아 냈구나	네가 날 웃게 만든단다	너를 응원한단다~	난 네가 좋단다	넌 정말 중요하단다	너에겐 마음의 힘이 있어	넌 나의 희망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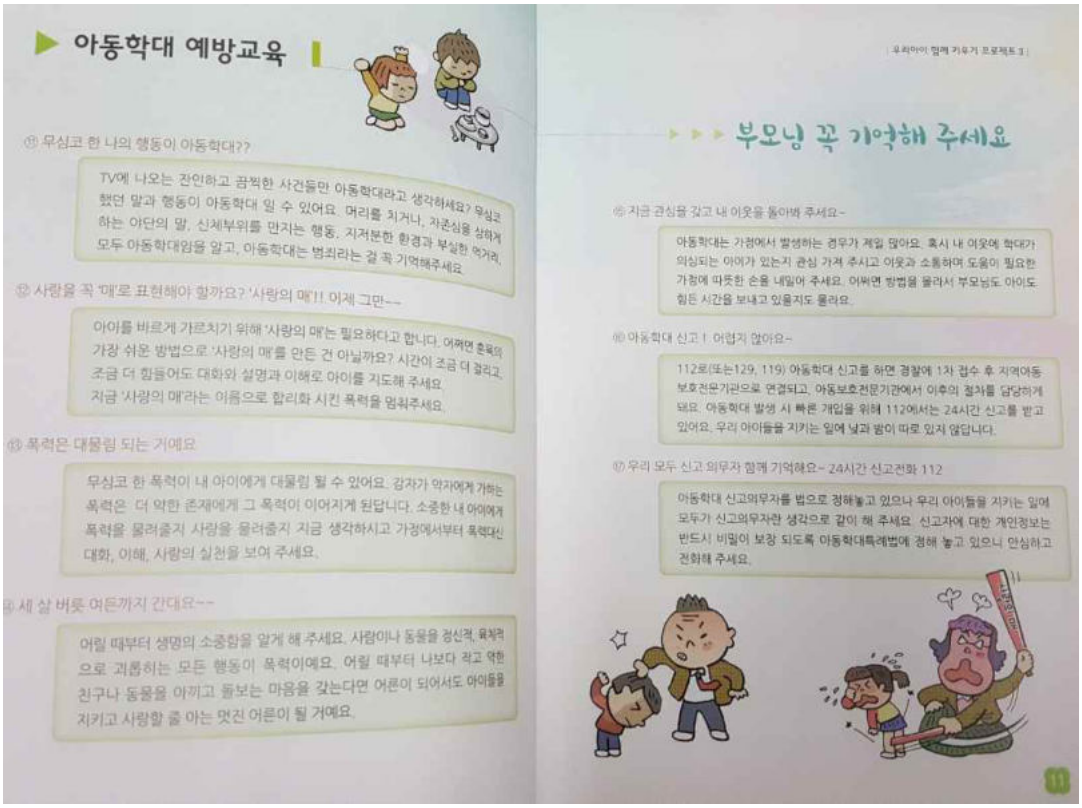
(출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교육센터, 한가족)

국.공립 송우어린이집 ☎031)542-1504

부모교육 및 배부 책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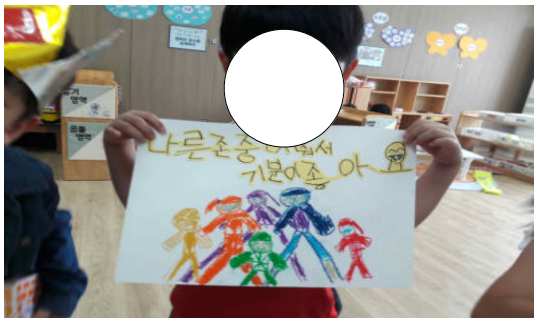






Ⅲ. 활동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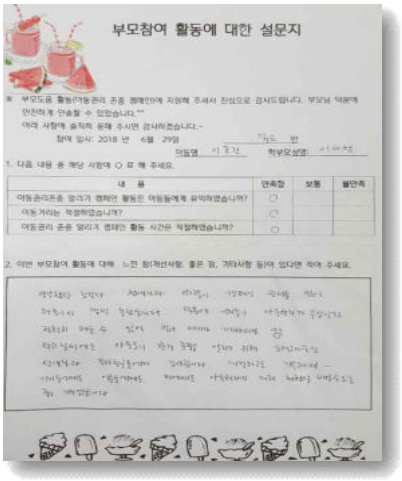
1. 아동평가(아동권리존중 인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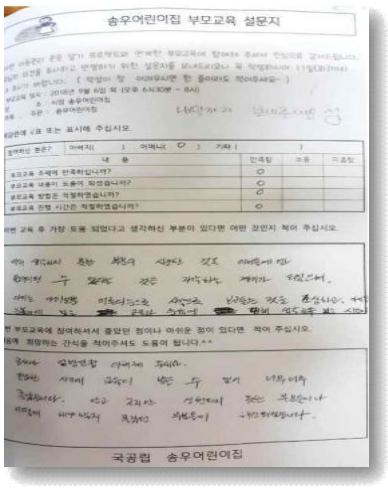
아동권리존중 프로젝트 -투표를 해요	아동권리존중 프로젝트 - 보호해주는 우리 집 구성하기
아동권리 지킴이 시상식	**아동권리존중 포스터**
	
부모참여수업 "펭귄과 그레텔"	**아동권리존중 캠페인**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아동권리존중이라는 단어 자체 유아들이 낯설어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아동권리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점차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며 유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아동들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도 점차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의 권리를 배려하는 모습이 늘어나는 모습이 생기게 되었다.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동권리존중이 필요하다는 것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존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2. 부모평가

부모 참여 수업 및 부모교육 설문지 예시





아동 권리 존중 관련 부모 참여 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

부모참여수업 "헨젤과 그레텔"

- 아동권리존중의 주제로 나누어서 활동하니 의미 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아이가 성장하고 커버린 모습에 감동을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모참여수업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중복된 의견이 많았음.)

아동권리존중 알리기 캠페인

-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캠페인 준비를 많이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아동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배울 수 있어 밝은 미래가 기대되네요. 더운 날시에도 아동권리존중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수진 선생님께 감사하며 꼬마친구들이 대견하고 기특하네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저에게도 아동권리에 대해 체험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아이들이 캠페인을 너무 열심히 잘 한 것 같아 기특했습니다.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요리활동

- 요리활동에 보조교사로 도움을 드리며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받아 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아이들이 자신의 생존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깊었고,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하여 어린이집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동권리존중해주시는 송우어린이집 고맙습니다.
- 요리 활동 시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아이들의 창의력에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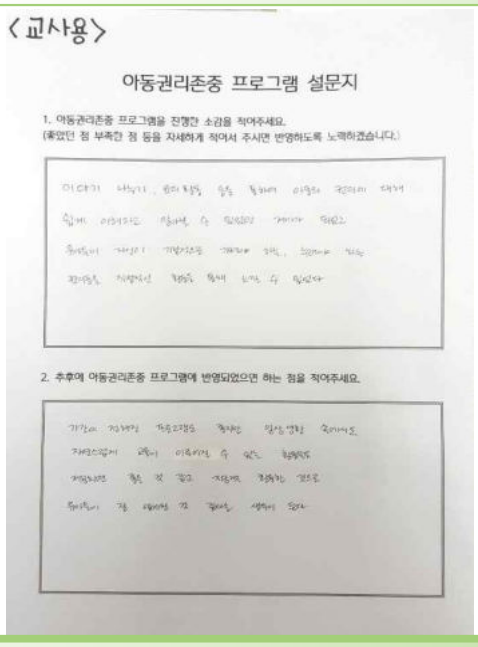
아동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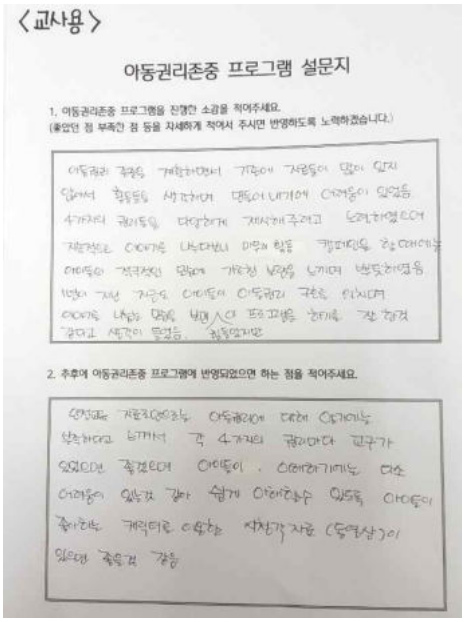
- 아동권리존중 및 학대예방교육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겠습니다.
- 이 교육은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사소한 것도 아이들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이가 보고 듣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훈육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 교사 평가

교사 교육

교사 평가 설문지 예시





아동 권리 존중 관련 교사 대한 평가 내용

교사 회의를 통해 아동권리 존중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며 교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반영하며 교육내용을 공유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교사의 설문지를 통해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1.진행 소감:

- 아동 권리 존중을 계획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서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4가지 권리에 대해 골고루 제시해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권리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역사회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아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교육한 보람을 느꼈다

-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아동 스스로가 존중받아야 하며 본인의 권리인 생존권, 참여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해서 알고 가정에서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2. 아동권리 존중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항

- 안전교육 교수자료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부족해서 직접 자료를 찾으며 시청각으로 제시하는 부분과 관련 교구들이 없는 것이 어려웠다.
- 아동권리존중에 관련된 4가지 권리가 교구로도 제작되면 어린 연령의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쉽게 이해하며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4.아동 권리 존중 프로그램 평가

캠페인 사진

아동 권리 존중 프로그램 평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매뉴얼이나 제공되는 자료가 많지 않아 직접 자료를 검색하면서 아동권리존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아들과 활동을 한다는 것에 처음에는 어렵기만 하고 막막하다는 생각이 컸으나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계획을 세우고 점차 유아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 막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것들이 많아 새로 깨달았던 부분들도 있고, 교사로서 조금 더 유아들의 권리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초기 3월에 시작할 때는 유아들이 권리와 존중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하고 생소해하였는데 이 주제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조금씩 활동해 나가면서 5월경부터 점차 아동권리라는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본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외워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주제와 연계하여 부모참여수업을 진행하고, 프로젝트도 하며 자신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스스로를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해주시는 부모님과 교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유아들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확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하기도 하였고, 다

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나의 권리뿐만이 아닌 친구,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우리의 존중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부모님들께 '우리아이지킴이' 소책자, 가정통신문, 가정 연계활동을 통해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부모참여 수업을 계획하여 아동권리존중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한 이후에는 부모님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의견을 존중해 주고 소통해야겠다는 마음을 보이셨다.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 부모, 교직원이 서로의 입장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고,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송우어린이집의 유아, 부모, 교직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잘 존중되는 세상에 한 발 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래 본다.

Ⅳ. 향후 타 어린이집에서 참고가 되는 제안

영유아기는 전 생애 발달의 기초가 완성되어지는 시기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또한 가정과 어린이집은 아동권리존중 구현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입니다. 아동권리존중은 영유아들의 가장 먼저 접하는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에 의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활동에서 보육교사의 태도로 부터 배우게 됩니다. 영유아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상황에서 자란 아동과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란 아동은 먼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자존감과 대인관계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보육과정을 진행하면서 보육교사가 매 순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권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느낀 것은 교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부모님에게도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준다면 자녀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존중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이고,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진행해 나가는 교사들 모두에게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올 것입니다.

아동권리존중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어렵다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아동권리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이 더 즐거울 것입니다. 아동권리존중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원장님,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2020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

송우어린이집에서는 2018년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것을 토대로 미흡

한 부분은 수정하여 실시하고, 잘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들에게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어린이집에서 상담해 주거나,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 주어 양육방법의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주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호자를 위해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부모교육 자료를 전년도보다 더 정기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사교육과 부모교육도 정기적으로 계획하여 더 많은 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게 하고, 가정에서도 아동권리존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집의 아동권리존중 관련 부모참여 활동을 여러 아이디어로 구상하고 계획하여, 보호자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더 존중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역과 국가의 모든 사람의 인식 변화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알고 인격체로 대하며 존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V. 참고문헌

양미례(201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8),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프로젝트Ⅱ
우리아이 지킴이 가이드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자료집

조명자(2016).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인식이 아동학대 방지노력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권리인식의 조절효과. 호서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시립송우어린이집 교사 후기 1

처음에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시작해야하는지 막막하고, 아동권리존중은 보여 지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하지만 막상 교육을 받으며 아동의 권리에 대해 먼저 알아보니 주제가 생각보다 잘 잡혔고, 아이들과 함께 교사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유아들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권리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안 것을 바탕으로 그동안 교사로써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반성하기도 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8지내왔지만 막상 그 기본이 생각보다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것 같았다. 프로젝트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 쉽게 이해하며 자신의 권리를 생각하고, 나의 권리를 존중해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까지 이어져 더 좋았던 것 같다.

부모참여수업과 요리활동, 캠페인 활동, 부모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님께서 유아들이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는지를 이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생각보다 적극적인 아이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시며 자신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 유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하셨다. 더불어 참여하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모님께서도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시며 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다. 또 부모교육에서는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며 공감을 하기도 다시 한 번 더 느끼시기도 하셨다고 하셔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유아, 가정이 함께 진행되어 즐겁기도 하고, 더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유아들이 주체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되는 기회가 되어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시립송우어린이집 교사 후기 2

처음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 하는 것이 막연하고 관련 교육 자료가 없어서 부담감과 함께 걱정이 앞섰지만 계획을 세우면서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흥미있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관련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유아들이 교사가 제시한 활동에만 그치지지 않고 더 나아가 창의력과 다양한 사고력을 보여 주었으며, 아동의 4가지 권리를 일상생활에서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알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가정연계 활동으로 부모님의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반기에 이루어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유아가 더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며 가정에서도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뿌듯함과 함께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면서 부모참여수업을 연계하였는데 부모님과 함께 아동의 4가지 권리에 대해 알아보며 관련 활동을 하였고 그 외 매달 유아들과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인지 졸업한 아이들도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지금까지도 기억한다는 졸업생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없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캠페인 때 합창했던 구호도 가끔 부르며 자신들이 배웠던 권리도 말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유아기 때의 교육과 경험이 더없이 중요함을 다시금 느껴보게 됩니다.

아동권리 존중 교육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진행해보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며 유아, 부모님 ,교사 모두 지속적이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시립송우어린이집 부모 후기 1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활동도 같아 참여하며 느낀 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를 단순히 양육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아이가 바라는 것이나 최선의 이익을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는 4가지 권리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아이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권리 존중 프로젝트 이후 아이가 여러 관심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편식을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임을 이야기 나누었을 때 아이가 자신의 입장에서 빠르게 이해를 하며 깊게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천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나의 건강해야할 권리를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그냥 잘 해주는 것이 아닌 올바르게 잘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세워져 좋았고, 혹시나 아이의 발달과 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무의식중에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립송우어린이집 부모 후기 2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부모님의 바쁜 일상에서 느끼게 해주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동권리존중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만 했는데 막상 부모 입장으로써도 활동 중간중간 함께 참여하니 느낀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존중하자는 활동들에 직접 도우미로 참여하거나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어떤 것들이 아이들의 권리인지 어떻게 존중해주는 방법인지 알아보니 그동안 생각 없이 아이의 이야기를 지나쳐 버리거나 엄마의 마음대로만 했던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아동권리존중 캠페인 일일보조교사로서 동네 마트까지 가는 길에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구호를 외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잘 한다고 칭찬해주니 아이들도 자신감이 더욱 생기고, 무엇보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참여를 했다는 것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웃음을 지어주네요. 부모참여수업 또한 매년 기다리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 아동권리존중이라는 주제가 색다르고 더 의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지막에 권리를 존중해주어서 고맙다며 노래선물을 해준 것도 다시 한 번 우리 아이에 대한 권리와 사랑을 생각해보고, 더 실천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준비해주시는 선생님들 매번 고생많으시고, 항상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시립송우어린이집 부모 후기 3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유롭게 누려야 할 환경과 활동을 ‘권리’라 합니다. 그 ‘권리’를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교육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인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일방적인 요구 및 행동을 했을 때 ‘아동권리존중’을 외치며 아이가 저에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부모교육이 2회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인 아동권리 존중 관련 부모교육이 연계되면 부모의 인식변화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동의 ‘권리’ 교육을 통해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이의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가치있는 아이로 만드는 마음이란 것 배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부모로써 교육을 받기 전 후 아이를 보는 시건, 느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을 듣고, 전부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실천하며 노력한다는 점이 가장 값진 ‘앎’이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시선 그 첫걸음

고양시
시립 장미어린이집

후기

시립장미어린이집 교사 후기 1

만4세 반의 담임을 하고 동시에 만4세 아이의 엄마인 나는 교사로서 부모로서 주양육자이자 간접적인 양육을 병행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존재는 모든 어른들이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
여러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로서 막연하게 마음과 정성만을 담았던 나의 육아 보육 철학에 명분과 목표를 구체화 시키고 실천을 체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동인권을 명확하게 짚고 이해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이유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었다.

이번의 아동권리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인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고 그 세부내용인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을 알게 되었다.
4가지 기본권리가 지켜질 때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펼치며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교사의 간섭을 덜 받으면서 아이들은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선행을 따라했던 군중 심리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을 표현하든 개성으로 인정받으며 존중을 하니 자존감이 오름을 목소리 크기와 의사소통의 말하기에서 느낄 수 있었다.
작게나마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느끼고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다시 인지 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권리인 이 4가지 항목은 양육자에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된다는 것이다.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교사뿐이 아닌 직간접적인 모든 양육자에게 해당되어지며 어쩌면 아이들을 접하는 모든 상황의 성인에게 해당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4가지 기본 권리에 따르자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으며 가능한 선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제재를 하는 일도 있었다.
질병과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안전의 울타리를 친다.
아동인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며 이러한 아이들에게 용인되어지는 것과 금해야 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는 수동적이지만 의무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하는 어려운 행동강령이라는 것이고 그 어려운 것을 실천해야하는 것은 의무자인 '우리', 곧 '나'라는 것이다.

지나온 시간동안 배우고 깨우쳤던 것과 앞으로 알게 되는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져 좀 더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하고 올바른 보육자이자 양육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시립장미어린이집 교사 후기 2

영유아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광대한 범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영유아들에게는 물론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변해야 함을 느끼고 그러한 활동에 불편함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따뜻한 시선, 그 첫걸음’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 ‘따뜻한 시선,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끌면서 나 또한 자녀를 두고 있음에 본인 스스로도 제 자녀에 대해 반성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현재 만 5세의 담임을 하고 있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각각의 아이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해결을 할 때 교사의 주도가 아닌 아이들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끼고,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참여권과 보호권들을 주장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가는 모습이 나타남을 보여주어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특히 금연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흡연은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활동이 끝난 뒤에도 현재까지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선생님, 저 사람 담배 피워요, 금연하세요”라고 하는 유아들이 있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강의나 ‘인권 골든벨’, ‘운동회’, ‘어버이날 행사’ 등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인권의 인식변화가 나타남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것과 예부터 배운 것들로 당연하게 아이들을 대하는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점이 이번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을 함에 크게 느끼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고 남은 활동들을 통하여 인식의 개선과 영유아들의 인권 인식 등이 더 변화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목소리를 내면서 책임감을 가지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래본다.
따뜻한 시선으로 너희들을 바라보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첫걸음에 우리 모두 동참해 보길 소망해 본다.

시립장미어린이집 부모 후기 1

아이와 제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마침 시립장미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워 자신 없어 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이 커서 직장에 다니느라 소홀했던 저를 자책하고 아이를 다그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장미어린이집에서의 원 생활에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는 아이의 모습에 흐뭇하였고 수줍어하면서도 선생님과 배운 인성 인사말을 주고받는 모습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에 저도 용기가 났고 감사한 마음에 기회가 될 때 마다 어린이집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시선 그 첫걸음 가족운동회에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즐기는 법을 알려주려 노력하다보니 mvp 까지 받게 되어 나에게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시간이 되었었답니다.

이번 2학기 참여수업으로 진행된 프리마켓 행사를 준비하면서 간판을 우리 아이와 꾸미는 시간을 통해 아이에게서 보여 지는 집중력과 끈기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답니다. 또한 그 과정과 활동을 통해 협동과 분담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체험 해 보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인권 골든 벨에 참여하면서는 아동인권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었고 아이에게 했던 저의 행동이 학대는 아니었나 돌아보며 “안돼” 라는 말을 많이 하는 부모였구나~반성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시선 그 첫걸음의 시간을 통해 아이와 아빠 엄마 모두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항상 햇빛과 그늘이 되어주시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짧아 미안한 맞벌이 부모에게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주신 장미 어린이집 교직원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을 바탕으로 항상 행복함을 느끼며 성장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시립장미어린이집 부모 후기 2

안 돼! 위험해! 하지 말랬지~! 그만울어!
항상 내가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다... 왜 이런 사소한 단어사용에 있어서도 심각성을
몰랐을까?..라는 의문점을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가고 있다.

우리 사랑스런 아이가 내게 와서 자라는 것이 처음이듯이..나도 부모가 처음이다.
처음이란 단어에는 미숙하게도 처음이라 괜찮겠지? 뭐 어때? 라는 마음이 용서로서 포장되어 지는 것 같다. 나도 그랬었고, 지금도 가끔은 그렇다.

아동인권이란 주제를 잡고 시작하는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부분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많은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가족운동회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점을 선생님들께서 표현해 주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엄마 아빠 핸드폰 말고 저좀 바라봐 주세요! ”“엄마 아빠는 저희들의 안전 놀이터입니다.” 왜 몰랐을까? 핸드폰을 아이들이 아닌 우리 부모가 먼저 만지고 펴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해 본다.

인권 골든벨 시간에는 아동권리에 대해 기초지식을 알아가면서 쉽게 익혀 볼 수 있도록 미리 예상지를 가정으로 보내오는 센스를~~~ 보여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보낸다.
그냥 대충 맞혀 지겠지? 했던 나의 생각은 오산 이였다. 그래도 아이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아이를 더욱 더 존중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매일 매일 변화를 요구하면서 보내고 있다. 나는 그 변화에 무감각하게 대했던 엄마였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 아이가 자라는 성장의 시간 속에 따뜻한 시선을 통해 바라보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더 아끼고 지내려 한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남은 활동들도 너무나 기대된다.

항상 애써 주시는 우리 장미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저희들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고양시
해피트리어린이집

후기

해피트리어린이집 교사 후기 1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선생님들)을 만나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맞추어가지만 때때로 성격부분에서 잘 맞지 않아 트러블이 발생하는 일이 잦을 것이고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도 공감되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리고 나 역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많이 어려웠었던 부분도 있고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기대기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점차 일에 적응되면서 처음보다는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맞추면서 일을 해 왔는데, 다른 반 선생님께서 집안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시게 되면서 그 자리에 대학교 동기 친구를 추천하였고, 곧 입사를 하게 되었다. 친구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적과 공적인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럼에도 한동안 같이 어우러지면서 서로에게 의지도 하고 도움을 주고 받기도 했다. 때때로 작은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라 자연스럽게 넘어가며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담아두고 곧 감정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나에게는 스트레스로 바뀌었고,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씩 짜증 섞인 말투로 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A선생님과 트러블 있을 때에는 나 스스로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점점 잦아졌다. 만약 영아가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평소였으면 웃으며 넘어갔을 일에도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강한 어투와 억양으로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과는 다르게 투덜거림, 짜증, 화가 섞인 말투와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느낄 때 원에서 실시하는 '스트레스 지수'에서의 결과에서도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치에 달하였고, 아이들에게 짜증으로 대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다. 원내에서 스트레스 척도 검사를 맡으신 학부모님께서 아동권리와 존중 그리고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교육을 듣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STOP 팻말을 진행하기로 했다. STOP 팻말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 순간 STOP 팻말을 보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 STOP 팻말의 효과는 나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STOP팻말을 보며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되어 가기 시작했다. 선생님들과의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그 외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영아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화가 날 것 같을 때 교실 중간 중간 붙어 있는 STOP 팻말을 보면서 잠시나마 이 순간을 피하고 감정을 추스르고 난 후에는 전에 있었던 일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서 영아에게도 짜증이나 화가 섞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반복되는 노력에 스트레스 척도의 결과에서도 점차 낮아지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A선생님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며 트러블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였고, 더 이상 전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어 아이들에게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나'로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고마운 STOP팻말.....

만약 스트레스 지수 척도와 STOP팻말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에게 대하였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지금 현재도 STOP 팻말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언젠가는 STOP 팻말의 도움 없이도 감정 조절하는 '나'가 될 것이라 고대한다.

해피트리어린이집 교사 후기 2

아이들과 1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감정이 북받치거나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힐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거나 성장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따라 웃게 되고 울면서 보채거나 고집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신경이 쓰여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같은 반 담임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필요할 때 STOP팻말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STOP팻말을 사용하기 전에는 감정이 북받치는 일이 생기면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기 힘들어서 답답한 순간이 많았지만 억지로 참아야하는 상황도 있어서 마음의 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 답답한 순간에 시작하게 된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SOTP팻말'은 한달동안 있었던 상황이나 순간들을 다시 생각하고 뉘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상황을 돌이켜보며 나의 스트레스 정도를 체크하고 결과를 살펴보며 그동안의 스트레스 지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결과가 다소 높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같은 행동, 같은 말을 하는 아이들에게 더욱 감정이 올라와 언성이 조금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SOTP팻말을 보고 감정을 가라앉히다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설문지의 결과를 통해 원장님께서 섬세하게 설문지를 살펴보시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교사들에게 여쭤보시며 그 때의 상황을 신중하게 들어주시고 그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던 교사는 원장님과 대화를 함으로써 감정이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달 스트레스 설문지에서는 전보다 안정적인 결과로 나왔고 스트레스 설문지와 팻말 뿐만 아니라 원장님과의 진솔한 대화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STOP 팻말을 접했을 때 익숙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못했지만 감정 컨트롤이 힘들었을 때 STOP 팻말을 보면서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걸 느끼고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이 모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에 개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은 다르지만 이 STOP 팻말은 자신이 자주 접하는 공간에서 쉽게 사용 할 수 있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이 STOP 팻말을 보지 않고도 마음 속에서 STOP을 생각하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지금의 사회에서 이 STOP팻말을 사용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에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트리어린이집 부모 후기 1

연일 아동학대로 피해 받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 마다 같은 나이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마음이 참 아팠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보육교사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기사를 접할 때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 걱정도 됐다.

2018년 처음 이 모임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생각이 난다. 그러던 중 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한참 육아 스트레스로 허덕이던 때가 생각이 났다. 둘째 아이의 육아로 쌓였던 스트레스는 나에게 약자였던 큰아이에게 쏟아내기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큰일도 아니었는데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가끔은 엉덩이를 두들겨 주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일도 아닌 일로 큰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상처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이가 큰 눈망울을 하고 나를 바라보자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문든 '때려야만 학대일까? 내가 한 말들로 이 아이가 크게 상처를 받는다면 그게 바로 학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정신과에 근무하는 언니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언니는 내게 "이건 환자들에게 쓰는 치료 기법인데, 네 상황에선 효과가 있을 거야" 라며 STOP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옆에 있던 빈 종이에 크게 STOP! 이라고 적은 후 큰 아이에게 "엄마가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이 종이를 보여줄게. 그리고 엄마는 잠시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갖을꺼니까 엄마가 방에 들어가거나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놀라지 말고 기다려줘"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그렇게 우리의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STOP 프로그램은 시작 되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가 물을 엎질러도 "괜찮니? 엄마가 닦아줄게."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아이가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의 말은 곱게 나가지 못한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른들은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게 된다. 한 템포만 쉬었다 이야기하면 최고조로 찍었던 감정들도 조금은 누그러들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막아주는 것 같다. 그렇게 원내에서 그리고 가정에 STOP 표지판을 만들어 부착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표지판을 보면서 아동에게 아주 작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도 상처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신과 의사인 서천석씨는 한 강의에서 양육태도나 문제로 학대가 일어난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의 35.6%라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달에 한번 씩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모임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아동학대 사례들, 부모의 자세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심리나 훈육법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무심코 했던 많은 말과 행동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들로 하여금 나의 고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고민이었다는 동질감과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을 갖었다.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는 2018년도에 시작해 2019년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해피트리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 모임이 아동학대 예방 뿐만 아니라 부모의 스트레스 및 고립 예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이런 활동들은 아동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부모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해피트리어린이집 부모 후기 2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었다. 업무시간은 물론이고 퇴근길에도 어김없이 휴대폰으로 영국 본사 직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밤낮없이 업무를 했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은 그렇게 일하면 누가 알아주냐 했지만 그땐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는 한 아이를 잘 키우는게 '내 일'이 되었다. 연습도 없었기에 서툴렀고, 힘들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포기할 수도 없는 육아라는 것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직장생활과는 또 다르게 정말 녹록하지 않았다. 양가 도움없이 아이를 키우는게 너무나 힘들었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제대로 맞기는 한건지 나 자신에 대해 원망이 커져가며 몸도 마음도 한없이 나약해져갔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 자조모임 공지를 보게 되었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첫 모임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다 내려놓고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여태 누구의 엄마로 불렸었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 얘기하는데도 너무 어색해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다. 마음 깊은 곳을 콕 하고 건드려줬던 시간이었다고나 할까? 매번 다른 주제의 사례들을 다루면서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엄마들과 자유롭게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3월 첫 모임 이후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되었다.

자조모임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끄럽지만 한참 말을 듣지 않을 때 펜으로 손바닥을 한 대씩 때리던 체벌도 바로 없앴고, 3월에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는 것 같아 환경개선 차원에서 아이방과 거실구조도 바꿔주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TV시청도 간헐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심코 내뱉은 말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크게 상처받고 또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기도 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이는 본인 탓을 한다는 것, 욱하는 감정을 미화하지 않는 것 등 매번 모임이 끝나면 신랑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고 혹시 우리 가정에 더 적용할 것은 없는지 상의하곤 했다.

요즘은 혹시 내 육아에 대해 과한면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나게 몸으로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 아이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육아는 '참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나와 내 남편이 변하고 결국 내 아이가 변하게 되는걸 보니 이 자조모임이 우리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확실하다. 내가 절실할 때 참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 자조모임 프로그램이 나중에 가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필수과정으로 자리 잡는 날이 꼭 오길 바라며, 내년에도 새로운 주제들로 모임이 계속 운영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권리야~ 놀자

남양주시
시립 별내어린이집

후기

시립별내어린이집 교사 후기 1

교사들도 유아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려 하지만 업무와 또 여러 명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권리야 놀자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을 있는 그래도 인정해주고 아이들의 권리를 인식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실시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시작함으로써 나를 통해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 가정으로 사회로 확산 되어 가므로 서로를 배려하며 나 중심에서 사회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리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아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떠한지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친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판단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경우는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친구의 경우가 되면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행동이 옳은지 어떤 행동이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유아들 끼리 서로 간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작은 변화지만 친구를 방해하지 않고 함께 즐거운 생활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사의 개입보다 유아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자기중심에서 행동하려 하다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장하는 유아들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이지만 변화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교사로서 더욱 아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델링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권리야 놀자>가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교사로서의 내 모습 속에서 아이들의 행동에 모델이 되고 또 나 스스로도 아이들을 조금 더 존중해야 하는 존재, 존재 자체로서도 소중한 아이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교사로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립별내어린이집 교사 후기 2

요즘 아동 학대 범죄율이 높아짐에 따라 화두에 오른 영유아 권리존중교육. 절대 간과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작고 어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교육을 받으며 아이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성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보육현장 내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까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에서 실시한 이번 권리야 놀자 프로그램의 계획 및 진행과정에 대해 함께 준비하면서 유아권리 실현이 어렵고 동떨어져있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아들을 존중하는 교육,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대하는 교사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 교육임을 알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 그 동안은 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친구들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합의점을 찾아주었다면 권리에 대한 인식을 깨달은 후로는 유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큰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했던 염려와는 다르게 몇 번 자신의 주장을 큰 소리로 내고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유아들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워하던 유아들도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마냥 어린아이로써 성인이 시키는 대로 성인이 참견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교사로서의 제 태도가 바뀐 뒤 아이들의 태도 또한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보육시설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그 동안의 교사로서 얼마나 아이들의 참여권을 “참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유아들이 성인에 비해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이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성인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역할 역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아들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주고 유아 스스로 선택하는 결정의 주체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아교사로서의 주된 역할이라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시립별내어린이집 부모 후기 1

내 아이의 권리가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번 [권리야 놀자] 프로그램을 하며 내 아이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를 먼저 인식해야하고 아울러 타인의 권리도 소중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매달 주어진 주제에 맞추어 부모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내 아이의 권리 존중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어 너무 유익했고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가정연계로 이어지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특히 가정연계 활동으로 '오늘 저녁을 함께 준비해요'와 '사랑의 편지 쓰기'등을 하며 평소 쑥스러워 잘 표현을 하지 못하던 아빠도 아이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가족 간에 더욱 화목해 지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좋았다.
또, '우리가족 권리 존중 왕'을 뽑으며 왜 존중 왕으로 추천하는지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칭찬하게 되고 칭찬을 들으며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엔 마음이 급해 아이에 생각을 끝까지 듣지 못하였는데 [권리야 놀자] 활동을 하며 아이에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이 스스로도 처음엔 권리라는 말의 의미를 어려워하였지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친구나 교사 부모에게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 너무 좋았다.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타인의 권리도 소중함을 알고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조율하려는 모습을 볼 때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런 아이의 모습이 너무 뿌듯하고 대견하였다.
[권리야 놀자] 활동을 하며 내 아이의 권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정연계 활동들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 해주어 너무 감사드리고 권리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담임선생님,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시립별내어린이집 부모 후기 2

부모로서 아동의 권리, 권리보호에 대한 필요와 정당성에 대해서는 막연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로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원에서 진행하는 '권리야 놀자'프로그램은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갖게 했습니다. 원에서 보내주신 설문 조사서를 읽어보며 아동 권리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을 경우 정말 화가 났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는 과연 내 아이의 권리를 얼마나 존중해주었는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먹기 싫어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할 때 차분히 왜 싫은지 질문해 본적이 거의 없이 건강을 위해서, 또는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해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내 자신이 권리야 놀자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권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고 더 자존감 높은 아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권리에 대해 이해하기도 힘들 수 있고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 권리를 적용하여 활동을 하니 아이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어떻게 해줘야할지 막연함도 있었지만 가정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쉽고 다양한 방법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 참여 활동으로 원에 방문하여 직접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을 해보니 아이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에 방문했던 날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와 함께 원에서 했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며 재미있었다고 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행복했답니다.
표현할 권리와 사랑받을 권리에 대해 활동을 할 땐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우리 원 만들기 캠페인 사진을 보며 아이들이 어린이집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반성하며 주변에 쓰레기를 보면 주워야겠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를 주제로 활동할 땐 장애체험과 다문화 가족 콜라쥬 활동이 장애아와 다문화 가족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모가 다르다고 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습이 달라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를 이해하고 친구와의 사이도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원장님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원을 만들어주세요.

특별한 나, 소중한 우리

양주시
신동아어린이집

후기

신동아어린이집 교사 후기 1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원 내 교사 자체평가를 통해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을 되돌아보며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의 말과 행동에서 변화가 생기고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다.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부모와의 소통도 늘어났다. 가정과 원의 생활을 연계하여 더욱 편안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며 학부모의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 가정과의 연계활동 및 부모 교육자료를 통해 같은 활동을 함께 해보며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다고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받는 경험을 했을 때 교사와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받으며 보육하는 환경은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시도하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아에게 적합한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의 태도를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신동아어린이집 교사 후기 2

교사로서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였고 교사로서의 유아권리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영아에게 적합한 아동권리존중 보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준비 및 계획,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매 달 “아동권리존중의 날”을 열어 아동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었다. 아동권리 존중의 날은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날로 자유롭게 의사표현의 기회도 가지고 신나는 신체 활동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동권리존중 실천을 위해 정기적인 교사교육을 통하여 아동권리인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신동아어린이집 부모 후기 1

아동권리존중프로그램을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커졌으며, 어린이집과 가정과 연계된 활동을 통해 권리존중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정연계활동의 피드백 시간을 통해 교사와 자주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도 아이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수용하는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이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해보니 더욱 아이와 친숙해지고 안정감 있는 정서를 형성할 수 있었다.
“부모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는 아이가 존중받는 아이로 자란다”라는 부모교육과 부모교육자료를 토대로 아동권리존중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볼 수 있었다.
또한, 아이와 하는 놀이 시간을 늘리고 함께 참여하며 아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의 관심과 흥미를 존중하며 놀이하였다. 아이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아이 중심의 놀이시간을 늘려주었다. 또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던 기존의 훈육방법을 없애고 흥미위주로 아이를 존중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등 가정 내 양육 태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신동아어린이집 부모 후기 2

아동권리존중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접할 수 있어서 많이 걱정하곤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및 급식, 가정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함께 아이와 활동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내가 알지 못했던 아동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존중받는 경험을 많이 제공해주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파이팅!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남양주시
유호꼬마별어린이집

후기

유효꼬마별어린이집 교사 후기 1

영아들과 웃음 반 설레임 반으로 시작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편식예방 프로그램...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던 영아들에게 채소를 이용한 다양한 오감 활동들을 통해 채소와 친해지는 시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감을 이용해 채소들을 탐색하고 영아들이 좋아하는 신체를 이용한 퍼포먼스 활동들과 창의력을 요하는 미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했는데, 특히 영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탐색하고 참여한 요리 활동들이 영아들에게 채소와 친해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영아들이 섭취해야 하지만 먹기 싫어하는 버섯,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로 다양한 요리 활동을 경험하고, 만든 요리를 먹어보는 시간들을 통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자존감 또한 높아졌으리라 생각된다.
여러 가지 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브로콜리를 가지고 '엄마, 아빠의 머리꾸미기' 와 '미용실놀이' 를 하며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언어표현이 서툴기는 했지만 자기의 사전경험들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헤어스타일을 표현하고, 손과 눈을 협응하여 가위를 이용해 브로콜리 머리 자르기 활동을 하고 소개하는 시간은, 영아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키워주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영아들과 함께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편식예방프로그램이 편식이 심했던 영아들에게 먹기 싫어하는 채소들도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통해, 새로운 것을 스스로 탐색하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자존감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영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바른 식습관을 키워줌으로 영아들의 균형적인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유효꼬마별어린이집 교사 후기 2

작년 3월에 시작한 편식예방프로젝트를 한 계기는 우리 영아들의 균형 있는 올바른 영양섭취와 올바른 생활습관을 다지기 위해 시작했던 것 같다. 사실 아이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낯설어서 혹은 맛이 없어서 거부하는 것들이 하나, 둘 생기고 점점 야채를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면서 놀이 중에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들의 편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당근머핀과 브로콜리 주먹밥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요리활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스스로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거부감 없이 영아 대부분이 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었다.
특히 미역은 딱딱한 질감이 물에 불어 야들야들 한 촉감까지 신기한 듯 만져보고 먹어보고 처음과 다른 그 느낌을 탐색하는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하였다.
토마토, 오이, 버섯 등 여러 가지 색깔도 탐색 할 수 있었고 야채 하나하나의 냄새와 맛 촉감을 느끼는 영아들도 있었다. 채소 특유의 쓴맛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푸드 브리지'를 통해 채소가 많이 들어간 요리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새로운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을 좋아하기까지는 최소한 8번 이상 노출이 있어야 새로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싫어하는 재료를 가지고 놀이로 활동하다보니 재료에 친숙해지면서 음식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줄어들 것 같아 다행이었다.

여러 가지 재료들로 영아들이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오감활동을 함으로써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즐거운 식사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양소 섭취에도 문제없이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이 튼튼해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효꼬마별어린이집 부모 후기 1

아이가 어릴적 문화센터에서 오감수업을 했을때가 생각나네요..그때도 음식을 가지고 활동했었는데 실물 재료가 아닌 만들어진 재료로 탐색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실재로 재료들을 마음껏 만져보고 냄새맡고 먹어보며 재료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활동과 요리활동까지 함께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래도 재료를 만져볼 때 집이 더러워지고 하니 잠깐 하다 치우곤 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이 활동을 하는 날이면 저도 기대가 되고 아이들도 등원할 때 기분좋게 가는 것이 눈에 보여 참 감사했습니다.
항상 활동하는 것을 보며 더 많은 재료들을 손질하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항상 꾸준히 활동해 주셔서 우리 아가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고 추억이 될 듯 합니다.
활동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활동으로 까지 이어져서 평상시에는 잘 안 먹으려 했던 음식들도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어 편식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활동해 주심 더 감사할 듯 합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효꼬마별어린이집 부모 후기 2

아이들이 꺼려하는 채소들과 쉽게 친해 질 수 있도록 도와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제에 맞게 흥미로운 활동과 연계하여 요리활동까지 진행하여 아이들이 더 쉽게 재미있게 활동하며 관심을 갖았던 것 같습니다.
당근 활동을 하고 집에 와서는 당근을 먹었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평상시에 전혀 먹지 않았던 음식인데 활동하고 브로콜리 주먹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이런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지며 활동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평상시에 안먹던 음식도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니 더 관심을 갖고 먹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는 사진들을 보면 어린 영아들도 너무 재미있게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으실텐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해 주셔서 어린이집에 감사드립니다. 힘드신 만큼 꼬마별 친구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되고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집에서도 어린이집에서 한 활동들을 이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들 드리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음 튼튼이

파주시
시립해솔마을6단지어린이집

시립해솔마을어린이집 교사 후기 1

‘마음 튼튼이’ 인성프로그램을 연계한 아동권리존중을 1년동안 실천하며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영유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막막하였다. 처음에는 선호하는 놀잇감이 같아 자기가 먼저 놀이하려고 하고, 친구에게 양보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 갈등이 되는 일이 많았는데, 매일 주제에 따라 가정과 연계하여 인성을 실천해보니, 영유아들이 몸짓,손짓,언어표현으로 “빌려줄래?”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처럼 인성을 통해 사회성 발달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놀이 속에서 생성되는 것 같았다.

매달 교사들과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은 아동권리존중 인성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먼저 영유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서 영유아 권리존중선서문을 수차례 읽어보며 영유아에게 대한 관점을 정립해 보기도 하고 기본생활과 인성프로그램을 통해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기도 하였다.

우리어린이집에서 매주 인성실천주제를 연계하여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어린이집 전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교사의 사소한 행동으로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도록 하며,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인 표현이 많은 영아를 맡고 있는 영아반 교사는 충분히 기다려 주고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스킨십, 마음공감해주기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바깥놀이시간에는 어른을 만나면 교사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효), 정리를 한 영아에게“OO이가 정리를 하였구나, 잘했어”라고 격려를 해주며(자존감), “OO아”라고 부르면 “네”라고 대답하는 모습(용기), 친구와 함께 책을 읽어주는 모습(배려)등을 교사가 지속적으로 모델링이 되어주며 놀이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주제(질서, 약속, 자존감, 배려, 용기, 절제, 감사,협력, 나눔, 절약, 효)를 적용하며 실천하였더니 학기를 마무리 할 시기가 오자 친사회적 행동(우는 친구 토닥여주기, 휴지로 눈물 닦아주기, 꽃이나 나무를 꺾는 모습을 본 영아가 “꽃아퍼, 나무 아야해”자연물을 보면 다가가 손으로 쓰다듬는등)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기도 하였다.

또, 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생활을 대화장에 기록하거나, 카페에 인성실천한 영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업로드 하여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소통을 시도 하였더니 더욱더 영아의 행동에 변화가 온 것 같다.

보육기관에서와 가정에서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긴 시간 동안 전적으로 보육교사인 나를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보육교사인 나는 영유아의 첫 사회에서 만나는 부모이외에 양육자이므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아야 함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육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립해솔마을어린이집 부모 후기 1

입학설명회때 원장님께서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실천해주어야 하는지 몰랐는데, 매주 실천 약속이라고 주제를 정해주니, 엄마로써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우리 아이는 과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에게 주지 않던 아이가 “나눠먹자~~”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한 놀잇감을 던지거나 빼앗던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제시해준 것처럼 “친구에게 같이놀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미안해 이야기해주면 친구가 좋아할거야?”라고 말해주니, 장난감을 던지는 행동도 줄고, 미안해라고 손짓과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놀이하던 놀잇감을 정리하고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는 거지요?”라고 말을 하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때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아이 스스로 존중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실천방안이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워나갈게 많은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어린이집 선생님, 원장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부탁드리며 같이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해솔마을어린이집 부모 후기 2

처음에는 인성계획안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거야?”하는 궁금증만 있었다. 나는 먼저 가정에서 실천 약속을 읽어주었다.

“OO아, 나눔이 뭔지 알아?”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는 “몰라, 그런데 선생님께서 같이 나누어 놀고, 나눠 먹는거라고 말했어?”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 맞아,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읽어보자”하면서 구체적인 예시글을 읽어주었다.

그 효과일까?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생과 놀이할 때 “내꺼야?”하면서 방으로 도망을 가던 아이가 “너도 해”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놀이하였다.

나는 많이 실천하지도 않았다. 그저 어린이집 계획안을 함께 읽어준 정도만 했는데 아이가 “나”에서 “우리”로 성장하는 것 같아 좋았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9 우수보육프로그램

[아동권리존중]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GYEONGGIDONORTH SUPPORT CENTER FOR CHILDCARE